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험프리의 학창시절

-벤티 G 버니-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

한영과

강 승 표

2018년 12월

험프리의 학창시절

-벤티 G 버니-

지도교수 김재원

강 승 표

이 논문을 통역·번역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12월

강승표의 통역·번역학 석사학위 논문을 추인함

심사위원장 _____

위 원 _____

위 원 _____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

2018년 12월

School Days according to Humphrey

Seung-Pyo Kang

(Supervised by professor Jae-Won Kim)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2018. 12. .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Korean-English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I. Abstract	1
II. 작가 소개	2
III. 헌 정 사	3
IV. 본 문	4
1. 최악의 첫날이 시작되다	4
2. 최악의 첫날이 점점 악화되다	11
3. 규칙들	22
4. 학교의 밤	32
5. 다정한 얼굴	40
6. 흔들기, 꿈틀거리기, 그리고 돌기	47
7. 방문객과 방문	56
8. 세상에서 최악의 학급	62
9. 최악의 학급은 호전되지 않는다	70
10. 아주 최악의 하루	79
11. 브리즈번의 친구들	86
12. 똑딱 똑딱	96
13. 브리즈번 대 베커	106
14. 협력하기	114
15.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학급	121
V. 참 고 문 헌	127

I . Abstract

Humphrey is a wise and friendly pet who loves writing poems. He lives in classroom 26 with Og, the frog. He loves his teacher and classmates and sympathizes with them. However, he is concerned about the bothersome things occurring in the classroom and so began to look into it.

The new semester begins. Humphrey waited for his old friends but only new students showed up in the classroom. He is bewildered. So, he goes around the school at nights to search where his old friends are and while doing so he encountered a small trouble from accidentally getting caught in the door.

The class with the new students was problematic. The new students unlike the old ones were quite the trouble makers. Rosie in a wheelchair never bothers anyone for help while Holly loves to offer help to anyone who needs it. On the other hand, the new students like Harry is always late. Phoebe often forgets her homework. Thomas over-exaggerates everything and there's the confusing tall Paul and small Paul.

Humphrey helps Mrs. Brisbane to settle the problem in his own little ways, such as replacing the teacher's role card and setting Harry's family clock ten minutes ahead of time. As time goes by, the class turned into the best one in their school.

The author Birney achieved her purpose of leaving a good moral lesson and encouraging readers' imagination. She teaches the readers the importance of harmony and working together as a team.

This book deserves to be highly valued in how it showcased actual daily happenings in a school using animals to spark reader's interest.

II. 작가소개

베티 지 버니는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에서 태어났다. 그녀가 7살이 되었을 때 *Teddy Bear in the Woods* 라는 제목의 작품을 쓰기 시작했다. 작가였던 언니와 부모님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서 작가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다. 그녀는 웨스턴 칼리지 (현재 웨스턴 유니버시티)에서 영문학을 공부하는 동안에도 계속 글쓰기를 하며 후에 유명한 작가가 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처음에 버니는 디즈니 스튜디오에서 작가와 편집자로 일을 했다. 그 당시에 *Madeline*, *Doug*, *Bobby's World*, *Dumbo's Circus* 등 TV 프로그램 만화 시리즈를 200편이나 썼다.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는 2004년에 출판된 *The World according to Humphrey*를 시작으로 12권의 험프리 시리즈와 유사한 시리즈들이 있다. 이 시리즈로 많은 상을 수상하였는데, 최근에 *Friendship According to Humphrey*로 크리스토퍼상을 수상했다. 텔레비전 작품 *Madeline*으로 2002년에 에미상, *Fast Forward*로 1996년, *Big Boys Don't Cry*로 1993년, *Wish Upon a Fish*로 1991년 세 차례의 휴니타스상, 그리고 *But He Loves Me*로 1991년에 미국 작가 조합상 등을 수상하였다.

그 외의 작품으로 방과 후 특별활동, 대화형 CD-ROM 프로그램, 2002년에 상영한 TV 가족 영화 *Mary Christmas*를 썼다. 이 영화는 가장 시청률이 높았고, 아직까지도 크리스마스 시즌에 방영되고 있다.

이렇게 화려한 경력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일은 작가로서의 길이었다. 지난 수년 간 무려 35편 이상의 아동도서를 집필하기도 했다. 저서로는 *The Seven Wonders of Sassafras Springs*와 *The Princess and the Peabodys* 등이 있다.

Ⅲ. 헌 정 사

험프리를 아껴주시는 모든 독자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쓰는데 귀중한 도움을 주신 리타 데 리우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최악의 첫날이 시작되다

26반 교실의 조용한 아침이었다. 너무도 조용해서 내가 작은 노트에 긁적거리는 연필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오그¹⁾, 난 지금 여름 끝 무렵에 관한 한 편의 시를 쓰고 있어.” 내 이웃이자 친구 개구리에게 짹짹 거리며 말했다. (나는 학급 애완동물 험프리²⁾이다.) “지금까지 쓴 걸 읽어줄게.”

여름이여, 오, 여름이여,
나는 작별인사를 하고 싶지 않네.
여름이여, 오, 여름이여,
너는 꼭 끝나야 하는가. . . 그래야 한다면 왜?

내가 시를 읽고 있는 동안에도 오그는 어항 속에서 부드럽게 첨벙거렸다.

나는 해피 할로우 캠프³⁾에서
여름날들을 사랑했네.
그리고 그 날들이 끝나고 있기에. . .

나는 더 읽을 것이 없어서 멈추었다. 오그는 “핑” 하는 소리를 냈다. 오그와 같은 청개구리들은 “개굴개굴” 하는 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들은 끊어진 기타 줄과 같은 소리를 낸다. “핑, 핑!”

“오그, 아직 그 시를 끝까지 다 쓰지 못했어.” 라고 말했다. “난 할로우⁴⁾와 끝말이 같은 한 단어를 찾아야 해. 왈로우⁵⁾? 아니면 스왈로우⁶⁾?”

그 구절을 다시 읽어보았다.

1) Og
2) Humphrey
3) Camp Happy Hollow
4) hollow
5) wallow
6) swallow

나는 해피 할로우 캠프에서
여름날들을 사랑했네.
그리고 그 날들이 끝나고 있기에,
결코 억누를 수가 없네!

오그는 어항 속에서 요란스럽게 침병거리며 어항 깊은 곳까지 들어갔다. “나도 그 구절이 맘에 안 들어.” 내가 말했다. “다시 쓸게.”

바로 그때, 우리 학급의 담임이신 브리즈번⁷⁾ 선생님이 서류더미를 들고 교실 안으로 급히 들어오셨다. 평소처럼 나는 짹짹 노트를 케이지⁸⁾ 안의 거울 뒤로 숨겼다. 내가 인간들을 사랑하는 만큼 한두 가지 일은 비밀로 해두는 게 더 좋다.

“내가 이 일을 얼마나 오래했는데, 개학 첫날 복사기 대기 줄이 문 밖까지 늘어 있는 걸 잇다니.” 브리즈번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선생님은 서류들을 책상 위에 쌓아 놓고, 깔끔하게 인쇄한 규칙목록을 제외하고는 텅 비어있는 칠판과 게시판을 올려다보셨다.

브리즈번 선생님이 업무를 보시는 동안, 나는 그 규칙들을 전부 베껴 적고 되도록 빨리 암기하려고 했다.

브리즈번 선생님은 시계를 힐끗 보셨다. “곧 수업 시간이야.” 선생님은 오그와 내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창가 옆 탁자를 향해 말씀하셨다. “너희 둘이 관심이 있다면 말이야.”

“관심 있어요!” 짹짹 소리를 지르며 대답했다. 그 말은 진심이였다.

여름이 끝나가는 것이 아쉬웠지만, 즐거운 옛 교실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기뻐다. 마지막 캠프가 끝나고 내 친구 맥⁹⁾ 선생님은 브리즈번 선생님과 남편 버트¹⁰⁾의 집으로 나를 데리고 가셨다. 오그와 나는 몇 주 동안 그들과 함께 보냈다.

7) Mrs. Brisbane

8) cage

9) Ms. Mac

10) Bert

브리즈번 선생님의 집에 있는 것도 좋았지만, 그 곳은 너무나 조용해서 학급 친구들을 다시 만나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다. 그들 중 에이제이¹¹⁾와 가스¹²⁾, 미란다¹³⁾, 사에¹⁴⁾처럼 몇 명은 캠프에 함께 있었다. 하지만 꽤 오랫동안 다른 친구들을 만나지 못했다!

문이 활짝 열리고 롱펠로우 스쿨¹⁵⁾ 에서 가장 중요한 모랄레스 교장¹⁶⁾ 선생님이 안으로 들어오셨다. 브리즈번 선생님은 학급의 학생들을 담당하시고, 모랄레스 교장 선생님은 학교 전체를 책임지신다.

교장 선생님은 평소대로 재미있는 넥타이를 매고 계셨다. 알록달록한 색깔의 작은 책들이 그려져 있는 넥타이였다.

“안녕, 수¹⁷⁾.” 교장 선생님은 브리즈번 선생님에게 말씀하셨다. “준비됐나요?”

“저는 늘 준비되어 있어요.” 브리즈번 선생님이 대답하셨다.

교장 선생님은 창가 옆 탁자로 걸어오셨다. “애들아, 다시 공부할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네, 네, 네.” 인간들이 단지 “찍, 찍, 찍” 하는 소리가 아닌 그 이상을 듣길 바라면서 힘차게 대답했다.

“평” 하며 오그도 찬성했다.

“좋아요.” 교장 선생님은 시계를 힐끗 쳐다보고 말씀하셨다. “난 버스가 왔는지 나가볼게요, 좋은 하루 보내요, 수.”

“교장 선생님도요.” 브리즈번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선생님은 서둘러 책상으로 돌아와서 종이 한 장을 살피셨다. 그 다음에 “피비해리켈시”와 같은 이상한 단어들을 중얼거리셨다.

맙소사, 올해 우리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거야?

“토머스로지폴.”

방금 풀이라고 말씀하셨지? 난 그 단어를 알고 있었다. 작년에 수학공부 하러

11) A. J

12) Garth

13) Miranda

14) Sayeh

15) Longfellow School

16) Principal Morales

17) Sue

우리 반에 왔던 한 소년의 이름이었다.

이 사실을 오그에게 말해주려고 할 때, 여느 때와 같이 시끄럽게 종이 울렸다. 내가 앞으로도 쪽 26반 교실의 학생으로 남는다 해도, 그 요란한 종소리에는 절대로 익숙해지지 않을 것 같다.

브리즈번 선생님이 교실 문을 열자마자 학생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다. 아주 이상했다.

브리즈번 선생님은 학생들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계셨다.

“자리에 앉아요.”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더 잘 보기 위해 케이지 위로 올라갔다.

“오그, 이 아이들은 누구니?” 내 이웃 오그에게 물어보았다. “난 이 애들을 전에 본적이 없어!”

“평!” 오그는 요란하게 침병거리며 대답했다.

낯선 학생들이 교실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 가운데 한 소녀가 휠체어를 타고 휙 지나갔다. 또 다른 학생은 정말 키가 큰 소년이었다. 그는 선생님만큼이나 키가 컸다. 아마도 더 컸던 것 같다!

“여러분, 자리에 앉아요.” 브리즈번 선생님은 어떻게 이 학생들이 26반 학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렇게 태연하게 말할 수 있을까?

학급 햄스터로서, 나는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너희들 교실 잘못 찾아왔어!” 짹짹하며 큰소리로 말했다. “여기는 너희들 교실이 아니야. 돌아가!”

“환영해요, 모두 자리에 앉아요.” 브리즈번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환영 인사말을 하셨다.

“여기가 아니라고!” 케이지 꼭대기로 쪼뼛쪼뼛 올라가며 계속 말했다. “여기는 26반 교실이야!”

안타깝게도 내 목소리는 작아서 아무도 듣지 못한 것 같았다. 학생들이 태연스럽게 자리에 앉았기 때문이다.

브리즈번 선생님은 계속 미소를 지으셨고 그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옛 친구로써 유어 보이스 에이제이¹⁸⁾처럼 나도 큰 목소리를 가졌다면 얼마나 좋을까.

18) Lower-Your-Voice-A.J

다시 종이 울렸을 때 내 마음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브리즈번 선생님은 아주 훌륭하신 분이며 인간치고는 꽤 똑똑하다. 하지만 선생님은 왜 학생들이 잘못 들어왔다는 것을 모르시는 걸까?

“오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니?” 개구리 친구에게 물었다.

이번에는 오그도 대답하지 않았다. 아마도 그만큼 혼란스러운가 보다.

“안녕, 험프리! 나야!” 익숙한 목소리가 크게 들렸다.

슬로우 다운 사이먼¹⁹⁾이 케이지 쪽으로 급히 달려왔다. 그는 26반 학생이었던 스타프 기글링 게일 모르젠슈테른²⁰⁾의 남동생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어디에도 없었다.

“너를 주말에 우리 집으로 데려갈게.” 사이먼은 분명하게 말했다.

“지금 너희 교실로 돌아가지 않으면 지각할거야!” 나는 짹짹하며 경고했다.

그때 브리즈번 선생님은 사이먼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셨다. 사이먼은 빙글빙글 돌고서 쏜살같이 달려가다가 밝은 빨간색 머리카락을 가진 한 소녀와 부딪혔다. 그녀의 의자가 통로에 튀어나와 있었던 것이다.

“켈시,²¹⁾ 좀 조심해야지.” 사이먼이 말했다.

“네가 와서 나를 들이받았잖아!” 그 소녀는 자기 팔을 문질렀다. 그녀는 아마도 크게 멍이 들었을 것이다. 아야!

“지금 일어나는 일은 말도 안 돼!” 나는 오그에게 말했다. 정말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온 세상이 뒤집어졌는데, 오그와 나만 그 사실을 알아챈 것 같았다.

“험프리, 안녕.”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올려다보았더니 내가 스몰 폴²²⁾이라 생각했던 폴 플레처가 서 있었다. 그는 놀랄 만큼 수학을 잘해서 작년에 매일 수학 수업을 받으러 왔었다.

폴은 똑똑했다. 그가 이 상황을 파악했으리라 확신하고 물어보았다.

“애들은 왜 여기에 온 거야?”

폴은 코 아래로 미끄러진 안경을 위로 올렸다. “올해는 나랑 같이 우리집으로 가자.” 폴은 흥분하며 계속 말했다. “정말 기대된다!”

19) Slow-Down-Simon

20) Stop-Giggling-Gail

21) Kelsey

22) Small-Paul, Paul Fletcher

그가 방금 뭐라고 말했지? 26반 학생들만 주말에 나를 집으로 데려갈 수 있었다.

“학급 여러분, 조용히 하고 자리에 앉아요.” 브리즈번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학급? 방금 선생님이 학급이라고 하신거야? 그들은 우리 반 친구들이 아니었다. 에이제이와 가스, 하이디²³⁾, 맨디²⁴⁾는 모두 어디로 간 걸까? 케일과 그녀의 웃음은 어디에 있는 걸까? 리치²⁵⁾와 아트²⁶⁾, 타비사²⁷⁾, 세스²⁸⁾는? 커크²⁹⁾와 그의 농담은? 그리고 완벽한 금발머리 골든 미란다³⁰⁾는 도대체 어디로 가버렸을까?

“브리즈번 선생님?” 짹짹하고 소리쳤다. “선생님,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이 애들은 우리 반 친구들이 아니에요!”

브리즈번 선생님은 학생 수를 세느라 바빠서 내 소리를 듣지 못했다.

“학생 한 명이 없네요. 기다려보죠. 일단, 여러분, 26반 학급에 온 것을 환영해요!”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상처받은 나는 케이지 아래로 달려가서 허둥지둥 내 침대로 들어갔다. 그 곳은 혼자서 생각할 수 있는 장소였다.

나는 방금 여름에 대해 적었던 시를 떠올려보았다. 곧 새로운 시구가 생각났다.

여름이여, 오, 여름이여,
길고 여유로운 날들과 함께.
그대가 지나가고 있으므로,
모든 것은 미쳐가고 있네!

23) Heidi

24) Mandy

25) Richie

26) Art

27) Tabitha

28) Tabitha

29) Kirk

30) Golden-Miranda

험프리의 교칙: 교실에 들어와서 앉기 전에, 항상 여러분의 학급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

2. 최악의 첫날이 점점 악화되다

수업시작을 알리는 종이 울렸고, 휠체어를 탄 (이미 앉아 있었던) 소녀를 제외하고 모두가 자리에 앉았다. 여전히 의자 하나가 비어있었다.

브리즈번 선생님은 문으로 가서 복도를 내다보셨다.

“저런, 여기 있구나.”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선생님이 문을 활짝 열자 한 소년이 걸어 들어왔다.

“넌 아까 사라졌던 학생이구나.” 브리즈번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저는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 소년은 대답했다. “지금 여기에 있으니까요.”

그는 크게 혼날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브리즈번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시며 그를 빈자리로 안내했을 때 조금 놀랐다. 선생님은 칠판 앞으로 가서 말씀하셨다.

“안녕, 학급 여러분, 작년에 나는 최고의 학급을 맡았어요. 하지만 보아하니 이번 학급이 훨씬 더 나올 것 같군요!”

“더 낫다고?” 찌익 놀라서 비명을 질렀다. “그 반은 세상에서 가장 최고였어요!”

“평, 평!” 오그도 동의했다.

그 말이 사실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었다. 하지만 작년에 나와 함께 했던 학급보다 더 나은 학급은 상상할 수가 없었다. 그 학급은 내가 함께 했던 유일한 학급이었다. 그나저나 작년의 학급 친구들은 어디로 갔을까?

“나중에 자리를 다시 바꿀 거예요.” 브리즈번 선생님은 말씀하셨다. “그건 그렇고, 먼저 출석을 부를게요.”

“오그, 듣고 있니?” 오그에게 물었다. 하지만 오그가 내 말을 듣고 있는지 확신이 없다. 나는 오그의 귀를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오그는 대부분 내 말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 꿈꾸고 있는 거지?” 나는 궁금했다. 지금까지도 그날 아침은 모든 것이 현실 같고 기분이 이상한 꿈같았다. 한번은 내가 꿈을 꾸었는데, 인간 친구들이 거대한 햄스터 공간에서 뒹굴고 있었다. 아주 우스꽝스런 꿈이었다.

또 한 번은 라이트³¹⁾ 체육 선생님이 다른 과목 수업을 하는 꿈을 꾸었다. 그 꿈은 전혀 우습지가 않았다. 라이트 선생님은 늘 시끄럽게 호루라기를 불곤 하셨는데, 그것은 작고 예민한 귀를 가진 햄스터에게는 고통스러운 소음이었다.

오그는 내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아마도 개구리들은 꿈을 꾸지 않는가 보다.

이때 브리즈번 선생님이 전에 중얼거렸던 이상한 단어들을 크게 호명하셨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단어들은 학생들의 이름이었다.

“켈시 커크패트릭³²⁾?”

“네.” 빨강머리 소녀가 팔을 문지르며 대답했다.

“해리 이토³³⁾?” 브리즈번 선생님이 부르셨다.

해리는 지각했던 소년이었다.

선생님이 사이먼을 호명하자 그는 대답했다. “출석 했어요³⁴⁾!”

선물? 내 눈에는 어떤 선물도 보이지 않았다. 누구 생일이었나?

“로지 로드리게스?” 브리즈번 선생님이 부르셨다.

휠체어에 앉은 소녀가 손을 흔들며 소리쳤다. “여기요!”

다음으로 토마스³⁵⁾라는 소년이 대답했고, 피비³⁶⁾와 홀리³⁷⁾ 두 소녀가 뒤를 이어 대답했다.

“오그, 보고 있어?” 내 친구에게 말을 걸었다.

오그는 조금 침병거릴 뿐 대답하지 않았다.

그 다음이 정말 이상했다.

“폴?” 브리즈번 선생님이 부르셨다.

곧 하나가 아닌 두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요.”

그들 중 한 명은 작년에 왔던 스몰 폴이었다. 다른 폴은 키가 큰 소년이었다.

브리즈번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셨다. “깜빡했어요. 올해 우리 학급에는 폴이 두 명이예요. 폴 플래처와 폴 그린³⁸⁾. 자, 우리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별하면 좋

31) Mrs. Wright

32) Kelsey Kirkpatrick

33) Harry Ito

34) present: n. 선물, a. 참석한

35) Thomas

36) Phoebe

37) Holly

38) Paul Green

을까?”

쉬운 질문이었다. 한 명은 키가 작았고, 다른 한 명은 키가 컸다.

스몰 폴과 톨 폴은 서로 쳐다보았다. 어느 누구도 같은 학급에 또 다른 폴이 있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았다.

“작년 너희 선생님은 뭐라고 부르셨니?” 선생님이 물으셨다.

“재는 우리 반에 없었어요.” 스몰 폴이 말했다.

“작년에 저는 다른 학교에 다녔어요.” 톨 폴이 덧붙여 말했다.

브리즈번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렇구나. 혹시 너희들 별명 있니?”

두 소년은 고개를 저었다.

“그럼, 당분간 폴 에프, 그리고 폴 지라고 부르자. 괜찮니?” 선생님이 제안하셨다.

두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서 브리즈번 선생님은 한 명을 더 부르셨다. “조세프³⁹⁾?”

갈색 곱슬머리를 가진 한 소년이 엉덩이를 살짝 들썩이긴 했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다.

브리즈번 선생님은 교실을 둘러보시며 다시 부르셨다. “조세프 있니?”

갈색 곱슬머리를 가진 그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선생님.” 그는 말했다. “하지만 조세프가 아니에요. 조이예요. 저스트 조이 존스⁴⁰⁾.”

브리즈번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알았어, 저스트 조이. 자, 여러분, 만나서 너무 기뻐요. 내 이름은 미세스 브리즈번이에요.”

선생님은 칠판 위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학급 친구가 두 명 더 있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선생님은 칠판 위에 내 이름을 적고 나서 나를 소개해 주셨다. “험프리는 우리 학급에서 함께 지내는 햄스터예요.”

모든 학생들이 나를 보려고 돌아보았다.

선생님은 오그 이름을 칠판 위에 적으며 말씀하셨다. “오그는 학급 개구리예요. 여러분은 올해 그들과 많이 친해질 수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은 주말에 험

39) Joseph

40) Just Joey Jones

프리를 집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거예요. 이견 오후에 좀 더 얘기하기로 해요.”

학생들 모두가 킬킬거리고 속삭이며 우리를 보기 위해 앉은 채로 돌아보았다.

“그들에게 교실을 잘못 찾아왔다고 말해요!” 나는 브리즈번 선생님께 말했다. 학생 몇 명은 나가라고 “찍, 찍, 찍” 소리치는 내 목소리를 듣고 케이지 가까이에 서 킬킬거렸다.

선생님은 내 말을 무시하셨다. “먼저, 우리 서로 더 친해져 볼까요? 각자 여름 상자를 꺼내 봐요.”

“여름 상자?” 나는 짹짹 거리며 말했다. “오그, 그게 뭐라고 생각해?”

여름은 햇살과 모닥불, 그리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재미로 가득 찬 계절이다. 여름은 상자 안에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그는 어항 안에서 미친 듯이 침범거리느라 내 말에 집중하지 않은 듯 보였다. 하지만 낯선 학생들은 이해하는 것 같았다. 그들은 가방 안에 손을 넣고 상자들 (온갖 종류의 상자들)을 꺼내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재들은 상자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던 걸까? 우리는 왜 몰랐지?” 오그에게 물어보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이전 학년 동안 나는 친구들과 똑같이 숙제를 하고, 그들과 함께 시험을 봤다. 리포트와 심지어 시까지 썼다. 브리즈번 선생님은 이런 일들을 몰랐지만, 나는 알고 있다. 그 점이 중요하다고 본다.

“좋아요, 여러분. 서로의 여름 경험을 공유해 봅시다.” 브리즈번 선생님은 계속 말씀하셨다. “우리가 서로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선생님은 서랍에서 상자 하나를 꺼내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내가 먼저 나의 여름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마침 나도 궁금해 하던 이야기였다. 여름 캠프에 가 있었을 때, 브리즈번 선생님은 뭔가를 하고 계셨지만 나는 아직도 알지 못했다.

“내 아들은 일본 도쿄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이번 여름에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남편과 함께 일본에 다녀왔어요.”

브리즈번 선생님의 얼굴에 띠는 미소는 그곳에서 멋진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느끼게 했다.

“일본 결혼식은 정말 아름다워요. 신랑과 신부는 일본 전통의상인 기모노를 입어요.” 선생님의 설명은 계속되었다.

선생님은 매우 화려한 옷을 입은 한 커플 사진 한 장을 들어 올리셨다. “이것은 내 아들 제이슨⁴¹⁾과 그의 아내 미키⁴²⁾예요.” 브리즈번 선생님은 아주 자랑스러워하며 말씀하셨다.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일본 화폐를 보여주셨다. 다음으로 도쿄에서 가지고 온 빨간 플라스틱 공을 꺼내셨다. 나는 그 공을 잘 볼 수 없었다.

“오그, 뭔가 안에 있어!” 더 잘 보기 위해 케이지 꼭대기로 날쌔게 올라갔다.

“평!” 하는 소리가 났다. 오그도 볼 수 없었던 것 같다.

“험프리가 질투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브리즈번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아키를 만나볼까요?”

선생님은 그 공을 책상 위에 올려놓으셨다. 공이 빙글빙글 돌아가며 색깔이 번쩍이자 학생들은 일제히 웃음을 터트렸다.

“춤추는 아키⁴³⁾!” 이상하고 시끄러운 소리가 울렸다. “로큰롤 룰스⁴⁴⁾!”

그 공의 불빛은 계속 깜빡거렸다. 요란한 음악이 흘러나오자 갑자기 원을 그리며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아키는 어디 있지?” 누군가가 소음 속에서 내 말을 듣고 있다는 듯이 오그에게 큰소리로 물었다. “아키 어디 있어?”

브리즈번 선생님은 그 공을 멈추게 했다.

“험프리에게 보여주세요.” 사이먼이 제안했다.

“그래요, 험프리에게 보여줘요.” 다른 학생들도 간절히 부탁했다.

그러자 브리즈번 선생님은 그 공을 우리 탁자로 가져와서 케이지 앞에 내려놓으셨다.

“험프리, 너무 놀라지 마라. 자 시작한다.” 선생님이 공위의 버튼을 누르자 그 모든 것은 다시 시작되었다. 번쩍이는 불빛과 고리 만들기, 빙글빙글 돌기, 그 노래, “춤추는 아키! 로큰롤 룰스!”

41) Jason

42) Miki

43) Rockin' Aki

44) Rock 'n' roll rules

나는 모두가 웃었던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되었다. 거칠고 무지개 색 (줄무늬) 털을 가진 작은 장난감 햄스터 아키는 햄스터 공 안에서 데굴데굴 구르고 있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공이 회전할 때마다 아키는 춤을 추듯이 똑바로 서 있었다.

조금도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정말 감동 받았다!

“춤추는 아키!” 나도 따라했다. 물론, 아무도 내 소리를 듣지 못했다. 나조차도 들을 수 없었으니까. “로큰롤 롤스!”

브리즈번 선생님이 아키의 스위치를 끄자 정말로 아쉬웠다.

“오늘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네요.” 선생님의 말씀이 들려왔다.

아이들 몇 명은 불평했고 나도 아쉬웠다.

브리즈번 선생님은 그 공을 책상으로 가지고 가셨다. “자, 여러분 내 얘기 잘 들었죠?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께 여름을 상징하는 것을 담은 상자를 준비해 달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다음으로 발표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죠?”

나는 내 자신을 변호해야 했다. “선생님, 저는 편지를 못 받았어요!”

“평, 평!” 오그도 내 편을 들어주었다.

학생들 몇몇이 손을 번쩍 들어 올렸고, 브리즈번 선생님은 사이먼을 부르셨다. “먼저 이름을 얘기 하세요.”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사이먼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상자를 열고 아주 익숙한 장소의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이먼 모르겐슈테른⁴⁵⁾이에요. 여기는 내가 갔던 해피 할로우 캠프입니다. 그들은 하울러 게임을 했고 나는 블루 제이였어요. 그리고 나는 크게 트림을 했고 그리고. . .”

브리즈번 선생님은 사이먼의 말을 멈추게 하셨다. “슬로우 다운 사이먼.”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천천히 해요.”

사이먼은 천천히 말하려고 노력하며 해피 할로우에서 했던 모험들을 이야기했다. 나도 거기에서 모험을 했다. 하지만 나는 상자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아무도 나에게 상자를 가져오라고 말하지 않았으니까.

차례로 다른 학생들이 자신의 여름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로지는 다른 캠프

45) Simon Morgenstern

에 갔었다. 그녀는 휠체어 경주에서 받은 메달과 결승선을 통과하는 사진 한 장을 들어올렸다. 맵소사, 로지가 굴러갈 수 있다니!

해리는 블래스터에서 살아남았다고 적힌 티셔츠를 보여주었고, 굉장히 빠른 롤리코스터를 탔던 얘기를 해주었다. 정말 재미있었다.

스몰 폴은 컴퓨터 수업을 받았었다. 그리고 “코드”라고 하는 어떤 페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하지만 횡설수설 알아듣기 어려웠다.

톨 폴은 산으로 가족캠프를 갔다가 솔방울을 가져왔다.

홀리는 할아버지의 농장에서 그녀가 직접 키웠던 옥수수를 보여주었다.

“저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많이 도와드렸어요.” 홀리의 설명이 이어졌다. “닭들에게 모이를 주었고, 정원의 잡초도 뽑고, 채소도 따고, 개들을 돌봐 주었어요.”

“어머나, 홀리, 네가 큰 도움이 되었겠구나.” 브리즈번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다.

“그리고 저는 트랙터를 탔고, 말도 탔고, 달걀도 모았어요.” 홀리는 계속 말했다.

“잘했구나, 홀리.”

브리즈번 선생님은 다급하게 손을 흔드는 한 소년의 이름을 부르셨다.

“토마스 티 트루⁴⁶⁾예요.” 그는 큰 상자를 열면서 말했다. “저는 할아버지와 낚시하러 가서 거대한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았어요. 저보다도 더 컸어요!”

그의 말에 나는 감동을 받았다. 다른 학생들도 소곤거리는 것을 보고 나와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생각했다.

“여러분, 조용히 해요.” 브리즈번 선생님은 그들의 주의를 집중시키셨다. “계속 해라, 토마스”

“그 물고기는 너무 커서 배를 채우고도 남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할아버지와 저는 해안까지 헤엄치며 배를 끌어당겨야 했어요. 맵소사, 여름 내내 우리는 물고기를 먹어야 했어요!” 토마스의 눈이 빛났다.

“그 사진을 가지고 있어?” 스몰 폴이 물었다.

“아니. 물고기와 씨름하느라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어. 대신에 할아버지가 제

46) Thomas T. True

일 좋아하시는 플라이낚시⁴⁷⁾를 가져왔어.” 토마스는 상자에 손을 넣으면서 말했다.

“평, 평!” 오그는 플라이낚시라는 단어를 듣고 흥분해서 필쩍 뛰었다. 개구리는 파리와 같은 곤충은 맛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토마스가 상자에서 꺼낸 것은 곤충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스꽝스럽고 깃털처럼 생긴 물건이었다.

“할아버지는 플라이낚시에 가짜미끼를 동여매세요. 물고기는 그것을 진짜 파리라고 생각해요.” 토마스는 설명했다.

오그가 가짜 파리라는 것을 알고 너무 실망하지 않길 바랐다.

“그 커다란 물고기에 관해서” 브리즈번 선생님이 질문을 던지셨다. “물고기가 너보다 컸다면 어떻게 그것을 배 안에 넣을 수 있었니?”

토마스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선생님. 정말 어려웠어요.”

브리즈번 선생님은 토마스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하고 켈시를 부르셨다.

마음만 먹으면 햄스터와 개구리쯤은 간단히 집어삼킬 수 있는 거대한 물고기를 생각하니 나는 가슴이 떨려왔다. 그때 켈시가 말했다. “부러진 팔.”

부러진 팔이란 말은 너무 고통스럽게 들려서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학기 마지막 날이었어요. 방학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좋아서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집까지 달려갔어요. 그런데 현관에 들어서면서 그만 넘어졌어요. 그때 팔이 부러졌어요.” 켈시는 한숨을 쉬었다. “거의 여름 내내 깁스를 해야 했어요. 수영하러 가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고요!”

켈시는 상자를 열고 삼각건과 부러진 팔을 찍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그 진 여름에는 다리가 부러졌어요!” 켈시는 덧붙여 설명했다.

“켈시, 많이 아팠겠구나.” 브리즈번 선생님은 안쓰러운 듯이 말씀하셨다.

나도 안타깝게 생각했다.

“누가 남았죠?” 브리즈번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조세프? 아니, 조이?”

조이는 일어섰지만 별로 이야기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지 않았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말했다. “그냥 집에 있었어요.”

“집에서 보내는 방학도 즐거운 일이 될 수 있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47) fly: 파리, 해충, 플라이낚시 등의 뜻이 있다.

조이는 어깨를 으쓱했다. “좋았어요. 저는 집에서 키우는 개, 스키피⁴⁸⁾와 함께 자주 놀았어요.” 조이는 상자에서 플라스틱 원반을 꺼냈다. “스키피는 이 원반 잡기를 좋아해요. 높이 뛰어 올라서 이빨로 이 원반을 잡을 수 있어요. 한번 물면 절대로 놓치는 법이 없어요. 보세요, 여기 가장자리 전체에 이빨 자국이 있어요.”

나는 조이를 좋아하게 되었지만, 스키피의 점프와 이빨에 대해 들었을 때 확신이 없어졌다. 내 경험상 개들은 햄스터와 작고 털이 난 다른 짐승들에게 다정하지 않았다.

브리즈번 선생님은 학급 명부를 훑어보셨다. “그리고 누가 남았을까? 피비 플랫⁴⁹⁾?”

피비라고 불린 소녀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냥 자리에 앉아서 책상을 쳐다보았다.

“깜빡했어요.” 그녀는 말했다.

“너의 말은 상자를 집에 두고 왔다는 거니?” 브리즈번 선생님이 물으셨다.

피비는 머리를 가로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상자 만드는 것을 잊었어요.” 그 소녀는 처량해 보였다.

“음, 어쨌든 네가 했던 일을 우리에게 얘기하면 좋겠구나.” 브리즈번 선생님은 피비에게 화를 내지 않으셨다. 정말 다행이었다.

그 소녀는 천천히 일어섰다. “저도 집에서 방학을 보냈어요.” 그녀가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우리 집에는 개가 없어요.”

“네가 했던 신나는 일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니?” 브리즈번 선생님이 물으셨다.

피비는 잠시 생각하고 말을 이었다. “할머니와 함께 게임을 했어요.”

브리즈번 선생님은 피비가 좋아하는 게임이 어떤 종류인지 궁금해 하시며 물어보셨다. 하지만 나는 피비가 여름 상자를 가져오지 않아서 당황해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나도 당황스러웠다.

“피비, 얘기 잘 들었어. 이제 앉아도 좋아요.” 브리즈번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휴식시간이 되었어요. 모두 상자를 집어넣도록 해요. 하지만 밖으로 나가기 전

48) Skipper

49) Phoebe Pratt

에 로지를 도와 줄 친구가 필요해요.”

1초도 되지 않아 홀리라는 이름의 소녀가 손을 흔들며 큰소리로 말했다. “저요! 저요! 제발요, 제가 할게요!”

“홀리, 아주 좋아.” 브리즈번 선생님의 목소리가 밝게 들려왔다. “너에게 몇 가지 알려줄게. 로지와 함께 잠깐 동안 남아있으렴.”

시끄러운 종소리가 다시 울렸고, 홀리와 롤링 로지⁵⁰⁾를 제외한 모든 학생들은 교실을 나갔다.

브리즈번 선생님은 홀리에게 휠체어가 지나갈 곳의 바닥이 안전한지 확인하고, 휠체어가 지나가기 힘든 곳이 있다면 도움을 주고, 비상시에 로지가 안전하게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줄 것을 당부하셨다.

“잘할 수 있어요.” 홀리가 말했다.

“그럴 것 같구나.” 브리즈번 선생님은 롤링 로지에게 눈을 돌리셨다. “네가 도움이 필요할 때 홀리에게 알려주렴.”

“걱정하지 마세요.” 로지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저는 별로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브리즈번 선생님도 따라 웃으셨다. “이제 운동장으로 나가도 좋아.”

선생님은 홀리가 로지의 휠체어가 나갈 수 있게 문을 활짝 열고 복도로 나가서 다시 문을 닫는 모습을 지켜보셨다.

그리고 선생님은 오그와 나에게 눈길을 돌리셨다. “일 년이란 시간은 이 학생들을 알기에 충분할 거야.”

이 낯선 학생들과 계속 함께 지낼 거라고? 일 년 동안이나?

선생님은 덧붙여 말씀하셨다. “지금까지는 좋아.”

학기 첫날 오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좋은 일이 생기지지 않았다. 나는 26반 교실에 있던 옛 친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며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다. 그들이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하고 있었다.

50) Rolling-Rosie

험프리의 교칙: 만일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뭔가를 가져오라고 하시면,
잊지 않도록 노력하라. 가끔 선생님은 전달사항을 잊을 때가 있
다. 하지만 그에 대한 책임으로 여러분은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3. 규칙들

평소에 나는 꿀 같은 아침잠을 즐긴다. 하지만 그 날 아침은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나서, 낮선 학생들이 휴식 시간에 밖으로 나간 후에야 낮잠을 잘 시간이 생겼다. 하지만 낮잠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학생들이 돌아왔을 때, 브리즈번 선생님의 말소리를 듣고 어떤 걱정거리가 생겼다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이었다.

“해리가 돌아오지 않았구나.”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운동장에서 해리를 본 사람 없니?”

“제가 봤어요.” 사이먼이 말했다. “우리는 농구를 했어요.”

“그 애에게 무슨 일이 생겼니?” 선생님은 걱정하는 목소리로 물으셨다.

사이먼은 어깨를 으쓱했다. “몰라요.”

브리즈번 선생님은 눈살을 찌푸리셨다. “해리를 찾으러 누가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제가 갈게요!” 홀리가 손을 흔들며 말했다. “저를 보내주세요.”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라이트 선생님이 해리를 잡아끌며 들어오셨다.

“브리즈번 선생님, 해리는 이 반의 학생이라 생각되는데요.” 라이트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운동장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더라고요.”

어슬렁거린다? 처음 듣는 단어였다. 케이지 안에 사전이 있으면 좋을 텐데. 라이트 선생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종이 울린 후에 빈둥거리는 학생들이 있어서 안 됩니다.”

빈둥거린다? 그것도 우스운 단어였다.

“작년에 이 학생의 담임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했어요.” 라이트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라이트 선생님의 목에 걸린 은색 호루라기를 보는 순간 그 소리가 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렇게 하지는 못했군요.”

“해리, 왜 늦었니?” 브리즈번 선생님이 해리에게 물으셨다. “종소리를 들었니?”

해리는 머리를 끄덕였다.

“다른 학생들이 안으로 들어오려고 줄 서는 것을 보았니?” 선생님은 계속 질문을 하셨다.

해리는 또 다시 머리를 끄덕였다. “네, 그래서 저도 줄을 서려던 순간 제 발

밑에서 근사한 개미집을 발견했어요. 하마터면 그걸 밟을 뻔 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컸어요!”

“그래서 시간 가는 걸 잊었니?” 브리즈번 선생님이 물으셨다.

“네.” 해리가 대답했다.

라이트 선생님은 머리를 가로저었다. “빈둥거리다니!”

“잘했어, 자리에 앉아라.” 브리즈번 선생님이 해리에게 말씀하셨다. “다음번에는 줄을 잘 서도록 해.”

“학교에는 규칙이 있어요, 브리즈번 선생님.” 라이트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학생들이 규칙을 따르길 바랍니다.”

브리즈번 선생님은 라이트 선생님이 나가기를 기다리셨다. 그녀가 나간 후 브리즈번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학급 규칙들을 점검해야 할 때가 된 것 같군요.”

적당한 시기라고 나도 생각했다.

브리즈번 선생님이 그날 아침 일찍 게시판에 게시했던 규칙들에 대해서 그리 놀랄만한 것은 없었다.

1. 지시를 받는 대로 즉시 따르기.
2. 말하기 전에는 손을 들고 기다리기.
3. 선생님이 수업하는 동안 자리에 앉기.
4.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기.
5. 실내에서는 뛰지 말고 목소리를 낮추기.
6. 대접받고 싶은 방식으로 남을 대하기.

규칙을 읽고 과연 그동안 난 얼마나 잘 지켰는지 궁금해졌다. 나는 선생님의 지시사항들을 따르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아무도 나에게 지시를 하지 않는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하지? 예를 들어, 아무도 나에게 여름 상자를 가져오라고 말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전히 그 규칙들은 나에게 생각할 거리를 남겼다.

- 손을 들어 올리는 규칙을 보니 레이즈 유어 핸드 하이디⁵¹⁾가 그리웠다. 작

년에 그녀는 때때로 그 규칙을 잊어버리곤 했지만 나는 그녀가 좋았다.

- 나는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 사실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생님이 수업하시는 동안 케이지 속에 가만히 있으려고 항상 노력한다.
- 나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개나 고양이 그리고 다른 커다란 동물들도 나와 똑같이 하기를 바란다.
- 나는 학교 안에서 걷는 것을 기억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때때로 (내 햄스터 공 안에서) 내가 굴러다닌다는 것은 인정한다.
- 나는 항상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내가 소리를 지를 때조차도 목소리가 작게 나오기 때문이다.
- 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대접 받고 싶은 방식으로 대우한다. 적어도 마음은 그렇게 먹는다.

그 다음에 브리즈번 선생님은 규칙들을 위반한 결과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것은 내 수업을 꿈틀꿈틀 움직이게 만들었다. 경고는 말할 것도 없이 안 좋았고, 제한 시간도 그러했다. 그러나 가정 편지, 이크! 그것은 사실 내 집이 26반 교실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끔찍하다고 생각했다. 그 다음은 가정에 전화를 걸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전화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칙을 한 번 더 어긴 학생은 교장실로 보내질 것이다.

나는 모랄레스 교장 선생님을 무척 좋아한다. 하지만 규칙을 어긴 일로 교장 선생님을 만나고 싶지는 않다. 교장 선생님은 나에게 실망하실 것이다.

내가 규칙을 어기고 나서 교장실에 앉아 있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을 때, 갑자기 브리즈번 선생님이 “26반 교실에 또 다른 규칙이 있어요. 모든 학생들은 험프리와 오그에게 깊은 존경심을 갖고 대하도록 해요.”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귀를 쫑긋 세웠다.

“오그, 저 소리 들었니?” 짹짹하며 말했다. “선생님은 우리 이야기를 하고 계시!”

“평, 평!” 오그는 어항 속에서 침병거렸다. 낮선 학생들은 그 모습을 보고 웃었다.

51) Raise-Your-Hand-Heidi

브리즈번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주말동안 교대로 나를 그들의 집으로 데려갈 수 있다고 하시며, 우선 나를 돌보는 법을 익혀야 한다고 설명하셨다. 그들은 오그가 주말마다 교실에 있는 동안 오그를 돌봐주는 법도 배워야 했다. 오그에게는 나만큼 먹이를 줄 필요가 없었지만.

그 다음에 선생님은 새로운 학생들을 케이지 주위로 불러 모아서 장갑을 낀 채로 케이지 안을 청소하는 법을 보여주셨다.

“누가 험프리를 들고 있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놀랄 것도 없이, 아주 많은 학생들이 손을 들었다.

브리즈번 선생님은 천천히 부드럽게 나를 들어 올리셨다.

“절대로 케이지 속으로 손가락을 넣지 말아요.”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말씀하셨다. “험프리가 너희들에게 익숙해질 수 있게 시간을 주자.”

“험프리가 물까요?” 피비가 긴장하며 질문을 했다.

“절대 아냐!” 내가 짹짹하며 말했다.

“험프리는 아직까지 아무도 물지 않았어. 하지만 손가락으로 그의 얼굴을 찌른다면, 물수도 있단다.” 브리즈번 선생님이 자상하게 설명하셨다.

“전에 햄스터를 키웠을 때 손가락을 물렸어요.” 조이가 말했다. “엄마는 햄스터가 내 손가락을 당근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래요.”

브리즈번 선생님은 머리를 끄덕이셨다. “햄스터를 다루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면, 네가 먹은 음식 냄새를 맡고 너를 음식으로 생각할 거야.”

선생님의 말씀에 동의하지만, 많은 인간들은 내가 먹고 싶어 하는 음식 냄새를 풍기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당근과 손가락을 구별할 만큼 충분히 똑똑하다!

“켈시, 험프리를 네 손 위에 한 번 올려놓아볼래?”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켈시는 놀란 것처럼 보였다.

확실히 나도 놀란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켈시는 착한 소녀인 것 같았지만 조금 긴장한 듯 보였다.

“손으로 험프리를 들어봐, 이렇게.” 브리즈번 선생님은 쪽 뺀 켈시의 손 위로 나를 넘겨주셨다. “험프리가 편안함을 느끼도록 해. 다른 손으로 험프리의 머리 위로 작은 지붕처럼 감싸줘. 좋아할 거야.”

사실, 나는 그렇게 해주는 것을 좋아한다.

켈시는 나를 손에 쥐고는 흥분해서 그런지 실제로 그녀의 손은 약간 떨고 있었다. 갑자기 그녀의 부러진 팔과 다리가 떠올라서 나도 부러진 햄스터가 되지 않기를 바랐다.

“걱정하지 마, 험프리. 내가 널 조심히 다룰게.” 켈시는 속삭였다.

나는 안심이 되었고 그녀도 긴장을 풀었다. 떨림이 멈추었다.

“내가 쓰다듬어도 될까?” 사이먼이 물었다.

“부드럽게” 브리즈번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사이먼은 손가락으로 내 등을 어루만졌다. 그것은 내 기분을 황홀하게 했다.

그 사이 브리즈번 선생님은 케이지를 정성껏 청소하셨다. 선생님은 모든 것, 심지어 내 물병을 끄집어내어 비눗물이 있는 큰 양동이에 집어넣으셨다. 다행히도, 내 거울은 케이지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서 (그 뒤에 숨겨둔 노트와 함께) 그대로 놓여 있었다.

선생님은 모든 것을 깨끗이 닦으셨다.

그리고 케이지에서 부드럽고 얇은 이불도 꺼내셨다.

“이건 뭐예요?” 구석진 곳을 가리키면서 홀리가 물었다.

“그것은 험프리의 화장실이야.” 브리즈번 선생님은 그 질문에 대답해 주셨다.
“험프리의 똥이야.”

“똥?” 토마스의 눈은 놀라서 휘둥그레졌다.

브리즈번 선생님은 머리를 끄덕이셨다.

“으으으 똥!” 토마스는 말했다.

누군가가 킁킁거렸다. 그러자 모든 아이들이 외치기 시작했다, “으으으 똥! 으으으 똥!” 아주 무례하게.

브리즈번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씀하셨다. “자, 이것은 지극히 정상이에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했다. “근데 나는 어디에 가 있어야 하는 거야?”

“험프리를 들어 봐도 될까요?” 로지가 물었다. “저는 기니피그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알아요.”

브리즈번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나를 켈시의 손바닥에서 로지에게 옮겨 주셨다.

로지의 손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다음으로 선생님은 케이지의 바닥과 옆면을 아주 깨끗하게 닦아주셨다.

선생님은 헬플 폴리⁵²⁾와 저스트 조이에게 새 이불을 케이지에 다시 놓으라고 시키셨다. 피비에게는 물병을 제자리에 두라고 시키셨고, 폴 에프에게는 먹이통에 신선한 먹이를 채우게 하셨다. 맛있어.

폴 지는 내 바퀴를 제자리로 옮기고 나서 제대로 돌아가는지 확인했다. 그 동안 해리와 토마스는 다른 것들을 제자리에 두었다.

“이제 훨씬 근사해졌어. 냄새도 좋아, 험프리.” 브리즈번 선생님은 나를 로지의 손에서 케이지 속으로 부드럽게 옮기시며 말씀하셨다. “확인해 봐.”

나는 윤이 나고 깨끗한 바퀴 위에서 짱충짱충 뛰었다. 있는 힘을 다해.

“험프리가 달리는 것 좀 봐!” 토마스 티 트루가 소리쳤다. “분명히 시속 백만 마일을 달릴 수 있을 거야!”

“험프리는 시속 백만 마일을 달릴 수 없어. 768마일로 음속 장벽을 깰 수는 있어. 그리고 난 음속 폭음을 듣지 못했어.” 스몰 폴이 말했다.

그의 말에 감동을 받았다. 불가능한 소리지만 나는 정말 시속 백만 마일을 달리고 있는 것 같았다.

“내 생각에 토마스는 약간 과장한 것 같구나.” 브리즈번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토마스는 많이 과장했어요.” 스몰 폴이 말했다.

“자, 여러분, 말다툼 그만 하고” 브리즈번 선생님이 그들을 말리셨다. “각자 자리로 돌아가요.”

나도 바퀴에서 내려와 예쁜 새 이불에 편히 누웠다.

피비가 손을 들자 브리즈번 선생님은 그녀를 부르셨다. “모든 사람이 험프리를 집으로 데려갈 수 있어요?”

“그래, 한두 번 정도는” 선생님의 말씀에 피비의 얼굴이 환해졌다.

“당장 차례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걱정할 것 없어.” 선생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부모님께서 허락해주시면, 곧 데려갈 수 있을 거야. 가족들이 주말에 험프리와 놀아줄 시간이 항상 있는 건 아니니까.”

피비의 미소가 사라졌다. 오직 나만 그것을 알아차렸다.

52) Helpful-Holly

브리즈번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누가 나를 집으로 데려가고 싶은지 물어보셨을 때 모두가 한 손을 들어 올리는 순간 나는 밝게 웃었다.

이 낯선 인간들은 내가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이상한 것 같진 않았다.

~ * * * * ~

나중에, 브리즈번 선생님은 교실의 책상 자리를 바꾸셨다. 먼저, 선생님은 모두에게 소지품들을 교실 양쪽 끝으로 가져가도록 지시하셨다. 그러고는 각각 학생들이 앉을 곳을 알려주셨다. 약간의 신음소리가 들렸지만, 선생님이 수업을 다시 시작하고 게시판에 몇 가지 메모를 할 때까지 대부분의 아이들은 불평 없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갑자기, 누군가 한 손을 번쩍 들어올렸다. “선생님?”

브리즈번 선생님은 소리가 들리는 쪽을 쳐다보셨다. “미세스 브리즈번이라고 불러줄래?”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켈시, 무슨 일이니?”

“저기 남학생 때문에 칠판이 안보여요.” 켈시는 톨 폴을 가리켰는데, 그는 그녀 바로 정면에 앉아 있었다.

폴 지가 그녀의 시야를 방해하고 있어서 보기가 힘들 것 같았다.

“내 실수구나.”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두 명의 폴을 혼동했어. 폴 그린, 폴 플레처와 자리를 바꿔줄래?”

“네” 톨 폴은 소지품들을 챙기고 교실 한쪽으로 이동했다.

스몰 폴도 노트와 가방을 들고 교실 앞으로 이동했다. 스몰 폴은 누구의 시야도 가리지 않을 것이다.

중간 지점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곤장 걸어갔다.

“조심해!” 그들이 부딪칠 것 같아서 짹짹 소리쳤다.

두 명의 폴을 제외하고 모두가 웃었다. 그들은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피했고, 이번에도 나는 그들이 서로 눈을 맞추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켈시, 이제는 잘 보이니?” 선생님이 물어보셨다.

“잘 보여요.” 켈시가 대답했다.

선생님은 수업을 계속 하셨지만 집중이 잘 되지 않았다.

내 눈은 계속 두 폴에게 향해 있었다.

~ * * * * ~

그 날 수업종료를 알리는 종이 울렸을 때 나는 긴장이 풀렸다. 선생님과 오고, 그리고 나만 교실에 남았다. 후유! 피곤한 하루였다. 다른 햄스터들처럼 나도 밤보다 낮에 잠을 더 자는 게 보통이지만, 많은 일이 일어나면서 잠을 충분히 자지 못했다. 하지만 오늘은 잠을 잘 시간이 없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혼자서 노력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익숙하고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만 해도 나는 생각에 잠겨 있었다.

“살아서 돌아왔어요!” 그 목소리가 말했다.

“축하해요.” 브리즈번 선생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맥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오자 나는 케이지 꼭대기 옆 나뭇가지로 날쌔게 올라갔다.

맥 선생님은 아름다웠다. 맥 선생님은 상냥하고 훌륭했다. 맥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누군가 나에게 진정한 집을 만들어주길 바라면서 지루하고 낯은 팻 오 라 마⁵³⁾에서 아직까지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맥 선생님이 그곳에서 나를 발견하고 26반 교실로 데려 오셨다. 그리고는 브라질로 가버려서 나는 브리즈번 선생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했다. 솔직히 처음에는 브리즈번 선생님을 잘 알지 못했지만, 알고 보니 훌륭한 선생님이었다.

맥 선생님이 돌아오셨다. 맥 선생님은 하루 종일 어디에 계셨던 걸까?

선생님은 브리즈번 선생님 책상 옆 의자에 깊숙이 앉았다. “배워야 할 게 아주 많아요.” 맥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곧 다 배울 수 있을 거예요.” 브리즈번 선생님이 맥 선생님을 안심시켰다. “다만 1학년은 확실히 쉽지 않아요.”

맥 선생님은 바로 거기에 계셨던 것이었다. 맥 선생님이 롱펠로우 스쿨에서 1학년을 가르치고 계셨다니!

53) Pet-O-Rama

“재미있어요. 그런데 그 애들에게 가르칠 게 너무 많아요.” 맥 선생님은 계속 말씀하셨다. “험프리와 오그가 도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맥 선생님은 우리 쪽을 힐끗 보고 손을 흔들리며 인사말을 건넸다. “안녕, 애들아.”

“반가워요, 맥 선생님! 선생님은 1학년을 잘 가르치실 거예요. 제 말 기억하세요!” 오그가 어항 안에서 시끄럽게 침병거리는 동안 나는 진심으로 맥 선생님을 응원해 드렸다.

“첫날은 어땠어요? 맥 선생님이 브리즈번 선생님에게 질문하셨다.

“내 생각에 즐거운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브리즈번 선생님이 대답하셨다. “커피 한잔 할래요?”

“좋아요!” 맥 선생님이 대답하셨다.

브리즈번 선생님이 소지품들을 챙기시는 동안, 맥 선생님은 오그와 나를 보러 오셨다. 선생님께서 케이지 가까이 몸을 굽히시자 그녀의 환하고 행복한 미소와 반짝이는 눈이 내 눈과 마주쳤다. 선생님에게서 사과 향기가 났다.

“아마도 가끔 너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구나.” 선생님은 속삭이며 말씀하셨다.

“저도 좋아요.” 나도 속삭였다. 하지만 불행히도 내 대답은 선생님의 귀에 그저 나지막이 짹짹거리는 소리로 들렸을 거라는 것을 나는 안다.

~ * * * * ~

오그와 나 단둘이 남게 되자 수업 첫날에 벌어진 이상한 사건들을 생각해 보았다.

“토마스는 과장이 심한 것 같아.” 내 이웃에게 말을 걸었다. “물고기 이야기는 허무맹랑하게 들렸어.”

“평!” 오그가 대답했다.

“피비는 너무 잘 까먹어. 하지만 홀리는 아주 도움이 되고 있어.” 나는 덧붙여 말했다.

“평!” 또 다시 그가 동의했다.

“해리는 왜 서두르지 않는지 정말 궁금해.” 이번엔 좀 더 생각을 하고 나서 말

했다.

“평, 평!” 내 친구가 대답했다.

“하지만 오늘 만난 낯선 학생들을 걱정할 시간이 없어.” 계속해서 말을 했다.
“왜냐하면 26반 교실에 있었던 내 진정한 친구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걱정하느라 바쁘거든, 작년 친구들 말이야.”

그리고 잠시 침묵했다. 나는 마음속 깊이 스며드는 느낌을 꺼내어 말했다. “다시 그들을 볼 수 있을까?”

험프리의 교칙: 대접받고 싶은 방식으로 햄스터들을 대우하라. 이것은 햄스터들에게 친구들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말해 주는 것도 포함된다.

4. 학교의 밤

교실이 어두워지자 내 생각은 더 우울해졌다. 옛 친구들이 어디로 가 버렸는지 알고 싶었고, 그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유용한 햄스터도 없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자랑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작년에 모든 학급 친구들은 내 도움을 받았다. 언제나 그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지만.

“얏아서 걱정해 봐야 소용없어.” 갑자기 나는 큰소리로 말했다. “뭔가 해야겠어!”

“평!” 오그가 맞장구를 쳤다.

바로 그때, 교실이 밝은 빛으로 가득 찼다.

“걱정 마, 알도가 왔어!”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도!” 나는 청소 수레를 끌고 교실 안으로 들어오는 알도를 보고 너무 기뻐서 소리쳤다. 알도는 야간 관리인이면서 멋진 내 친구이기도 하다. 그를 여름 캠프에서 만났지만, 지난 몇 주 동안 보지 못했다.

그는 책상으로 와서 나를 내려다보았다.

“정말 반갑다, 험프리.” 알도는 호주머니에 손을 넣으며 말했다. “이거, 해바라기 씨 좀 먹어봐.”

냠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면 항상 행복하다.

알도는 오그에게 개구리용 음식 스틱병⁵⁴⁾을 꺼내어 어항 속에 조금 뿌려주었다. “여기 있어, 오그. 건강하게 맘껏 먹어!”

오그는 이리저리 헤엄쳐 다니며 커다란 입으로 작은 스틱들을 삼켰다. 오그가 맛있는 해바라기 씨를 먹을 수 없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오그는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우리 모두를 위해 학교로 돌아왔어.” 알도가 말했다. “밤에 일하러 오고, 낮에는 나를 위해 대학에 다녀.”

알도는 대학에 다니고 있었다. 언젠가 선생님이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다.

“올해 난 몇 개의 좋은 강의를 듣고 있어.” 알도는 계속 말했다. “생물학도 포함돼. 그 과목에서 너희들처럼 생물에 관해 배우는 중이야.”

54) Froggy Food Sticks

나는 생물학이 무척 흥미로운 과목이라 생각하며 해바라기 씨를 꺾꺾 씹었다.

“이봐, 방과 후에 리치를 만났어. 내 생각에 그는 새로운 미스 베커⁵⁵⁾ 선생님에 대해 조금 걱정하는 것 같아.” 순간 나는 씹던 것을 멈추었다. 리핏 잇 플리즈 리치 리날디⁵⁶⁾는 알도의 조카이자 작년에 26반 학생이었다.

“미스 베커? 그녀는 누굴까? 리치를 어떻게 찾지?” 짹짹하며 물어보았다. “그녀는 왜 걱정하는데?”

알도는 내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리치에게 너의 안부를 전할게.” 그는 대답했다.

갑자기 입맛이 떨어져버렸다. 리치에게 걱정거리가 있었다. 리치는 이제 26반 교실에 없지만 여전히 내 친구였다.

알도는 26반 교실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 일을 완벽하게 해냈다. 나는 그가 언젠가는 훌륭한 선생님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날이 오면, 26반 교실은 지금처럼 깨끗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알도가 브리즈번 선생님의 책상 위에 놓인 빨간 햄스터 공을 볼 때까지 그를 지켜보면서 내 걱정을 잊고 있었다.

“이봐, 이건 누구야? 너를 대신하는 거야, 험프리?” 알도는 웃었지만 나는 그 말이 전혀 우습지 않았다.

알도는 스위치를 켜고 고함을 질렀다. 갑자기 공이 회전하고 원을 그리며 번쩍 거렸고 음악이 울려 퍼졌기 때문이었다. “춤추는 아키! 로큰롤 룰스!”

알도는 유심히 보면서 아키처럼 살짝 춤을 추었다.

잠시 후 그는 스위치를 껐다.

“희한하네.” 그는 말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 아무도 널 대신할 수 없어, 험프리.”

“고마워.” 하며 내 마음을 전했다.

“리치는 이런 것들을 좋아할 거야.” 알도가 말했다.

나는 그가 리치를 떠올리게 하지 않길 바랐다. 옛 친구에게 걱정거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았다.

55) Miss Becker

56) Repeat-It-Please-Richie Rinaldi

알도가 떠나고 창밖으로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그의 차를 바라본 후에, 나는 학교를 살펴보고 리치와 옛 친구들이 어디로 갔는지를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오그, 미스 베커의 교실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오그에게 물어보았다.

“평, 평!” 오그는 항상 자신감을 준다. 적어도 대부분의 시간동안.

물론, 롱펠로우 스쿨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아마도 하룻밤 사이에 학교 전체를 찾아볼 수는 없을 것이다. 적어도 시도는 해볼 생각이다.

나는 케이지 문을 밀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지 않아서 문은 활짝 열렸다. 인간들에게 그 문은 항상 단단히 잠겨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나는 약간의 가벼운 압력으로 문을 열고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밖으로 나와서 탁자의 다리를 휘어잡고 미끄러져 내려갔다. 착륙 후에 몸을 부르르 떨고는 문까지 날쌔게 달려갔다.

“오그, 돌아와서 자세히 알려줄게!” 친구에게 말했다. “행운을 빌어줘!”

“평, 평!” 그는 대답했다.

나는 몸을 쭉그리고 문과 바닥 사이의 좁은 공간을 가뿐히 통과했다.

벽에 유령 같은 그림자를 드리운 약간의 희미한 빛을 제외하고 복도는 어두웠다. 나는 약간 떨렸지만, 그 어떤 것도 내 결심을 막을 수는 없었다.

나는 왼쪽으로 돌아서 다음 출입구에 도달할 때까지 짹짹 달렸다. 그리고 위를 올려다보고 문 위에 28반 교실이라는 글자를 보았다. 27반 교실은 어떻게 되었는지 몰랐지만, 그 생각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나서 나는 28반 교실 문 아래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몸을 일으켜서 보니, 28반 교실은 26반 교실과 거의 흡사하다는 것 (모든 것이 거꾸로 되어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에 놀랐다! 뭐랄까, 정확히 모든 것은 아니었다. 칠판과 창문들은 26반 교실과 같은 쪽에 있었지만, 외투 보관실과 선생님의 책상, 시계는 다른 장소에 있었다.

“이크!”

나는 책상들 사이를 질주했다. 하지만 알도가 방금 청소를 했기 때문에, 그 교실의 학생들이 누구인지 나에게 알려줄 단서가 별로 없었다. 나는 칠판을 보기

위해 멈춰 섰다. 다행히도 창문을 통해 들어온 달빛이 바로 직각을 비추고 있어서 칠판 위에 미스터 마이클스⁵⁷⁾라고 쓰인 글자를 볼 수 있었다.

결국 이 곳은 베커 선생님의 교실이 아니었다.

나는 잘못 찾아 온 교실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문 아래로 빠져나와 왼쪽에 있는 옆 교실, 30반 교실로 불빛이 어두운 복도를 달려갔다.

하는 데까지 해보자, 굳게 마음을 먹으며 문 아래로 들어갔다.

신기하게도 28반 보다 30반 교실이 상당히 우리 교실과 비슷했다. 외투 보관 실과 선생님의 책상, 시계의 위치가 26반 교실과 똑같았다.

그러나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이 교실의 탁자들은 원을 지어 놓여 있었다. 브리즈번 선생님은 탁자를 일렬로 배열해 두셨다.

한 쪽 벽을 따라 천장까지 쪽 뺨은 커다란 나무가 있었다. 그 나무는 종이로 만들어져 있었고 선명한 색깔의 종이 잎들 각각에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다.

어두운 교실에서 이름들을 읽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엠마⁵⁸⁾와 마가렛⁵⁹⁾, 크리스토퍼⁶⁰⁾, 벤⁶¹⁾이라고 쓰인 글자가 보였다. 그 글자들은 내가 아는 이름들이 아니었기에 아마도 방을 잘못 찾은 것 같았다.

나는 서둘러 문 아래로 빠져나와 복도를 가로질러 갔다. 29반 교실로.

이 교실은 블라인드가 뽁뽁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매우 어두웠다. 어슴푸레한 형태의 책상과 의자조차도 거의 분간할 수 없었다. 위를 올려다보았을 때, 나는 “깹!” 하고 소리 질렀다. 거기에는 천정에 매달린 크고 둥근 물체들이 있었는데, 섬뜩한 빛을 발산하고 있었다. 나는 그 물체들이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의 모형들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별별 떨고 있었다. 고맙게도 브리즈번 선생님은 작년에 행성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난 이미 알고 있었다.

나는 친구들이 이 교실로 이동했는지 알 수 있는 단서들을 찾기 시작했다. 교실 앞 선생님 책상으로 달려갔다. 위를 올려다보니 책상 위에 표지판이 놓여 있었다. 미세스 머치⁶²⁾라고 적혀 있었다.

57) Mr. Michaels

58) Emma

59) Margaret

60) Christopher

61) Ben

62) Mrs. Murch

또 잘못 들어왔어!

옆 교실로 가려고 29반 교실을 서둘러 나왔다. 27반 교실이 있었다!

심호흡을 하고 문 아래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이 교실은 조금 더 밝았다. 블라인드가 열려 있어서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게시판을 힐끗 바라 본 나는 또 교실을 잘못 들어왔다는 것을 알았다.

미스 루미스⁶³⁾라고 큰 글씨로 쓰여 있었다.

선생님 이름 옆에 학생들 명단이 있었는데 그 중 몇 개의 이름들은 매우 익숙했다.

미란다, 가스, 세스, 사에, 아트, 맨디. 그들은 모두 작년에 26반 교실에 있었던 학생들이었다. 그렇게 몇 명의 학생들은 베커 선생님의 교실로 갔고, 몇 명은 루미스 선생님의 교실로 이동했던 것이었다.

순간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여기는 오그가 있던 곳이야!” 나는 크게 짹짹 소리쳤다.

사실이였다. 오그는 한 때 루미스 선생님의 교실에서 살았었다. 분명히 말하면! 루미스 선생님이 26반 교실로 그를 데려왔던 그 날은 나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재미있는 녹색 친구에게 익숙해졌다.

오그와의 초창기 시절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을 때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왔다.

“렘 렘. 렘 렘.”

그 소리는 매우 크고 굵직했다. 너무나 낮고 굵어서 내 귀가 꿈틀거렸다.

“렘 렘. 렘 렘.”

그 소리는 구석에서 나왔고 탁자 위에 어항처럼 보이는 물체가 어렴풋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렘 렘! 렘 렘!” 그 소리는 우렁찼다.

나는 조심스럽게 탁자 쪽으로 천천히 움직였다. 옹거니, 그것은 어항이었다. 그렇다, 그 어항 안에 있는 것은 오그 보다도 더 커다란 개구리였다! 오그와 같은

63) Miss Loomis

즐거운 미소를 짓기는커녕 그는 흘겨보고 있었다. 아니면 비웃고 있었던 걸까?

“안녕, 조지!” 인사를 했다. “나는 오그의 친구야. 그를 기억하지?”

“럼 럼! 럼 럼!” 조지는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실히 상냥하게 들리지 않았다. 루미스 선생님은 오그와 조지가 친하게 지내기를 바랐었다. 하지만 조지가 오그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은 오그를 브리즈번 선생님의 교실로 데리고 왔던 것이다.

“럼, 럼, 럼, 럼!” 조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그가 나를 싫어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짧은 다리로 있는 힘껏 빠르게 문 아래로 도망쳤다.

후유! 조지가 질러대는 소리는 복도까지 들려왔다. 그에게서 벗어날 수 있어 다행이었지만, 날마다 그와 함께 교실에 남아 있어야 하는 친구들이 걱정되었다. 그들은 틀림없이 불행할 거야!

당장 26반 교실로 돌아가서 오그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고 싶은 유혹을 느꼈지만, 옆 교실에 25반 교실이라는 표시가 눈에 띄었다. 그 반은 내 교실 복도 맞은편에 있어서 그곳이 베커 선생님의 교실이 맞는지 확인하기로 결심했다.

어떤 까닭인지, 이 교실의 문과 바닥 사이에는 공간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나는 혼자 뚫고 들어가기 위해 가능한 납작 엎드려야 했다. 문체는 내 몸이 문을 반쯤 통과하다가 멈춰버린 것이었다.

간헐어!

“이크!” 나는 짹짹거렸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었다. 그 곳에는 내 소리를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다시 밀고 들어가려 했지만 내 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머리는 25반 교실에 꼬리는 복도에 있는 상황이라니!

오그가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를 걱정하는 동안, 나는 문 밑에서 밤을 지새야하는 상상을 하면서 바빠 머리를 굴렸다. 다음날 아침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상황을 상상해 보았다. 그들은 나를 보지 못할 거야! 문이 열릴 때 짓눌리거나 학생들에게 밟힐지 몰라. 다시는 26반 교실로 돌아갈 수도 없을 거야!

그때 캠프에서 카운슬러들이 항상 우리에게 비상시에 참가자들을 진정시키라고 했던 말이 생각났다.

“침착해, 침착해, 침착해!” 문 밑에 끼었을 때 평정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

이지만, 같은 말을 수없이 되뇌었다.

잠시 후에 나는 눈앞에 있는 교실을 바라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진정되었다. 뒤죽박죽 섞여 있는 책상들과 칠판을 제외하고는 잘 보이지 않았다. 머리를 움직일 수 없었지만 눈은 움직일 수 있어서 오른쪽을 살펴보니 책상 하나가 놓여 있었다. 왼쪽으로 눈을 돌렸더니 외투 보관실이 있었다. 그 앞에 책들이 가득 차 있는 큰 수레도 있었다. 나는 수레 위의 표지판을 읽으려고 눈을 가늘게 떴다.

25반 교실의 소유물

미스터 맥컬리⁶⁴⁾의 학급

가져가지 마시오!

역시나 이곳도 베커 선생님의 교실이 아니었다. 더 이상 25반 교실을 탐험할 필요가 없었다. 문 밑에서 빠져나오려고 시도했을 때, 큰 어려움은 없었다. 만약에 내가 좀 더 침착했다라면, 전진할 수는 없어도 쉽게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을 더 빨리 알았을 것이다.

“후유!” 어두운 복도에 멈춰 서서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진정이 되자 나는 복도를 가로질러 26반 교실로 급히 달려가서 문 밑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갔다.

“오그, 내가 왔어!” 짹짹거리며 말했다. “문 밑에 갇히지 않았어!”

오그는 어항 안에서 미친 듯이 침병거렸다. “평, 평, 평, 평!” 그는 나에게 말했다.

나는 바닥을 가로질러 탁자를 향해 돌진했다. 케이지까지 돌아가는 길은 매우 험난하고 위험했지만, 오늘밤에 나는 잠시도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다. 나는 블라인드에 매달린 긴 줄을 붙잡고 온 힘을 다해 밀면서 앞뒤로 흔들기 시작했다. 그 줄은 내가 탁자 윗면과 같은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점점 더 높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때 줄을 놓았고 탁자 위로 미끄러지며 오그의 어항 옆을 지나쳐갔다.

발을 내딛고 부랴부랴 케이지 안으로 들어가고는 뒤로 문을 잡아 당겼다.

난생처음으로 안전한 느낌이 들었다. 나를 보호해 주는 멋진 케이지를 갖고 있

64) Mr. McCauley

는 것이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여러분은 모를 것이다.

“좋아, 오그.” 한시름 놓고 나서 말했다. “우리의 친구들은 28반 교실과 30반, 29반 교실에 없었어. 하지만 그 반이 베커 선생님의 교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냈어.”

“평!” 오그는 놀란 것 같았다.

“그러나 그들 중 몇 명은 27반 교실에 있어. 거긴 루미스 선생님의 교실이야, 그 선생님을 기억하지?” 내가 물었다.

“평, 평, 평, 평!” 아마도 오그가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다.

“조지는 아직도 거기에 있어. 그는 다정하지가 않아!” 나는 불평했다. “가스와 미란다, 지난 학급의 많은 학생들이 그와 함께 있어!”

오그는 물속으로 점프를 하고 미친 듯이 침범거렸다.

나는 조지에 대해 생각해 볼 때마다 오그가 26반 교실로 옮겨온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그가 침범거리던 것을 멈추자 내 모험, 즉 문 밑에 갇혀 있었던 무서운 공간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평, 평, 평!” 내 얘기가 끝나자 오그가 말했다.

안도의 한숨을 쉬고 나니 서서히 안정이 되었다. 교실을 둘러보다가 브리즈번 선생님의 책상 위에 놓인 빨간 햄스터 공을 보았다.

노래하고 춤추는 아키에 대한 생각은 나를 웃게 만들었다. 나는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적어도 내 방식으로.

“춤추는 아키! 로큰롤 롤스!” 나는 바퀴 위로 경충 뛰어오르고 열심히 돌았다.

그때 오그도 가세했다. “평, 평!” 그는 텅 하는 콧소리를 냈다. 그리고는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무척이나 거칠게 침범거렸다.

그러나 잠시 후에, 나는 바퀴에서 내려와 쉬려고 침대로 기어들어갔다.

조사하고 흔들고 구르는 것은 결국 여러분을 너무도 피곤하게 만들 수 있다.

험프리의 교칙: 문 아래로 나가지 말고 가능하면 걸어서 문을 통과하라.

5. 다정한 얼굴

가을이여, 오, 가을이여,
여름이 끝날 즈음 찾아왔네.
가을이여, 오, 가을이여,
내 친구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다음 날 아침 첫 종소리가 울리고 낮선 학생들이 26반 교실로 줄지어 들어오는 동안, 나는 노트에 새로운 시를 끝마치고 있는 중이었다.

전날 밤 심장이 두근거리는 모험 때문에 아직까지 피로가 풀리지 않아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때 크고 활기찬 목소리에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로지, 기다려! 내가 너의 가방을 들어 줄게!”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헬플 홀리였는데 롤링 로지의 도우미로서의 일을 성심껏 해내고 있었다.

“홀리, 괜찮아.” 로지가 대답했다. “혼자서 할 수 있어.”

로지는 가방을 휠체어 뒤에서 책상 옆 바닥으로 옮기며 능숙하게 다루었다.

“내가 널 안으로 밀어 줄게.” 홀리가 말했다.

“혼자서도 할 수 있어.” 로지가 대답했다.

홀리는 갑자기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난 너를 돕기로 되어 있어.” 그녀가 말했다.

로지는 그녀에게 다정한 미소를 지었다. “홀리, 고마워. 도움이 필요하면 알려 줄게.”

“알았어.” 홀리가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무척 실망한 것 같았다.

나는 홀리가 안쓰러웠다. 그녀는 단지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로지가 스스로 매우 잘 해결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 기뻐다.

브리즈번 선생님이 출석을 확인하고 놀라운 말을 전달하셨다. (그러나 당시, 선생님은 항상 나를 놀라게 하고 계셨다.)

“여러분, 여러분에 관한 세 가지 재미있는 사실들을 여름 상자 안에 담아 오라고 얘기 했어요, 기억하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끄덕이지 않았다. 또 다시 아무도 나에게 그 목록을 가져오라고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여러분의 답변들은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그 답변들을 가지고 친해지기 퀴즈⁶⁵⁾를 만들었어요.” 선생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30분 동안 서로에게 질문하고 그 질문의 답변을 알아내는 거예요. 내가 인쇄한 이 종이에선 질문들과 답변을 적을 공간이 함께 있어요.”

선생님의 설명이 끝나기가 무섭게 교실 안은 아주 떠들썩해졌다. 학생들이 애기하고 받아 적는 동안, 선생님은 한 명씩 스냅사진을 찍으셨다. 비록 오그와 내 사진을 찍는 것을 잊으셨지만, 교실 안은 너무 혼란스러워서 모두가 말하는 것들을 수 없었다. 그래서 나에 대해 재미있는 세 가지 사실들을 생각해보았다.

햄스터들은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 내 목록을 세 개로 줄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해 낸 것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 나는 황금색이다. (그것은 사실이다. 골든 햄스터이기 때문이다. 작년에 내가 학급에서 유일하게 황금색의 학생은 아니었다. 미란다 골든, 혹은 내가 그녀에게 불렀던 골든 미란다가 우리 반에 있었기 때문이다.)
2. 나에게 친구 오그가 있다. 그는 황금색이 아니다. 초록색이다.
3. 나는 잠겨있지 않은 자물쇠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을 목록에 기입하지 않을 것이다. 비밀이니까.)
4. 나는 케이지 안에 노트를 숨겨 두었다. (위를 보라.)
5. 맥 선생님이 26반 교실로 나를 데려오셨다. (선생님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다.)
6. 나는 호루라기와 같은 큰 소음을 무서워한다.
7. 나는 인간들이 내 말을 이해했으면 좋겠다.
8. 나는 옛 친구들을 그리워한다.
9. 너희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도저히 생각을 할 수가 없다.

65) get-to-know-you quiz

브리즈번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중에도 내 머릿속은 목록을 만드느라 분주했다. 선생님은 질문지에서 하나씩 질문하셨고, 학생들은 자신이 받아 적은 대답들을 서로 이야기했다. 나도 내 노트에 적은 대답들을 발표하고 싶었지만, 누군가가 나를 보고 그 노트를 발견할까봐 감히 털어놓을 수가 없었다.

“오그, 잘 들어봐!” 이웃에게 짹짹하며 말했다.

여기에 내가 기억하는 몇 가지 일들이 있어.

- 허리 업 해리⁶⁶⁾는 탁구⁶⁷⁾를 좋아한다. 탁자로 테니스를 어떻게 치는지 모르겠지만, 해리는 알고 있나 보다.
- 로지에게는 세 명의 오빠들이 있다. 한 오빠는 기니피그를 두 마리 키운다. 나는 언젠가 그들을 만나고 싶다. 내 말은 기니피그들을 의미한다.
- 슬로우 다운 사이먼에게는 누나가 한 명 있다. 그녀는 작년에 브리즈번 선생님의 반에 있었다. (나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다. 그녀의 이름은 스타프 기글링 게일이고, 그녀가 그림다.)
- 헬플 홀리는 수의사가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녀는 동물 보호소에서 자원 봉사를 한다.
- 톨 폴 그린은 골든 파인즈⁶⁸⁾라는 학교에 다녔었다. 그는 또한 무선 조종 자동차들을 수집한다.
- 비 케어플 켈시⁶⁹⁾는 나무타기를 좋아한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게 들린다.)
- 스몰 폴 플레처는 모형 비행기들을 만든다.
- 토마스 티 트루는 상어 이빨의 수집품을 가지고 있다. 굉장히 큰 상어 이빨들.
- 피비는 할머니와 함께 산다.
- 저스트 조이 존스는 딸기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 (냠냠!)

66) Hurry-Up-Harry

67) table tennis

68) Golden Pines

69) Be-Careful-Kelsey

학생들이 브리즈번 선생님 앞에서 차례로 읽는 동안, 내 머리 속은 내가 적은 이야기들로 복잡했다.

폴 지의 옛 학교였던 골든 파인즈는 예쁜 이름이다. 만약 그 학교에 황금 나무들이 있다면, 아마도 나와 같은 골든 햄스터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토마스의 상어 이빨들에 대해 걱정을 했다. 그가 그 이빨에 어울리는 상어를 갖고 있지 않기를 바랐다. 상어 사진들을 보았는데 무시무시하게 생긴 무서운 동물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비 케어플 켈시가 나무에 오를 때 조심하길 바랐다. 그녀는 이미 팔과 다리가 부러졌었다.

휴식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리자 학생들은 교실 밖으로 달려 나갔다.

“로지, 문을 열어 들게!” 홀리가 교실을 뛰어 나가면서 말했다.

“좋아.” 로지가 그녀 옆을 지나가면서 대답했다.

브리즈번 선생님이 토마스를 멈춰 세웠을 때, 그는 문을 막 나가려던 참이었다. “토마스, 외투 어디 있지?”

“외투는 필요 없어요, 브리즈번 선생님. 밖은 더워요. 100도쯤 되는 걸요.” 그가 대답했다.

“토마스, 부탁이니 과장하지 마라. 밖은 약간 쌀쌀해. 그리고 넌 짧은 소매를 입었잖니. 창문 위의 온도계를 확인하고 실제로 몇 도인지 보고 오렴.” 선생님은 그를 창가로 향하게 하셨다. 우리의 탁자를 지나가는 길목에 밖의 온도를 나타내는 작은 온도계가 창문에 붙어 있었다.

“뭐라고 쓰여 있지?” 선생님이 질문하셨다.

“58”⁷⁰⁾ 토마스는 대답했다.

“외투를 입으렴.” 브리즈번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안 그럼, 라이트 선생님이 네게 호루라기를 부실거야.”

브리즈번 선생님은 교실을 나가는 토마스의 모습을 바라보셨다.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시며 책상 앞에 앉아 학생들의 사진들을 분류하셨다.

갑자기, 한 목소리가 크게 들렸다. “이봐, 험프리 덤프티!”

나는 어디에서나 유별나게 큰 목소리를 식별할 수 있다. 그것은 이전 학급의

70) 58은 화씨이다. 이를 섭씨로 바꾸면 14.4 도이다.

로우어 유어 보이즈 에이제이였다. 그가 나를 험프리 덤프티라고 부를 때면 기분이 좋았다.

“안녕하세요, 브리즈번 선생님.” 그는 인사했다.

“안녕, 에이제이. 휴식시간에 밖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선생님은 그에게 말씀하셨다.

“험프리에게 인사정도는 해도 되겠죠?” 그가 물었다.

브리즈번 선생님은 미소 짓는 얼굴로 말씀하셨다. “물론이지. 그렇지만 잠깐만 이야.”

“어디에 있었니?” 에이제이가 케이지를 향해 달려오자 짹짹거리며 말했다.

“안녕! 험프리, 안녕! 오그, 너희들이 보고 싶었어.” 그는 가까이 몸을 굽히면서 말했다. “베커 선생님의 교실에는 학급 애완동물이 없어. 그래서 설득시키고 있는 중이야. 선생님은 한 번 생각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어.”

“하지만 내가 너의 학급 애완동물이야.” 곧바로 나는 짹짹 소리쳤다.

“너랑 얘기해서 즐거웠어.” 에이제이는 대답했다. 에이제이만이라도 내 말을 이해할 수 있다면 좋으련만!

“주말에 한 번만이라도 험프리를 우리 집으로 데려갈 수 있어요?” 그는 브리즈번 선생님에게 물었다.

“아마도 새로운 학생들이 그와 함께하길 간절히 바랄 거야.”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나 혹시라도 빈 주말이 생기면, 너에게 부탁할게. 자, 라이트 선생님이 휴식시간에 여기 있는 너를 발견하기 전에 밖으로 나가는 게 좋겠구나.”

에이제이는 곧 교실 밖으로 달려 나갔다. 하지만 나는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나는 라이트 선생님이 귀청이 떨어질 듯 호루라기를 불지만 않는다면 무엇이든 할 것이다.

~ * * * * ~

그날 오후 브리즈번 선생님이 숫자에 대해 설명하시는 동안 에이제이가 한 말이 떠올랐다. 그와 다른 친구들은 학급 애완동물을 원하고 있었다. 또 다른 학급 애완동물을. 어찌면 기니피그나 토끼가 나올지도 모른다. 아니면 오그처럼 개구

리가 나올 것 같기도 하다. 혹은 또 다른 햄스터.

내 기분은 우울해졌다.

그날 학교가 끝나기 직전에 학생들이 책상을 정리하고 있을 때, 홀리가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이먼, 너의 가방이 로지의 휠체어에 너무 가까이 있어! 로지가 급히 나가야 한다면 어떻게 되겠니?”

홀리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었다.

사이먼은 그의 가방을 집어 들었다. “미안해, 로지.” 하고 사과했다.

“미안할 거 없어.” 롤링 로지가 말했다. “길을 막은 건 아니야.”

“문제가 될 수도 있었어. 만약에. . .” 헬플 홀리가 말을 시작했다.

“홀리, 그렇지 않아” 로지가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알겠니?” 로지가 홀리를 노려보자 홀리는 금방 울음을 터트릴 것 같은 표정이 되었다.

“단지 도와주려고 노력했을 뿐이야.” 헬플 폴리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고마워.” 롤링 로지가 대답했다.

나는 로지가 진심으로 하는 말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사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감조차 잡을 수 없었다.

마지막 종이 울렸을 때, 나는 또 다른 이상한 말을 우연히 엿들었다.

“이봐, 폴 지. 문 윗부분에 닿을 수 있어?” 토마스 티 트루가 물었다.

톨 폴은 어깨를 으쓱했다. “모르겠어.”

“해봐.” 토마스가 말했다.

“그래, 네가 얼마나 높이 닿을 수 있는지 보여줘.” 사이먼이 덧붙여 말했다.

톨 폴이 잠깐 망설이다 손을 높이 들어 올리자 높은 지점에 손이 닿았다. 그가 까치발을 들었을 때는 문 틀 꼭대기에 닿을 수 있었다.

“이봐, 넌 거인이야.” 토마스가 말했다. “넌 확실히 위대한 농구선수인 것 같아.”

“그다지.” 톨 폴은 나가면서 중얼거렸다.

바로 그때 스몰 폴 플레처가 문에 다가왔다.

“폴 지가 얼마나 높이 닿았는지 봤니?” 토마스가 스몰 폴에게 물었다.

“그래서 뭐?” 스몰 폴이 중얼거리며 토마스를 지나쳐갔다.

“어서 움직여라, 애들아. 그렇지 않으면 버스를 놓칠 거야.” 브리즈번 선생님이

새로운 학생들에게 말씀하셨다. “해리, 서두르는 게 좋겠구나.”

해리는 아직도 책상에 앉아서 천천히 책들과 종이들을 가방 속에 넣고 있었다.

“전 버스를 타지 않아요.” 그가 말했다. “엄마가 저를 태우러 오세요.”

“그렇구나.” 브리즈번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그럼, 엄마를 기다리시게 하면 안 되지.”

“괜찮아요. 엄마는 항상 늦으시는 걸요.” 해리가 대답했다.

몇 분후 해리는 교실을 나갔다. 브리즈번 선생님은 큰 한숨을 내쉬고 창가 옆 우리 탁자로 걸어오셨다.

“새로운 학급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다소 필요하다는 걸 항상 잊어버리지 뭐야.” 선생님은 오그와 내게 말씀하셨다. “하지만 재미있는 학급이야. 너희들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노력할게요!” 스스로 다짐을 하며 짹짹 말했다.

결국, 학급 햄스터로서 선생님을 돕는 것은 내 일이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옛 친구들이 그립다.

험프리의 교칙: 선생님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비록 그것이 내키지 않더라도.

6. 흔들기, 꿈틀거리기, 그리고 돌기

브리즈번 선생님이 교실을 나가고 시간이 흘러 교실은 어두워졌다. 갑자기 교실 문이 열리고 불빛이 들어왔다.

“안녕, 포유동물! 안녕, 양서류!” 알도가 큰 소리로 인사를 건네며 청소용 수레를 끌고 들어왔다.

“안녕, 알도.”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지만 나도 인사를 했다. 작년에 그는 스페인어를 배웠다. 그가 또 다른 언어를 배우고 있나?

“험프리, 너랑 나는 포유류야. 그렇지만 오그는 양서류야.” 그는 교실을 청소하며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생물학에서 그것을 배웠어.”

알도가 청소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항상 내 기분을 즐겁게 했다. 그는 책상 주변과 의자 밑을 빗자루로 빙글빙글 굴리듯 쓸고는 바로 정렬을 했다.

“잘 봐, 인간이랑 험프리와 같은 설치류는 포유류야. 우리는 털과 두 개의 귀, 네 개의 팔다리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온혈동물이기도 하지.” 그는 말했다.

“우리가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진작에 알고 있었어.” 내가 알도와 같은 포유류라니 무척이나 기뻐다. 대부분의 인간들은 햄스터만큼 털이 있진 않지만, 알도는 유난히 털이 많았다. 특히 굉장히 긴 수염.

“오그, 넌 양서류야.” 그는 계속해서 설명했다. “너는 털이나 머리카락이 없고 물갈퀴 발을 가지고 있어. 또한 우리는 너의 귀를 볼 수가 없어.”

그것은 사실이였다. 오그를 알게 된 후로 오랫동안 그의 귀를 찾아보았지만,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

“오그, 넌 냉혈동물이야.” 알도는 걸레를 꺼내 책상의 먼지를 닦기 시작했다. “그것은 너의 체온이 변한다는 말이야. 반면에 험프리와 나 같은 온혈 동물은 날씨에 상관없이 같은 체온을 유지하지.”

어머나, 알도는 언젠가 분명히 훌륭한 선생님이 될 거야!

알도의 설명을 듣기까지 난 오그와 공통점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속상했었다. “양서류는 포유류만큼이나 다정한 것 같아. 그런 것 같지, 험프리?”

“맞아, 맞아, 맞아!” 기분이 나아진 나는 힘주어 대답했다.

오그는 함성을 터트렸다. “평!”

잠시 후 알도는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저녁을 먹으면서 우리와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항상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었다. (글쎄, 내 음식은 아주 맛있었지만 내가 보기에 오그의 음식은 맛있어 보이지 않았다. 그는 양서류이지만 난 아니다.)

알도는 샌드위치를 먹으며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궁금해 하는 화제이기도 했다.

“리치는 아직도 새로운 선생님에게 익숙하지 못해서 힘들어 하고 있어.” 알도는 보온병에 들어 있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기 위해 잠깐 말을 멈추었다.

“베커 선생님이 리치와 커크를 멀리 떨어져 앉게 해서 약간 심술이 났어. 아마도 리치는 그녀에게 고마워해야 할 거야. 커크 옆에 앉기만 하면 자주 혼나거든.” 그는 말했다.

알도의 말에 동감했다. 커크는 농담하기를 좋아했고, 리치는 그 농담에 곧잘 웃었다. 낯선 학생들은 누구도 농담을 하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베커 선생님은 게일과 하이디도 떨어져 앉게 했어.” 알도가 말했다.

그들은 단짝친구였기 때문에 그 말도 일리가 있어 보였다. 게일은 굉장히 킬킬거리며 잘 웃는 학생이었고, 하이디도 그녀 주위에 있을 때면 항상 킬킬 웃었다. 낯선 학생들은 아무도 게일처럼 킬킬거리지 않았다. 그녀의 동생 사이먼조차도.

“아무튼, 리치는 곧 그녀에게 적응하게 될 거야.” 알도는 말했다. “네가 브리즈번 선생님에게 익숙해진 것처럼 말이야.”

나는 브리즈번 선생님에게 익숙해지는 데 한참 걸렸다. 선생님은 한 인간이기 때문이었다.

낯선 학생들로 가득 찬 교실에 익숙해지는 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할까?

알도는 일어나서 수레를 문 쪽으로 밀기 시작했다.

“사실 리치의 문제는 18반 교실에 학급 애완동물이 없는 것일지도 몰라.” 알도는 불을 켰다. “내일 밤에 보자!”

그가 브리즈번 선생님의 책상 위에 있는 아키의 빨간 햄스터 공을 그냥 지나쳐 가는 것을 보고 약간 실망감이 들었다.

문이 닫히고 내 눈이 어둠에 익숙해졌을 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오그, 알도가 18반 교실이라고 했지?”

“평!” 오그는 대답했다.

“그곳에는 분명히 나머지 옛 친구들이 있을 거야. 확인하고 올게.” 잡겨 있지 않은 자물쇠 문을 밀면서 말했다. “돌아와서 모든 것을 얘기해 줄게.”

~ * * * * ~

곧 복도로 나왔다. 나는 18반 교실이 26반 교실 왼쪽에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서 오른쪽으로 돌아 종종걸음으로 복도를 달려갔다. 복도에는 희미한 불빛이 비추고 있었지만, 아이들이 없는 학교는 매우 조용했다.

낮은 곳에서 문 위의 숫자를 보기는 정말 힘들었다. 정면에서 볼 수 있다면 쉽게 읽을 수 있을 텐데. 전 날 밤처럼, 모든 짝수 번호들은 복도 한 쪽에 있었고 홀수 번호는 건너편에 있었다. 그 숫자들을 읽어 보았다. 24, 23, 22, 21, 20.

18반 교실에 닿기까지 복도를 달리다가 급히 왼쪽으로 돌고는 계속해서 복도를 달렸다. 19반 교실이 눈에 들어왔고 그 맞은편에 18반 교실이 있었다.

나는 문 밑에 갇히고 나서부터 익숙하지 않은 문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우려와 달리 이 교실은 문과 바닥 사이의 공간이 충분히 널찍했다. 후유!

18반 교실은 26반 교실과 별로 다를 게 없어 보였다. 책상들과 의자들, 칠판, 선생님의 책상이 놓여 있었다. 케이지와 오그의 어항이 놓인 탁자와 비슷한 긴 탁자도 있었다. 하지만 그 탁자 위에 포유류와 양서류 대신 상자들이 깔끔하게 일렬로 놓여 있었고 각 상자에 이름이 붙여있었다. 더 잘 보려고 나는 잽싸게 바닥을 가로질러 달려가서 작년에 친했던 친구들의 이름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게일과 하이디, 에이제이, 리치, 커크, 타비사가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름들과 함께 있었다.

나는 오랫동안 그 상자들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작년의 좋은 추억들을 모두 떠올려 보았다.

그때 갑자기, 불빛이 비추기 시작했다. 순간 당황스러웠다. 건물 안에 누가 있었나? 알도일까? 아니면 누군가 침입했나? 왜 불을 켜을까?

쿵!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확실히 누군가 침입한 게 분명해!

심하게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밖에 비가 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나는 평정을 되찾았다. 번쩍거리는 불빛과 요란한 소리가 번개와 천둥이었다니! 헐레벌떡 서둘러 교실을 빠져나와 곧장 26반 교실로 돌아왔다. 물론, 나는 무섭지 않았지만 오그가 무서워할까봐 걱정이 되었다.

“오그, 걱정하지 마. 폭풍우일 뿐이야. 그건 널 헤치지 못해.” 오그를 안심시키며 말했다.

그리고 18반 교실에 있었던 상자들과 그 위에 적힌 이름들에 대해 자세히 말해 주었다. 아마도 그것은 오그에게 멀리 있는 옛 친구들을 생각나게 하며 슬픔을 안겨준 것 같았다. 그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케이지 안에서 조용히 빗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 * * * * ~

다음 날에도 여전히 비가 내렸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번개와 천둥은 멈췄다.) 학생들은 여러 종류의 우산과 우비, 모자를 들고 26반 교실로 들어와서 외투 보관실에 놓았다. 안락한 케이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나에게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했다. 특히 햄스터들은 언제나 젖은 채로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저스트 조이는 외투 보관실에서 나와 곧장 케이지로 달려왔다.

“험프리, 안녕” 그는 말했다. “나야, 조이.”

“네가 조이라는 걸 알고 있어.” 짹짹하며 대답했다.

그는 웃었다. “방금 나한테 대답했어!”

“당연하지. 난 아주 예의 바른 햄스터야.” 하고 답하며 그가 내 말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험프리, 한 때 나도 햄스터를 키웠었어. 그의 이름은 기글스⁷¹⁾였어. 그가 웃을 때 작게 키득거렸거든.” 조이가 말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생겼니?” 궁금해서 물었다.

“이젠 기글스를 볼 수 없어.” 조이는 갑자기 슬퍼 보였다. “그는 죽었으니까 (D-I-E-D)⁷²⁾.”

71) Giggles

내 짐작에 조이는 내가 철자를 쓰지 못한다고 생각한 것 같지만, 나는 D-I-E-D가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었다.

“또 다른 햄스터를 키우고 싶었지만, 대신에 부모님은 개를 사 주셨어.” 그는 개에 대해 더 이야기했다. “스키퍼야. 나는 스키퍼를 좋아해. 그래, 나는 그를 사랑해. 아직도 가끔은 기글스가 생각나.”

“당연하지. 그는 너의 친구였어.” 진심으로 그를 위로해 주고 싶었다. “정말 안됐어.”

“너도 키득 거리는구나!” 조이의 얼굴이 환해졌다. “난 그게 좋아!”

이런, 키득거릴 생각은 없었는데 그 소리가 조이의 기분을 좋게 했더니 나도 기뻐했다.

조이가 친구들에게 달려가는 모습을 보며 그 앞에서만이라도 키득거리며 웃어야겠다고 혼잣말을 했다.

나는 나무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많은 학생들이 축축하게 젖은 채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이봐, 어젯밤에 천둥소리가 엄청 커서 우리 집이 흔들렸고 모든 그림들이 떨어졌어.” 토마스는 도착하자마자 지껄여댔다. “심지어 내 이빨도 흔들렸어.”

“토마스 티 트루, 그 말이 사실이니?” 브리즈번 선생님이 물으셨다.

토마스는 어깨를 으쓱했다. “아무튼,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 * * * * ~

브리즈번 선생님이 출석을 확인할 때, 해리는 또 보이지 않았다. 선생님은 출석을 확인하다 말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해리는 읽기 시간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중에 나타났다.

“교무실에서 사유서 받았니?” 브리즈번 선생님이 물어보셨다. 해리는 호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고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아빠가 태워다 주셨는데 차가 막혀서 늦었어요.” 그는 이유를 설명했다.

72) died : 사망한, dyed : 염색한, 두 단어의 발음이 비슷해서 의미를 명확하게 하려고 스펠링으로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

그의 해명은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에 흔히 있을 법해 보였다. 브리즈번 선생님도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해리는 외투를 걸기 위해 보관실로 걸어갔다. 다른 학생들은 계속해서 읽었지만 해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브리즈번 선생님은 그를 찾으러 들어가셨다.

외투 보관실은 실제 방이 아니었지만, 부분적으로 벽을 세워 교실과 분리해 두고 있었다. 그래서 창가 옆 내가 있는 곳에서는 안을 들여다볼 수 없었다.

“해리? 뭐하고 있니?”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외투를 벗고 있어요.” 해리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자, 서둘러라, 해리.” 선생님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해리는 싱긋 웃는 얼굴로 나왔다. “브리즈번 선생님, 보관실에 여덟 개의 외투가 파란색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다른 색보다 훨씬 더 많아요!”

브리즈번 선생님은 그 말을 무시하고 말씀하셨다. “해리, 자리에 앉아라. 우리는 수업 중이야.”

~ * * * * ~

휴식을 알리는 종이 울렸을 때 여전히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며 내리고 있었다. 그래서 친구들은 실내에 머물러야 했다.

브리즈번 선생님은 벽장을 열고 커다란 플라스틱 통을 꺼내셨다.

“여기 비오는 날의 상자⁷³⁾가 있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이 속의 물건들은 바로 이런 날씨에 적합해요.”

선생님은 더 작은 상자들을 꺼내어 책상 위에 일렬로 배열하셨다. “보드 게임과 퍼즐들, 미술 용품들, 활동 책들이 있어요. 선착순이에요. 말다툼하지 않기자, 먼저, 몸을 약간 움직여 볼까요.”

그 다음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브리즈번 선생님은 양팔을 머리 위로 쭉 뻗고 손가락을 흔들었다.

“기지개 펴기. . . 그리고 흔들기!”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어섰다. 로지는 휠체어에 앉아서 간신히 기지개를 펴고

73) rainy day box

흔들었다.

나도 양발을 케이지 벽 위로 올리고 쪽 뺐었다. 동시에 수염도 꿈지락거렸다. 다른 학생들은 아무도 감히 따라할 수 없는 나만의 행동이었다!

다음으로, 브리즈번 선생님은 머리를 돌리기 시작하셨다.

“머리를 흔들어요.”

학생들도 따라했다. 그들 모두가 바보처럼 보였지만 나도 따라했다.

“어깨를 흔들어요.” 선생님은 계속 다른 동작을 보여주셨다. “팔을 흔들어요.”

나는 어깨와 팔을 확실히 구분하지 못했다. 할 수 없이 전부 흔들었다.

“엉덩이를 흔들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무릎을 흔들어요.”

지금까지 브리즈번 선생님이 그렇게 바보 같은 행동을 하시는 것을 한 번도 본적이 없었다. 학생들은 미친 듯이 흔들어대면서 동시에 킁킁거리기도 했다.

“발가락을 꿈지락거리고 코를 찡그려 봐요.” 브리즈번 선생님이 그 동작에서 킁킁 웃으셨다.

나는 아주 능숙하게 코를 찡그렸다. 평소에 그 동작을 많이 했었다.

“그리고 이제 흔들어요.” 브리즈번 선생님은 몸 전체를 흔들었다. “여러분의 문제들을 날려버려요.”

아이들은 몸을 흔들면서 크게 웃었다.

“좋아요, 편히 앉아요.” 브리즈번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흔들기는 이제 그만하고 한사람씩 앞으로 나와서 비오는 날의 활동을 골라 봐요.”

로지를 포함한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책상으로 갔다.

“괜찮아, 로지.” 홀리가 그녀를 만류하며 말했다. “내가 골라서 올게.”

“고마워, 하지만 내가 직접 고르고 싶어.” 로지가 홀리 곁을 지나쳐가며 말했다.

사이먼이 맨 먼저 책상으로 와서 보드 게임을 집어 들었다. “누가 나랑 보드 게임할래?” 그가 물었다.

스몰 폴과 톨 폴이 모두 앞으로 나와서 말했다. “나!”

“이봐, 폴의 체격이 둘로 나뉘었어. 거인과 소인.” 사이먼이 농담을 했다.

두 명의 폴은 그 농담이 재미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모두 그 자리를 피해버렸다.

“됐어.” 스몰 폴이 말했다. 그리고 자기 책상으로 돌아가서 책 한 권을 꺼냈다.

“오그, 저거 봤어? 어항을 향해 물었다.

오그는 어항 안에서 침범거리고 있었다.

토마스는 톨 폴과 사이먼과 함께 게임을하기로 결정했다. 로지도 그들과 합류했다. 홀리도 달려가서 동참할 의사를 밝혔다.

사이먼은 상자를 살펴보았다. “홀리, 미안해. 네 명만 할 수 있어. 선착순이야.”

홀리는 실망한 듯 보였지만, 다행히 켈시가 함께 퍼즐을 하자고 제안했다.

피비는 미술용품을 선택하고 재료들을 밝은 색 종이에 열심히 붙였다. 조이가 와서 그녀와 함께 했다.

허리 업 해리가 책상에 왔을 때 상자에는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었다.

“해리, 괜찮니?” 브리즈번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괜찮아요.” 그는 말했다.

“저기,” 선생님은 계속 말씀하셨다. “일주일 동안 등교시간을 지키면 네가 먼저 주말에 험프리를 집으로 데려갈 수 있을 거야. 언제?”

해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종소리를 듣고 다른 학생들과 함께 교실로 들어오는 것은 너에게 달렸어. 휴식시간이 끝나면 바로 교실로 돌아와야 해.” 선생님은 상자 속 깊이 손을 넣고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셨다. “폴 에프에게 같이 이 게임을 하자고 물어봐”

“네.” 해리가 대답했다.

곧 모든 학생들은 활동을 하느라 바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보였다. 그것은 정말 다행스러웠다.

그러나 문제들도 있었다. 해리가 일주일 동안 서둘러 행동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홀리와 로지 사이에도, 두 폴들 사이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바퀴 위로 경충 뛰어올라가서 돌기 시작했다. 그 곳은 생각에 몰두할 수 있는 장소니까.

학급 햄스터를 생각에 잠기게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학급에서 일어나는 문제이다.

험프리의 교칙: 여러분의 몸을 혼드는 것은 쉽지만, 여러분의 문제를
날려 버리기는 훨씬 어렵다.

7. 방문객과 방문

다음 날은 내가 좋아하는 맑고 화창한 날씨였다. 새로운 학생들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서 비 오는 날의 휴식시간이 계속 되길 내심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눈부신 햇살을 보니 또 다른 시구가 떠올랐다.

가을이여, 오, 가을이여,
날씨가 익살맞을 때면.
하루는 짙짙한 비가 내리고,
다음날은 따뜻한 태양이 비추네.

종이 울리고 몇 분이 지나 허리 업 해리가 도착한 것을 보시고 선생님은 기분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다. 해리는 엄마와 함께 왔다. 해리 엄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브리즈번 선생님에게 인사를 하셨다.

“브리즈번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어젯밤에 선생님과 통화를 할 때만 해도 오늘은 절대 늦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오는 길에 주유소에 들려야 했어요.” 해리 엄마는 상황을 설명하셨다. “내일은 늦지 않을게요.”

“고마워요, 이토 부인.” 브리즈번 선생님은 정중하게 대답하셨다.

그리고는 해리를 보며 말씀하셨다. “네 자리로 가서 국어 학습장을 꺼내볼까?”

“오그, 그 말 들었니?” 나는 해리 엄마가 가시고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을 때, 이웃에게 짹짹거리며 말했다. “브리즈번 선생님은 어젯밤에 해리의 지각에 대해 얘기하려고 해리 엄마에게 전화하셨나봐.”

“평, 평!” 오그는 큰 소리로 대답했는데, 그 소리가 몇 명의 아이들을 웃게 했다.

“심상치 않아.” 나는 걱정하며 말했다. “해리가 너무 속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지만 해리를 조심스럽게 살펴보니 더 이상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였다.

~ * * * * ~

오전에 느지막이 휴식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렸고, 학생들은 교실 밖을 나갔다. 나는 그들이 운동장에서 몸을 흔들게 될 거라는 것을 알았다. 나도 브리즈번 선생님이 전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동작들을 해보기로 했다.

먼저 양쪽 귀와 수염을 흔들었고 심지어 꼬리 (인간들은 흔들 수도 없는 것)도 흔들었다. 그 다음에 몸 전체를 흔들고 또 흔들면서 골치 아픈 문제들을 날려버리려고 애썼다.

“춤추는 험프리!” 짹짹 목청껏 외쳤다.

조금은 바보처럼 보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기분은 좋았다.

심지어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내 기분은 최고였다. “험프리! 뭐하고 있어?”

나는 올려다보고 놀라운 광경을 보았다. 작년에 단짝친구였던 골든 미란다와 스피크 업 사에가 케이지 앞에 서서 나를 향해 웃고 있었다.

“험프리가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아.” 사에가 맑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험프리, 우린 너를 무척 그리워하고 있어.” 미란다가 말했다.

“너희들이 조지와 같은 반이 된 것은 정말 안됐어.” 짹짹거리며 말했다. 미란다가 내 말을 이해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오그, 너도 보고 싶었어.” 사에가 덧붙여 말했다. “조지는 너를 싫어하지만, 우린 널 좋아해.”

“너희들이 없다면 똑같지가 않아.” 미란다가 아주 가까이 몸을 숙이고 속삭였다. “사랑해, 험프리.”

나는 오그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는데 미란다는 어항 가까이 다가가서 말했다. “오그, 너도.”

내 심장은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골든 미란다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 나도 그녀를 사랑한다.

“애들아, 라이트 선생님이 너희들을 찾고 계실 거야.” 브리즈번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운동장에서 누구든 안보이면 곧 알아차리시거든.”

그들은 웃으며 나에게 다시 만나러 오겠다고 약속했다.

그 날 나머지 시간동안 수업에 집중하기가 정말 힘들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

는 중에도 내 귓가에는 미란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다, “험프리, 사랑해.”

브리즈번 선생님이 전달사항을 알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러분, 내가 이번 주에 험프리를 집으로 데려갈 거예요. 다음 주 금요일을 시작으로 여러분이 한 명씩 주말마다 돌아가며 험프리를 집으로 데려가도록 해요.”

나는 당장 새로운 학생들의 집에 가지 않게 되어 조금 안심이 되었다. 그들에 대해 아직은 확실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나는 매우 호기심이 많은 햄스터이다. 그들의 집에서 보내는 주말은 어떨까 궁금하기도 했다.

~ * * * * ~

브리즈번 선생님은 남편 버트와 함께 노란색 집에서 살았다. 작년에 사고이후 버트는 휠체어 신세를 지고 있었다. 그는 작업장에서 새집⁷⁴⁾을 만들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또한 그는 내 케이지를 크게 확장시켜주었다. 고마워요!) 버트는 메이크레스트 매너⁷⁵⁾(사람들이 사고나 질병을 앓고 나서 회복하는 곳)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도 했다. 가끔 버트는 그들을 도우려고 나를 거기로 데려갔다.

브리즈번 부부의 집은 특히 아이들과 애완동물들로 붐비는 다른 집에 비하면 아주 조용했다. 가끔은 너무 조용해서 오그가 그리워진다.

그 주말에 나는 자주 꾸벅꾸벅 졸았다. 브리즈번 선생님이 깔끔히 집 정리를 하시는 동안 낮잠을 잤다. 선생님이 학생들의 시험지를 검토하시는 동안에도 잠을 잤다. 일요일 아침에 브리즈번 부부가 외출했을 때도 잠깐 졸았다.

일요일 오후에 브리즈번 선생님이 케이지 문을 열었을 때도 나는 푹 쉬고 있었다. “험프리, 몹시 지루한 것 같구나! 이번 주말에는 너에게 신경을 덜 썼지만, 이제 달라질 거야.”

선생님은 나를 들어 올려서 노란색 플라스틱 햄스터 공속에 내려놓으셨다.

“달라진 풍경은 어때?” 선생님이 물어보셨다.

그것은 나에게 멋지게 들렸다.

선생님이 나를 차고로 데리고 가셨다. 그곳에서 브리즈번 씨는 나무판에 망치

74) birdhouses

75) Maycrest Manor

질을 하고 계셨다.

“내 생각에 당신은 일행과 같이 있는 걸 좋아하는 것 같군요.” 브리즈번 선생님이 남편에게 말씀하셨다.

“늘 그렇지.” 브리즈번 씨가 대답하셨다.

브리즈번 선생님은 작업대 근처에 있는 낡은 의자에 앉아서 햄스터 공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내 햄스터 공은 번쩍거리는 불빛과 음악은 없지만 아직도 나는 그것을 좋아했다.

“험프리, 굴려봐.”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넌 운동이 필요해.”

나는 공을 굴리기 시작했다. 공 안에서는 상황이 달라보였고 다르게 들리기도 했다.

브리즈번 씨가 말을 했을 때, 그들은 마치 물속에 있는 것처럼 들렸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나누는 얘기들을 거의 들을 수 있었다.

“버트, 내가 개인적인 질문을 해도 될까요?” 선생님이 질문하셨다.

그는 씩웃었다. “우리는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어, 수.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 물어봐요.”

“좋아요. 휠체어를 타게 되면서 가장 나쁜 건 뭐예요?”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버트는 잠시 생각했다. “나는 당신이 부엌 선반 위에 숨겨둔 캔디 상자에 손이 닿지 않아.”

브리즈번 선생님은 웃으셨다. “내가 한 행동이지만, 손이 안 닿는 것은 매한가지예요.”

그때 버트는 좀 더 진지해졌다. “사람들에게 최악의 상황은 휠체어신세를 지는 거야.”

“왜죠?” 브리즈번 선생님이 물어 보셨다.

“음, 사람들이 예전과 다르게 나를 대할 때마다 끔찍한 기분이 들거든. 난 다르지 않은데 말이오. 단지 의자에 앉아 있는 것뿐이지. 난 항상 예전의 내 모습과 똑같소.” 그는 설명했다.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도와주려 할 때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아.” 버트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렇지만 당신은 도와주고 싶어 하는 그들을 비난할 수는 없어요.” 브리즈번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것은 고맙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따금 도움을 요청해야한다는 것도 알고 있소.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옆집의 바이올렛 라스무센⁷⁶⁾처럼 말이요. 만약 내가 1분이라도 밖에 있으면, 도울 것이 있는지 확인하러 달려 나오거든. 그 여자는 정말 나를 화나게 하지.”

브리즈번 선생님은 조용히 웃으셨다. “당신은 휠체어를 타게 된 후로도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버트 브리즈번! 당신은 여전히 완고해요.”

“그걸 독립심이 강하다고 하는 거요.” 버트가 씩웃으며 말했다.

버트는 나무판 위로 사포 한 장을 문지르기 시작했다. “왜 묻는 거요?”

“아, 새로운 학급에 로지라는 소녀가 있어요. 그 애도 휠체어를 타거든요.” 브리즈번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그 애도 매우 독립심이 강해요.”

“잘됐네.” 버트는 말했다.

“그래요, 그 애는 문제가 없지만 다른 소녀가 문제예요!” 브리즈번 선생님은 한숨을 내쉬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어요, 버트.” 선생님이 질문하셨다. “있잖아요, 당신이 소년이었을 때 정말 작았어요?”

브리즈번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럼, 학급에서 가장 작은 소년이었던 내가 일 년 만에 가장 큰 소년이 되었지. 그 해 여름에 일어난 변화였소. 대단한 변화였지.”

“당신은 어느 쪽이 더 좋았어요? 작은 키 아니면 큰 키?”

브리즈번 씨는 하던 일을 멈추었다. “난 어느 쪽이든 문제가 있었던 것 같소.”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그래요.”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나도!” 나는 공을 그녀 쪽으로 구르면서 짹짹거렸다.

“오, 험프리, 내가 너를 잊을 뻔 했구나.” 브리즈번 선생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누구도 험프리를 잊을 수 없을 거요.” 버트가 말했다.

“험프리는 다음 주말에 여기 없을 거예요.” 브리즈번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그

76) Violet Rasmussen

는 새로운 학급의 학생들과 함께 그들의 집으로 가게 될 거예요.”

“어느 집?” 브리즈번 씨가 물었다.

“그래요, 어느 집이죠?” 나도 짹짹거리며 물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요.” 브리즈번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우리는 조금 더 차고에 머물렀는데, 브리즈번 부부는 다른 일들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차고를 굴러다니면서, 작은 소년이었던 브리즈번 씨를 상상해 보았다.

그것은 무척 힘들었다. 다음은 작은 소녀였던 브리즈번 선생님의 모습을 그려 보려고 했으나 그것도 잘 되지 않았다.

아마도 햄스터들은 상상력이 풍부하지 않은가 보다.

험프리의 교칙: 모든 사람들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다.

8. 세상에서 최악의 학급

첫 종이 울리기 전에 나는 안절부절못하였다. 허리 업 해리는 매일 정각에 오기로 약속했었다. 만약 그가 약속을 지킨다면, 나는 주말동안 해리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나는 해리의 지각을 늦게 데려다주시는 해리 엄마의 탓으로 돌려야 하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사실 그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니까.

조이는 항상 일찍 등교해서 종이 울리기 전에 나를 찾아왔다. 그래서 조이는 날마다 “키키키키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월요일에도 조이는 바퀴 위에서 돌고 있는 나를 바라보고 있을 때 피비가 다가왔다.

“햄프리는 내가 키웠던 햄스터와 꼭 닮았어.” 조이가 말했다.

“나도 햄스터 갖고 싶어.” 피비가 말했다. “할머니는 애완동물이 너무 손이 많이 간다고 하셨어. 며칠 전에 햄프리를 우리 집에 데려와도 되는지 여쭙봤어. 당연히 안 된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허락하셨어!” 피비는 아주 흥분한 것처럼 보였다. 나도 흥분했다.

“슬로우 다운 사이먼!” 사이먼이 교실로 뛰어 들어왔을 때 브리즈번 선생님이 부르셨다. 뒤이어 롤링 로지와 헬플 홀리가 들어 왔다. 모든 자리가 채워질 때까지 학생들은 차례로 자기 책상으로 갔다. . . 한 자리만 제외하고.

시계 바늘이 마지막 종이 울리는 시간을 향해 움직였다.

“오그, 해리가 해낼 것 같니?” 짹짹하며 물어보았다.

“평, 평” 오그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종이 막 울렸을 때, 해리는 교실 안으로 달려와서 곧장 자기 자리로 향했다.

“저 해냈어요, 그렇죠?” 그는 헐떡이며 물었다.

“그래, 기쁘구나.” 브리즈번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다. “그렇지만 내일은 조금 더 일찍 도착하면 좋겠구나.”

해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케이지를 쳐다보았다. 나는 독심술사는 아니지만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아마도 (만약이지만) 해리는 금요일에 나를 그의 집으로 데려갈 수 있을 것 같다.

지난주에 나는 브리즈번 선생님이 낯선 학생들을 파악하기 위해 그들의 생활에 대해 듣기와 그들이 읽는 것을 듣기, 생각 공유하기를 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시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나 이번 주에 선생님은 읽기, 사회 공부, 수학, 과학 가르치기 등 작년에 26반 교실에서 했던 내가 기억하는 일상으로 돌아가셨다.

낯선 학생들이 꽤 총명해 보였지만, 이 과목들에 대해 내가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는데, 내가 작년에 똑같은 내용을 배웠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정말로 똑똑하다고 느꼈다! 확실히 올해 어휘 시험에서 더 나은 점수를 받았다. 나는 펄 듯이 기뻐다!

아마도 (만약이지만) 이번 학년은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큼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오전 휴식시간이 끝나고 두 가지 사건이 터지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우선, 라이트 선생님께서 학생들과 함께 들어오셔서 브리즈번 선생님께 곧바로 걸어오셨다.

“선생님의 학급에 몇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라이트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나중에 그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게 어때요?” 브리즈번 선생님이 제안하셨다. “우리끼리”

“지금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라이트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때 늦은 정의는 실현되지 못한 정의니까요.”

우와. 나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지만 심각하게 들렸다.

“좋아요. 문제가 뭐죠?” 우리 선생님이 물으셨다.

“문제들이에요.” 라이트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첫째, 나는 선생님의 학생 두 명이 싸우는 것을 말려야 했어요.”

“이크!” 짹짹하며 물었다. “오그, 그거 들었니?”

오그가 너무 열심히 침병거리고 있어서 어항 뚜껑이 튕겨나갈까 봐 걱정이 되었다.

“정말이에요?” 브리즈번 선생님이 물으셨다. “누구죠?”

선생님은 교실을 둘러보셨다. 나도 보려고 나무꼭대기로 짹짹 올라갔다. 멍들거나 피를 흘리는 학생이 보이지 않아 다행이라 생각했다.

“토마스.” 선생님은 토마스 티 트루를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그리고 저 전학생, 키 큰 학생 말이에요.”

브리즈번 선생님은 놀라는 것처럼 보였다. “폴 그린?”

“그래요.” 라이트 선생님이 팔짱을 낀 채로 대답하셨다. “키가 큰 소년, 폴. 그는 토마스에게 헤드록을 걸었어요.”

브리즈번 선생님은 토마스 책상 가까이 걸어가셨다. “선생님의 말씀이 사실이니, 토마스?”

“아니에요, 선생님.” 토마스가 툭 폴을 힐끗 보며 대답했다. “우린 싸우지 않았어요.”

“폴?” 브리즈번 선생님이 그를 향해 돌아섰다. “싸웠니?”

폴은 머리를 숙였는데 아주 처량해 보였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는 중얼거렸다.

이때 라이트 선생님이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고 브리즈번 선생님의 귀에 속삭이셨다. “난 . . . 봤어요.”

선생님이 하시는 말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학급 햄스터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른다면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라이트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브리즈번 선생님은 놀라는 것처럼 보였다.

“내가 이 문제를 처리할게요, 라이트 선생님. 고마워요.” 브리즈번 선생님은 항상 공손했다.

라이트 선생님의 목소리는 갑자기 다시 커졌다. “그리고 선생님의 또 다른 학생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했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굉장히 위험한”이란 단어가 내 코에 경련을 일으키게 했다.

브리즈번 선생님은 눈살을 찌푸리셨다. “어느 학생이죠?”

“저 애예요!” 라이트 선생님은 로지 로드리게스를 향해 긴 손가락을 내미셨다. “그녀는 휠체어를 적절히 사용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홀리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로지를 멈추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로지에게 그건 위험하다고 말했어요.” 홀리가 말했다.

로지는 홀리를 노려보았다. “그건 위험하지 않았어요. 저는 항상 그렇게 해요.” 그녀는 확고하게 말했다.

“내 생각에 우리는 이 문제들을 점심시간에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브리즈번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선생님은 문 쪽으로 걸어가셨다. 그 행동은 라이트 선생님도 문 쪽으로 걸어가서. . .문 밖으로 나가기를 바라시는 것처럼 보였다. “고마워요, 라이트 선생님.”

“내가 그 회의에 참석해야 할 것 같군요.” 체육 선생님은 말씀하셨다. 그리고 문을 향해 돌아섰다. “모탈레스 교장 선생님도 함께.”

“연락할게요.” 브리즈번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라이트 선생님은 가버렸다. 나는 브리즈번 선생님이 그녀를 제압한 방식에 환호를 보낼 뻔 했다. 그러나 교실을 둘러보고 톨 폴과 토마스 티 트루, 롤링 로지, 헬플 홀리의 슬픈 얼굴을 보자 환호하고 싶은 기분이 사라져버렸다. 다른 학생들도 모두 당황한 것 같았다. 나도 아마 당황해 보였을 것이다.

최악의 첫날에 나는 이 반이 최고의 학급이 되지 않을 거라 확신했었다.

지금의 가장 최악의 학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다.

점심시간까지 길고 긴 시간처럼 느껴졌고, 다른 학생들도 나처럼 철자 퀴즈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 단어들을 작년에 배웠었는데도 세 개나 정답을 맞추지 못했다.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렸을 때, 브리즈번 선생님은 로지와 폴 지, 토마스에게 잠깐 남으라고 하셨다.

“로지와 함께 남아도 될까요?” 헬플 홀리가 물었다.

“그럴 필요는 없어.” 브리즈번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홀리는 또 다시 실망한 것처럼 보였다.

학생들이 나가고 나서 브리즈번 선생님은 로지에게 어떤 위험한 행동을 했는지 물으셨다.

“전 뒷바퀴로 달렸어요.”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전 캠프에서 그것을 배웠어요. 선생님도 연석을 오르내리기 위해 그것을 배우면 좋아요.”

브리즈번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셨다. 나는 선생님의 남편이 휠체어를 타고

뒷바퀴로 달리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뒷바퀴를 그냥 움직이기만 하면 앞바퀴가 공중으로 올라가요, 이렇게.” 로지는 설명을 했다.

“내게 보여줄 필요는 없단다.” 브리즈번 선생님은 로지의 팔걸이 위에 손을 얹으면서 재빨리 말씀하셨다. “난 그게 뭔지 이해한다. 그러나 그것은 조금 위험해 보이는구나.”

“알았어요. 선생님께서 그렇게 걱정이 되시면요.” 로지는 설명했다. “저는 올 여름에 계속해서 연습했어요. 캠프의 카운슬러들은 우리가 넘어지면 붙잡아 주려고 항상 대기해 있었어요.”

“다행이구나.” 브리즈번 선생님은 말씀하셨다. “그러나 운동장에는 너를 붙잡아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부탁이야, 로지. 운동장에서 뒷바퀴로 달리지 마라. 부모님이 허락하시면, 집에서 하는 것은 괜찮아.”

로지는 실망한 듯 보였다.

“내 말 알아들었니?” 브리즈번 선생님이 물으셨다.

로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자, 점심 먹으러 가거라.”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롤링 로지가 가고 나서 브리즈번 선생님은 두 소년들을 향해 돌아보셨다.

“그럼, 무슨 일인지 내게 말해 볼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우리는 그냥 노닥거리고 있었어요.” 토마스가 말했다. “라이트 선생님은 참견꾼이에요.”

나는 참견꾼이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아마도 그 말은 호루라기를 갖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 부르는 호칭인가 보다.

“라이트 선생님은 단지 자기의 일을 했을 뿐이야.” 브리즈번 선생님은 말씀하셨다. “선생님은 풀이 너를 땅위로 들어 올렸고, 넌 소리를 질렀다고 하셨어.”

“토마스가 내게 하라고 말했어요!” 풀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의 볼은 빨갭게 상기되었다.

“그 말은 토마스가 너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는 거니?” 브리즈번 선생님이 물으셨다.

“예.” 풀이 대답했다.

브리즈번 선생님은 입술을 오므리고 발로 바닥을 툭툭 쳤다. “왜 그렇게 했니, 토마스?”

토마스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장난이라고 생각했어요.”

“장난?” 브리즈번 선생님은 놀라신 것 같았다.

“토마스는 항상 내 키가 크다고 놀렸어요,” 폴은 아주 측은해 보였다. “토마스는 항상 내가 그런 행동을 하길 원해요. 그래서 그가 말했어요, ‘장담 کن데 넌 나를 들어 올릴 수 없을 거야.’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는 저를 부추겼어요. 그래서 그를 들어 올렸던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 말이 사실이니, 토마스?” 브리즈번 선생님이 물으셨다.

“예, 선생님. 그게 전부예요.” 토마스가 대답했다.

브리즈번 선생님은 폴을 바라보셨다. “너는 친구를 들어 올리는 것이 좋은 생각인 것 같니?” 선생님이 물으셨다.

“아닌 것 같아요.” 폴이 대답했다.

다음은 토마스의 차례였다. “너는 사람들을 부추기는 것이 옳은 생각인 것 같니?” 선생님이 물으셨다.

“아마 아닐 거예요,” 토마스는 말했다. “우리는 그냥 노닥거리고 있었어요.”

“더 이상 그렇게 노닥거리지 마라.” 선생님은 말씀하셨다. “만약 이와 같은 문제가 더 생기면 너희 부모님께 전화해야 할 거야. 알아들었니?”

두 소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은 그들에게 악수를 하게 했을 뿐, 그들을 교장실로 보내지는 않았다. 휴우!

선생님은 툭 폴을 밖으로 내보냈지만, 토마스 티 트루는 잠시 더 남게 하셨다.

“네가 폴의 큰 키에 대해 말하는 것을 그는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구나.”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그건 정말 멋져요. 그는 실제로 거인이예요!” 토마스는 말했다.

“제발 과장하지 마라, 토마스. 폴은 그냥 나이에 비해 키가 큰 것뿐이야. 우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사람들을 대하라는 규칙을 기억하니?” 브리즈번 선생님이 물어보셨다.

“예, 선생님.”

“폴의 키에 대해 말하지 않으면서 그와 친구가 되려고 노력해봐. 이 말에 동의

하니?”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동의해요.” 그는 말했다.

브리즈번 선생님은 토마스와 악수를 하고 그를 식사하러 보냈다.

토마스가 나가자 브리즈번 선생님은 오그와 나를 향해 돌아보셨다. “그건 그렇고, 나도 점심을 먹을 수 있을 것 같구나.”

하지만 선생님이 책상 서랍에서 도시락 가방을 꺼냈을 때, 라이트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오셨다.

“두 소년들은 어디에 있죠?” 선생님이 물으셨다.

“문제는 해결되었어요.” 브리즈번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라이트 선생님은 그 대답이 맘에 들지 않았다. “그들은 벌을 받았나요?” 하고 물으셨다.

“그건 전부 해결되었어요.” 브리즈번 선생님은 말씀하셨다. “난 지금 점심 먹으러 갈 거예요.”

선생님은 도시락 가방을 들고 라이트 선생님을 지나 문 밖으로 나가셨다.

라이트 선생님은 고개를 가로저으시며 교실에 혼자 서 계셨다. 나는 선생님이 호루라기를 부실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그냥 나가버리셨다.

“오그, 라이트 선생님이 참견꾼이라고 생각해?” 이웃과 단 둘이 남게 되었을 때 물었다.

“평!” 오그는 대답했다.

휠체어 뒷바퀴로 달리기, 부추김, 교실의 낯선 학생들에 대한 생각으로 머리속이 복잡해진 나는 몸을 분주하게 움직이려고 바퀴위에서 짹짹 뛰었다.

결국 이 반은 세상에서 최악의 학급이 될지도 모른다.

가을이여, 오, 가을이여,
모두가 분주할 때,
너무도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니,
나는 당혹감을 느끼네.

험프리의 교칙: 여러분의 몸을 분주하게 움직여라.
그러나 참견꾼⁷⁷⁾이 되지는 마라.

77) 참견꾼: busybody, 'body를 busy하게 움직이되, busybody되지는 마라.'는 말장난으로 보인다.

9. 최악의 학급은 호전되지 않는다.

지각. 이 글자는 내가 자주 들어보지 못했던 단어이다. 그러나 그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 늦게 도착함.

만약 지각하게 되면, 지각생은 사무실에 가서 교실로 들어갈 수 있는 서류 한 장을 받아와야 한다.

올해 나는 지각이라는 단어를 작년보다도 더 자주 들었다. 옛 친구들은 몇 명이 아주 가끔 지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주로 버스가 늦게 도착했을 때뿐이었다.

그러나 허리 업 해리는 자주 지각을 했다.

그는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정도 (간신히) 정각에 도착했지만, 수요일에는 너무 늦어서 브리즈번 선생님이 그를 결석처리 하셨다. 해리는 교실로 들어오면서 브리즈번 선생님께 종이 한 장을 건네었다.

“좋아. 해리 얼른 네 자리로 가거라.”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제 잘못이 아니에요.” 그는 말했다. “이것은 엄마가 주신 편지예요. 여기에 알람이 울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적혀있어요.”

해리는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내어 선생님께 드렸다. 선생님은 얼른 그 편지를 읽어보시고 그를 자리로 돌려보냈다.

해리는 곧바로 가지 않았다. “우리는 전에 학교 근처에 살았어요.” 하며 말을 시작했다. “그때는 걸어서 다녔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엄마가 저를 여기까지 태워다주시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브리즈번 선생님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이 해리를 쳐다보았다. 어느 것도 선생님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다.

“이 일로 제가 이번 주말에 험프리를 데려갈 수 없나요?” 해리가 물었다.

“해리, 우리 그 문제에 대해 나중에 얘기하자.” 브리즈번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오그, 그건 정말 해리의 잘못이 아니었어. 그렇지?” 친구들이 수학문제를 풀고 있는 동안 이웃에게 물었다. 나도 수학문제를 풀고 있어야 했지만, 숫자에 관한 문제들보다도 해리의 문제에 더 몰두하고 있었다.

오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냥 물속에서 느긋하게 침병거리기만 했다. 그

가 허리 업 해리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하는지 확실히 알 수 없었다.

~ * * * * ~

그날 밤, 알도는 교실에 들어오자마자 길고 우아한 동작으로 빗자루질을 하기 시작했다.

“아직도 우린 생물학 시간에 너희들에 대해 더 배우고 있어.” 알도가 말했다. “양서류와 포유류에 관한 거야.”

“뭘 배웠어, 알도?” 궁금해서 물었다.

“포유류들은 어미로부터 태어나고 양서류들은 알에서 부화해.” 그는 말했다.

나는 하마터면 나뭇가지에서 떨어질 뻔했다. “이크!” 짹짹거렸다.

오그는 알에서 나왔다고? 병아리처럼?

“물론, 개구리들은 알에서 부화하고 나면 작고 귀여운 올챙이가 돼.” 알도는 계속해서 말했다.

올챙이가 뭘지 잘 몰랐지만, 그래도 귀여운 오그를 상상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알도는 빙그레 웃었다. “새들은 알에서 나오고 파충류도 그래.” 그의 말은 계속 이어졌다. “하지만 새들은 깃털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어류는 비늘과 아가미를 갖고 있지.”

갑자기 내 배가 이상야릇하게 느껴졌다. 아가미와 깃털, 그리고 비늘과 알. 나는 우리 모두가 그냥 동물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우리는 정말 많이 닮았어.” 알도가 말했다. 알도는 청소를 마치고 책상과 의자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놀라서 물었다.

내 머리는 혼란스러웠다. 오그는 알에서 나왔다. 오그는 냉혈동물이고 귀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다른 것처럼 보였다.

“그것은 생물학의 위대한 업적이라 할 수 있지.” 알도는 의자 하나를 우리 탁자 가까이 끌어당기고 저녁식사 거리를 꺼내면서 말했다. “우리는 모두 생물이야.”

그는 숨을 크고 깊게 들이쉬었다. “그리고 살아 있다는 것은 멋진 일이야, 그렇지 않니, 험프리?”

“찍찍!” 나는 긍정의 대답을 했다. 알도의 말에 반박할 수가 없었다.

알도는 케이지 창살 사이로 상추 한 조각을 넣어 주었지만, 나는 별로 배가 고프지 않았다.

갑자기 맥 선생님이 나를 26반 교실로 데려오면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다른 종을 보살피다보면 너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될 거야.”

내 생각에 그 종은 양서류를 의미했던 것 같았다.

“굉장해!” 동의의 뜻으로 찍찍거렸다.

~ * * * * ~

또 지각.

해리는 목요일에도 지각을 했다. 그날 아침에 그는 정각에 등교했지만, 점심시간이 끝나는 종이 울리고 나서 교실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모랄레스 교장 선생님과 함께 들어왔다.

“해리가 트로피 케이스를 뺏히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해리는 다른 아이들이 교실로 돌아가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고 말하더군요.”

“전 해리에게 늦었다고 말했어요.” 홀리가 말했다. (그녀는 처음에 손을 드는 것을 잊었고, 그 행동을 보고 나는 옛 친구 레이즈 유어 핸드 하이드 호퍼가 그리웠다.)

“조용해라, 홀리.” 브리즈번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해리, 정각에 돌아오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니?”

“선생님은 롱펠로우 스쿨이 전국 농구 대회에서 다섯 번이나 우승한 사실을 아셨어요?” 해리가 말했다. “그렇지만 지난 6년 동안 우승하지 못했어요.”

“해리, 난 몰랐어.”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그거 참 흥미롭구나. 하지만 넌 휴식 시간과 점심시간이 끝나면 제시간에 교실로 들어오겠다고 나랑 약속했어.”

“알아요.” 해리는 발을 내려다보면서 대답했다.

교장 선생님은 브리즈번 선생님이 이 문제를 처리하는 편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해리가 굉장히 운이 좋은 학생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교장실로 불려가서 교장 선생님이 그의 행동에 얼마나 실망하셨는지 들어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해리에게 약간 실망했다. 그는 왜 서두르는 걸 배우려하지 않는 걸까?

~ * * * * ~

“해리, 몇 시인지 알고 있니?” 오후 휴식시간이 되었을 때 브리즈번 선생님은 허리 업 해리에게 물으셨다.

해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현재 시간을 말해보라는 선생님의 질문에 그는 맞게 대답했다.

“청력검사는 받아 봤니?” 브리즈번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해리는 끄덕였다. “잘 들을 수 있어요.”

“그럼, 다른 모든 학생들은 종소리를 듣고 제 시간에 교실로 돌아오는데 넌 왜 그러지 못하니?” 선생님은 물으셨다.

그건 기회가 있다면 내가 묻고 싶었던 질문이기도 했다.

“종이 울렸을 때, 저는 우연히 트로피 케이스 옆에 서 있었어요. 전에는 한 번도 그것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해리가 말했다. “내일은 시간을 지킬게요.”

“그것은 네게 두 개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들리는구나.” 브리즈번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첫째, 너의 부모님이 시간에 맞게 너를 데려다 주지 못한다는 거야.”

“저도 알아요.” 해리는 말했다. “저의 부모님들은 시간관념이 없어요.”

브리즈번 선생님은 끄덕이셨다. “그래. 그렇지만 너는 줄을 서고 제때에 교실로 돌아오는 것을 잊고 있어.”

“저도 시간관념이 없는 것 같아요.” 해리는 말했다.

“내게 한 가지 생각이 있는데,” 브리즈번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네가 아침에 시계를 보고 부모님께 나갈 시간을 알려드리면 어떨까? 네가 늦는 것은 너의 잘못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그 정도는 네가 부모님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알겠어요.” 해리는 대답했다.

“둘째, 친구들이 줄을 서는 것을 보면 너도 그렇게 해라. 트로피 케이스가 아무리 흥미롭긴, 네가 본 재미집이 얼마나 크건 간에, 넌 책임을 져야해.”

나도 그 말에 동감했다!

“넌 이번 주말에 험프리를 데려갈 수 없을 거야. 하지만 만약에 네가 다음 주 내내 늦지 않는다면 허락할게.”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정말이에요?” 해리는 해맑은 미소를 지었다. “전 할 수 있어요!”

브리즈번 선생님은 해리에게 운동장으로 나가도록 허락하셨지만, 해리가 나간 후에도 계속 말을 하셨다. 나는 선생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셨는지, 아니면 혼잣말을 하셨는지 잘 몰랐지만 계속 듣고 있었다. (분명히 오그도 듣고 있었을 것이다.)

“전에도 느낌보들 때문에 골치가 아팠었어.”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나 해리 같지는 않았는데.”

~ * * * * ~

다음 날 나는 브리즈번 선생님이 중대 발표를 하기까지 걱정스럽게 기다렸다. 다행히도 오래 기다릴 필요는 없었다.

“폴 플레처가 이번 주에 험프리를 집으로 데려갈 거예요.”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허가서를 받았단다. 누가 널 데리러 올 거니?” 선생님이 물으셨다.

“아빠가 오세요.” 폴이 대답했다.

나는 스물 폴과 그의 집으로 가게 되어서 기뻐했다. 그도 기뻐하는 것 같았다. 사실, 남은 오후 동안 그는 푹푹이 앉아서 케이지를 자주 힐끗 쳐다보았는데, 그 행동은 그의 키가 조금 더 커보이게 했다.

“이제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험프리.” 그는 휴식시간 후에 나에게 말했다.

그러나 모두가 행복한 것은 아니었다. 해리는 약속한 대로 시간을 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황한 듯 보였다.

틀 폴은 유난히 심술이 난 것처럼 보였다.

나는 헬플 홀리도 주말동안 나를 데려가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결국 브리즈번 선생님이 매우 옳은 결정을 하셨다고 생각했다.

~ * * * * ~

스몰 폴의 아빠는 정장 차림으로 나를 데리러 오셨다. 그는 우리를 데리러 오기 위해 일찍 퇴근을 하셨다. 솔직히, 나는 극진한 대접을 받는 기분이 들었다. 플래처 씨가 케이지를 교실 밖으로 들고 나가시려고 할 때 나는 오그에게 작별 인사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월요일에 모든 것을 얘기해 줄게! 안녕!”

~ * * * * ~

플래처 가족의 집에서 플래처 씨는 내가 폴의 책상 위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게 해 주셨다. “험프리, 오랫동안 널 만나고 싶었던다.” 폴 아빠가 말씀하셨다.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내 대답이 (그들이 내 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확신하지만) 폴과 폴 아빠를 웃게 했다.

스몰 폴의 집에서 보냈던 주말은 폴의 남동생 맥스를 제외하고는 아주 조용했다. 맥스는 나를 볼 때마다 펄쩍펄쩍 뛰고, 팔로 날개 짓을 하며, 끼익 소리를 냈다. 그 행동은 맥스가 나를 좋아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맥스는 겨우 두 살이었고 폴보다도 훨씬 작았다. 때때로 폴은 남동생을 들어 올려서 안고 다녔다.

맥스에게 스몰 폴은 굉장히 크게 보였을 것이다.

플래처 가족은 내가 함께 지냈던 다른 가족들처럼 영화보기, 게임하기, 팝콘 먹기와 같은 재미있는 일들을 했다.

물론, 폴은 아주 훌륭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숙제도 했다.

일요일 오후에 폴은 맥스가 지켜보는 동안 케이지를 청소했다.

“똥!” 맥스는 양팔을 위 아래로 펄럭이고 끼익 소리를 내며 말했다.

나는 폴이 끼익 소리를 내지 않은 것에 고마움을 느꼈다.

그 후에 폴은 책상 앞에 편히 앉아서 모형 비행기 작업을 했다. 그것은 작은 날개와 거의 내 몸 크기만 한 조종석을 갖추고 있었다. 그 모형 비행기가 날아가는 느낌이 어떨지 궁금했다. 그 순간 전에 위험한 보트를 탔던 경험이 떠올라서

더 이상 모형 비행기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접착제로 붙여야 하는 수십 개의 작은 부품들이 있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폴은 그 부품들을 어디에 끼워 넣어야 하는지 전부 알고 있었다.

그가 작업을 하는 동안 나에게 말을 걸었다. 다행히 나는 매우 유능한 청자⁷⁸⁾였다.

“학급에 또 다른 폴이 있다는 것은 나의 불행이야, 험프리.” 그는 날개를 제자리에 조심스럽게 붙이면서 말했다.

폴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아무래도 그는 키가 너무 커.”

“그도 어쩔 수 없어.” 도움이 되려고 애쓰면서 짹짹 거렸다.

“너도 눈치 챘니? 개는 자기 키가 크다고 항상 뽐내.” 폴은 접착제가 마르는 동안 제자리에 놓인 날개를 조심스럽게 들고 있었다.

나는 당황스러웠다. 폴 지는 절대로 자만하지 않았다.

“그는 뽐내지 않아.” 내가 말했다.

“허풍쟁이” 폴은 중얼거렸다.

저런, 단한 번만이라도 인간이 내 말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특히 내가 도움을 주려고 애쓸 때만이라도.

“내 인생의 최악의 날은 그가 우리 학교에 왔을 때였어.” 폴은 들고 있던 날개가 고정되자 손을 놓았다.

스몰 폴은 굉장히 똑똑했지만, 그렇다고 항상 그의 말이 옳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언젠가 나만의 비행기를 설계해서 만들 거야, 험프리.” 그는 자랑스럽게 모형 비행기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것 봐. 호넷. 마하 2. 년 이게 뭔지 모를 거야. 언젠가 널 태워줄게.”

“고마워.” 하고 짹짹거렸다. “기대할게.”

~ * * * * ~

78) listener

그날 밤 나는 괴상한 꿈을 꾸었다. 이번 꿈에서 나는 폴이 나무로 만든 작은 비행기를 타고 있었다. 하늘 높이 급상승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거대한 손이 뻗어 나와서 비행기를 움켜잡았다.

나는 손으로 비행기를 잡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 얼굴은 폴 그린이었다. 툴 폴.

“키가 크면 어떤 느낌인지 이제 알겠군.” 그는 말했다.

툴 폴은 자기 팔을 들어 올려서 비행기를 날려 보냈다. 비행기는 구름 속으로 높이 더 높이 계속해서 올라갔다. 다행스럽게도 잠에서 깨어날 때까지.

내가 말했듯이 그것은 기이한 꿈이었다.

~ * * * * ~

월요일 아침에 마지막으로 끼익 소리를 내는 맥스와 작별인사를 하고 26반 교실로 돌아왔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스몰 폴은 일찍 등교했다.

켈시는 우리를 따라 들어오면서 폴의 팔에 부딪쳤는데, 그로인해 케이지가 굉장히 흔들렸다.

“조심해, 켈시.” 폴은 그녀에게 화를 냈다.

“미안!” 그녀는 말했다. “험프리는 괜찮아?”

“그래.” 힘없이 짹짹 말했다.

나는 켈시가 착한 학생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험프리와 함께 했던 주말은 어땠어?” 폴이 케이지를 창가 옆 탁자 위에 올려놓을 때 브리즈번 선생님이 물어보셨다.

“대단했어요!” 스몰 폴이 대답했다.

“넌 경험을 했으니까 폴 지에게 험프리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가르쳐줄 수 있겠구나.” 선생님이 제안하셨다.

폴은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다. “제가 그래야 해요?”

“글쎄,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브리즈번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폴 지는 새로운 학생이야. 그 애도 학급의 일원이 되고 싶을 거야.”

“생각해 볼게요.” 스몰 폴이 대답했다.

나는 그가 결심했다는 것을 그의 얼굴 표정으로 알 수 있었다.

바로 그때, 수업시작을 알리는 종이 울렸다. 허리 업 해리가 교실 안으로 들어온 후에도 여전히 종은 울리고 있었다. 그는 자기 자리에 앉아서 숨 가쁘게 헐떡거렸지만 뿌듯해하는 것 같았다.

“늦지 않았어요, 그렇죠?” 해리가 물었다.

“그렇구나.” 브리즈번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해리는 즐거워보였다. 하지만 시큰둥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스몰 폴은 전혀 즐거워 보이지 않았다.

“오그” 내가 이웃에게 짹짹거렸다. “우리 일이 아주 많아질 것 같아.”

“평!” 그도 동의했다.

험프리의 교칙: 절대 지각하지 마라 그리고 항상 학급 애완동물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비록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10. 아주 최악의 하루

그 월요일은 매우 힘든 하루였다. 작년에 26반 교실에서 우리가 겪었던 일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더 힘들었다.

우선, 토마스는 학교에 걸어오는 동안 여우를 봤다고 말했다. 하지만 브리즈번 선생님은 토마스에게 그것은 큰 개였을 거라며 나무라셨다.

브리즈번 선생님은 토마스에게 과장하지 말라고도 가르치셨다.

설상가상으로 피비는 맞춤법 숙제를 잊어버려서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피비가 안쓰러워서 나도 슬펐다.

다음은 브리즈번 선생님이 폴에게 칠판 앞으로 나와서 수학문제를 풀어보라고 하셨는데, 스몰 폴과 톨 폴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들은 앞으로 나와 서로를 노려보았다.

다른 학생들은 웃었다.

“미안, 애들아. 난 폴 지를 불렀던 거였어.” 브리즈번 선생님이 해명하셨다.

톨 폴은 얼굴이 상기되었고, 스몰 폴은 얼굴을 찌푸린 채 자리로 돌아갔다.

스몰 폴은 교실 앞에 나가서 수학 문제 푸는 것을 좋아했다. 톨 폴은 문제를 틀리게 풀어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안 좋은 상황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듯이, 켈시는 휴식시간에 무릎을 다쳐서 양호실에 가야했다.

그때 브리즈번 선생님은 좋은 묘안을 생각해 내셨다. (자주 그랬듯이) 선생님은 나를 공 안에 들여보내어 통로를 굴러다니게 두기로 결심하셨다. 아마도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그들의 문제를 잊어버릴 수 있게 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았다.

모든 인간들이 적어도 한 번쯤 햄스터의 세계관을 갖는다면 아주 재미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되면, 그들은 아마도 신발을 더 자주 빨아 신을 것이다. 신발 바닥에는 아주 지독한 것들이 달라붙어 있다. 인간들은 양말에도 좀 더 신경을 써야한다.

그들은 또한 얼마나 자주 또각또각 소리를 내며 돌아다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들이 가만히 앉아 있다고 생각할 때조차도 말이다. 교실 주위를 돌고 있을 때면, 나를 보호해 주는 그 공이 있어서 항상 기분이 좋다.

많은 위험이 있었지만 나는 계속해서 느릿느릿 굴러다녔다. 학생들은 각자 책을 읽고 있었는데 한참이 지나도록 나를 의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로지의 책상에 다가갔을 때, 그녀의 휠체어를 더 자세히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까지 그녀가 어떻게 “뒷바퀴로 달리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로지는 가까이 다가가는 나를 보고 눈에 생기가 넘쳤다.

“안녕, 험프리.” 그녀는 속삭였다.

하지만 내가 더 가까이 다가가자 홀리가 비명을 지르며 햄스터 공을 움켜잡았다. 그녀가 너무 짹짹 들어 올려서 나는 공 안에서 공중제비 하는 행동을 취하게 되었다.

“이크!” 하고 짹짹거렸다.

“무슨 일이니, 홀리?” 선생님이 물으셨다.

“험프리가 로지의 휠체어에 걸릴 뻔 했어요! 험프리가 너무 가까이 다가왔어요.” 홀리는 공을 든 채로 말했다. “그러나 지금은 제가 험프리를 들고 있어요.”

“너무 가까이 오지 않았어.” 로지가 항의했다. “나도 그를 봤단 말이야.”

“내가 보기에 위험했어.” 홀리가 말했다.

“네가 그를 낚아챈 게 더 위험해.” 로지가 대답했다. “넌 작고 가여운 험프리를 다치게 할 뻔 했어.”

내 자신이 “작고 가여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가 옳았다. 나는 다치지 않았지만 확실히 어지러웠다.

“험프리에게 다정하게 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브리즈번 선생님이 홀리로 부터 공을 건네받으면서 말씀하셨다. 선생님은 노란색 플라스틱 안을 살펴 보셨다. “괜찮니?”

나는 짹짹거렸지만 평상시보다 더 작은 소리로 대답했다.

브리즈번 선생님은 내 상태에 안심을 하시고 나를 케이지 안으로 돌려보내 주셨다.

나는 곧장 침대로 향했다. 거기서 내가 알기에 가장 안전하고 조용한 장소였다.

잠시 후에 롤링 로지가 브리즈번 선생님에게 할 얘기가 있다고 말하는 소리에

나는 살금살금 기어 나왔다.

점심시간이었기 때문에 교실은 텅 비어있었다.

“로지, 또 다시 뒷바퀴로 달리지 않았겠지?” 선생님이 물으셨다.

“네.” 로지는 대답했다. “제 도우미에 관해 드릴 말이 있어요.”

“홀리?” 브리즈번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무슨 일인지 말해볼래?”

로지는 책상 가까이 다가가서 브리즈번 선생님과 얘기했다. 오그와 나는 그들이 나눈 말을 전부 들으려고 조용히 있었다.

“전 도우미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설명했다. “전 거의 모든 일을 혼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홀리에게 더 이상 저를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음 해요.”

브리즈번 선생님은 잠시 동안 침묵하셨다. “할 수는 있어.” 마침내 그녀는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정말로 그러길 바라니?”

“예!” 로지가 대답했다. “저는 홀리가 도와주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홀리는 정도가 너무 지나쳐요. 저에게 아무 문제가 없을 때도 도와주려고 하거든요. 가끔은 그녀가 방해가 되기도 해요.”

“홀리에게 그 말을 해 봤니?” 브리즈번 선생님이 물으셨다.

롤링 로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도와줄 필요는 없다고 말했는데, 별 효과가 없었어요.”

이번에도 브리즈번 선생님은 잠시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 “나도 네가 도움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로지. 하지만 홀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구나.”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홀리가요?” 로지는 정말로 놀란 것 같았다.

“홀리는 돕는 것을 좋아해.” 브리즈번 선생님은 계속 말씀하셨다. “만일 내가 너의 뜻을 홀리에게 전한다면, 그녀는 굉장히 속상해 할 거야.”

“홀리는 다른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거예요.” 로지가 제안했다.

“홀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로지.” 브리즈번 선생님은 말씀하셨다. “내가 홀리와 말해보고 상황이 나아질지 확인해 볼게. 알았지?”

훌륭하고 노련한 브리즈번 선생님. 선생님은 정말로 학생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알고 계셨다. “자, 우리 뭐 좀 먹을까. 나도 구내식당으로 갈 거야.” 선생

님이 말씀하셨다.

그들이 교실 밖으로 나가자마자 얼른 오그에게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렸다.

“오그, 듣고 있었어?” 내 이웃이게 물었다. “헬플 홀리는 로지가 도움을 거절했다는 말을 듣게 되면, 속상해 할 거야.”

학급 햄스터라는 내 직분을 상실하게 된다면 정말로 속상할 것 같아서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평, 평, 평!” 오그도 물속에서 침병대면서 내 말에 동의했다.

~ * * * * ~

하루가 저물어 갈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만 수업이 끝나는 종이 울렸다. 학생들이 가방을 메고 있을 때, 브리즈번 선생님이 오렌지색 종이 한 장을 들고 피비에게 다가오셨다.

“피비, 네가 숙제를 기억할 수 있게 도와줄 방법이 있어.”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매일 마다 커다란 형형색색의 메모지를 가방에 넣어 줄게. 앞으로 넌 잊어버리는 일이 없을 거야. 어떻게 생각하니?”

“좋아요.” 피비가 말했다.

“그 종이에 숙제를 적었어. 네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종이를 가져오는 게 전부야.” 브리즈번 선생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피비는 끄덕이며 약속했다. “그렇게요.”

“넌 할 수 있어, 피비!” 찡찡하며 피비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때 나는 바퀴위에서 짹짹 뛰고 있었는데, 더 힘차게 속력을 내기 시작했다.

나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교실 밖을 나가는 피비의 얼굴이 그려졌다.

~ * * * * ~

방과 후에 옛 친구들 몇 명이 26반 교실에 들렀을 때는 상황이 서서히 나아지고 있었다. 레이즈 유어 핸드 하이디 호퍼와 그녀의 단짝친구 스타프 기글링 게일

모건스톤, 리핏 잇 플리즈 리치 리날디가 함께 왔다.

나는 바퀴 위에서 신나게 돌고 있었는데, 그들을 만난 것이 너무 기뻐서 하마터면 굴러 떨어질 뻔했다. (여러분은 바퀴 위에서 구르다가 갑자기 멈추지 않는 게 좋다.)

“안녕, 안녕, 안녕!” 짹짹거리며 인사했다. 오그가 심하게 침병거린 소리 때문에 그들이 내 말을 들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험프리! 제일 좋아하는 햄스터!” 하이디는 케이지로 달려오면서 말했다.

케일은 킁킁거리며 웃었다. “오그!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개구리!” 케일은 이렇게 말하면서 내 친구의 어항으로 허둥대며 달려갔다.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선생님!” 리치는 브리즈번 선생님에게 말했다.

“리치야, 고맙다.” 선생님이 대답하셨다. “그렇지만 베커 선생님께도 기회를 주면 어떨까. 베커 선생님은 훌륭한 분이셔.”

“알아요.” 리치는 말했다. “하지만 저희 학급에는 애완동물이 없어요.”

하이디는 케이지 가까이 몸을 숙였다. “올해 난 손을 아주 잘 들고 있어, 험프리.” 하이디가 말했다. 그것은 매우 좋은 소식이었다. 브리즈번 선생님과 나는 하이디의 나쁜 습관을 고쳐주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었다.

“평, 평!” 오그가 콧소리를 내자 그 소리에 케일은 큰소리로 웃었다. 케일이 킁킁거리려는 습관을 완전히 고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굳이 고치길 바라지도 않았다.

나는 작년의 친구들을 만난 것이 너무 좋아서 바퀴 위로 뛰어 올라가 빠르게 돌기 시작했다. 내 행동은 그들 모두를 킁킁 웃게 하기에 충분했다.

“계속해, 험프리!” 리치가 말했다.

그때 오그가 어항 안의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난폭하게 침병거렸다. 친구들은 일제히 오그의 행동으로 더 크게 웃었다.

“오그, 아주 멋져!” 하이디가 말했다.

“오그와 험프리가 너희들을 만나서 기뻐하는 것 같구나.” 브리즈번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오, 브리즈번 선생님, 저희는 험프리와 오그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하이디가 말했다. “그래서 선생님께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렸으면 해요.”

바퀴 위에서 뛰고 있던 나는 속도를 늦추고 귀를 기울였다.

“리치야, 네가 말해.” 게일이 말했다.

“알았어.” 리치는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짓고 목청을 가다듬었다. “브리즈번 선생님, 저희는 26반 교실에 학급동물이 두 마리나 있다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18반에는 한 마리도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베커 선생님에게 한 마리를 기부하시면 어떨까요?”

다행히도 나는 바퀴에서 뛰어내렸다. 하마터면 떨어질 뻔했다. 정말로 깜짝 놀랐다. 브리즈번 선생님도 놀란 표정을 지으셨다.

“저런! 우리 반 학생들이 좋아할 것 같지 않구나.”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만약에 베커 선생님이 학급동물을 원하신다면 직접 구하실 거야. 그런데, 선생님이 원하실 것 같지가 않구나.”

“베커 선생님도 험프리카나 오그를 좋아하실 거예요! 모두가 그래요.” 게일이 말했다.

“그리고 오그는 다른 학급에서 여기로 왔잖아요.” 하이디가 말했다.

“하다못해 선생님께 물어봐 주세요. 부탁이에요.” 리치가 간절하게 말했다.

브리즈번 선생님은 평소와 달리 조용하셨다. 나도 그랬다. 그리고 오그의 평하는 소리나 침병거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제발요.” 게일의 표정이 너무도 심각해 보여서 순간 그 말이 게일의 입에서 나왔다고 믿을 수가 없었다.

“제발요.” 하이디도 말했다.

마침내, 브리즈번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솔직히 말하면, 험프리카와 오그를 갈라놓을 생각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 그들이 서로를 그리워할 것 같지 않니?”

하이디와 게일은 서로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들이 항상 같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험프리카는 처음에 혼자였잖아요.” 리치가 말했다.

내 의견을 말해야 했다. “그렇지만 밤에는 너무나도 외로웠어. 무섭기도 했고!”

텅 빈 교실에서 짹 짹 거리는 시계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가까이에서 침병거리는 누군가도 없는 밤은 얼마나 길었는지 거의 잊고 있었다.

“평, 평!” 오그도 동의했다. “평, 평, 평!”

물론 그것은 케일을 킬킬 웃게 만들었다.

브리즈번 선생님도 웃으셨다. “저기,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게. 학급동물에 대해 베커 선생님과 얘기를 해볼 수도 있어. 하지만 험프리와 오그를 떼어 놓는 것은 좋은 생각 같지 않아.”

“고마워요, 브리즈번 선생님. 우린 정말 그들이 그리워요.” 리치가 말했다.

학생들은 선생님과 좀 더 얘기를 나누다 보니 집으로 갈 시간이 되었다.

그들이 나간 후에 브리즈번 선생님은 케이지 가까이에 몸을 숙이고 나를 바라 보셨다.

“실은, 너와 오그의 도움 없이 혼자서 가르치는 건 상상할 수 없어.”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이기적인 걸까?”

“아니에요, 절대로!” 목청껏 짹짹거렸다.

브리즈번 선생님은 빙그레 웃으셨다. “알린 베커가 학급동물을 원할 것 같지 않아. 너 조차도 말이야.”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고마워요.” 짹짹 말했다. “그렇게요.”

그러나 나는 걱정이 되었다. 아주 많이. 그리고 오그가 앞에서 부화했고 냉혈 동물이라 해도 그 역시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험프리의 교칙: 실제로 지나친 도움을 줄 수도 있다.

11. 브리즈번의 친구들

걱정했다고? 내가 걱정했다고 했나? 실은 그 보다 더했다. 나는 걱정하고, 걱정하고 또 걱정했다. 정말 걱정했다!

“오그!” 교실에 우리만 남게 되었을 때, 나는 말했다.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는지 너 알겠니?”

“평, 평, 평, 평, 평!”

됐다, 정말로 오그는 알고 있었다.

“그게 좋은 생각인지 잘 모르겠어.” 나는 말했다. “내 말은, 옛 친구들이 보고 싶다는 거야.”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씩 아팠다. “그들이 하루 종일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싶어.” 계속 말을 했다.

“평!” 오그가 응답했다. 그는 계속해서 내 말에 동의했다.

“그런데 브리즈번 선생님은 어때? 난 그녀도 보고 싶을 것 같아.” 나는 말했다. “그리고 미스 베커란 사람은 사실 동물들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 포유류든 양서류든 말이야. 아마 어류도 마찬가지일걸.”

내가 아주 좋아하는 도서관 어항 속에 물고기들이 있었다.

“처음엔 새로운 학생들이 조금 이상하게 보였지만, 제법 착한 것 같아. 난 개네들을 위해 계획을 세우는 중이야. 우리 중에서 누가 없어진다면 그들도 속상해하지 않을까?” 내 머리 속은 햄스터 공처럼 빙빙 돌고 있었다. “그리고 브리즈번 선생님이 우리가 없는 수업은 상상할 수도 없다고 했던 말도 잊지 마. 그녀에겐 우리가 꼭 있어야만 해, 오그!”

“평!” 오그는 어항 속 깊이 멎진 폼으로 뛰어들면서 말했다.

“그래서, 선생님은 안 된다고 하실 거야.” 나는 말을 끝냈다. “그렇지?”

~ * * * * ~

“리치가 내게 전화로 자기의 바보 같은 생각을 말하더라.” 그날 밤에 알도는 책상 위의 먼지를 닦으며 말했다. “너희들 가운데 한 마리를 18반 교실로 옮긴다

고 생각해봐. 그건 말도 안 돼! 내가 그에게 그렇게 말했어!” 그가 빠른 손놀림으로 먼지를 털어낼 때 책상들은 위 아래로 들썩거렸다.

“네가 옳다고 생각해, 알도.” 그의 말에 짹짹하며 맞장구를 쳤다. “하지만 날마다 리치를 보게 되는 것도 좋을 거야.”

“만약 미스 베커가 학급 애완동물을 원한다면, 자기가 직접 데려와야 할 거야.” 알도가 말했다. “자기 집을 원하는 다른 햄스터들과 개구리들이 많으니까.”

나는 갑자기 펫 오 라마에서 보냈던 어린 시절을. . . 그리고 편안한 자기 집을 원하는 햄스터들, 기니피그들, 쥐들, 들쥐들, 친칠라들을 떠올렸다. (나는 거기서 개구리를 본 적이 없었다. 양서류들은 모두 다른 구역에 있었던 것 같다.)

“네 말이 맞아, 알도!” 나는 케이지 꼭대기로 올라가면서 소리쳤다. “리치에게 그렇게 말해!”

놀랍게도, 알도는 하던 일을 멈추고 웃었다. “아직도 그 아이들은 너와 오그를 좋아해.” 그가 말했다. “나는 그 애들의 그런 행동을 비난할 수 없다고 생각해.”

나도 그들의 행동을 비난할 수 없었다.

~ * * * * ~

알도가 일을 마치고 나가자, 나는 오그가 물 위에 가만히 떠있는 채로 아주 약하게 침병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내 머리 속은 아직도 복잡했다. 나는 26반의 새로운 학생들과 그들의 문제들에 대해 걱정했다. 그들은 오그와 내가 들어서 자기네들을 도와주길 바라지 않을까?

브리즈번 선생님도 걱정이 되었다. 선생님은 이기적이지 않았다. 단지 사실을 말하고 있었다. 우리가 자기를 도와주길 원했던 것이다.

그 밖의 다른 것들도 걱정이 되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종이라고 해도, 나는 온혈동물이고 오그는 냉혈동물이라고 해도, 나에게는 털이 있고 그에게는 없다고 해도. . . 우리가 헤어지게 된다면 나는 그를 보고 싶어 할 것이다.

그도 나를 그리워하길 바라며 행운을 빌었다.

나는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에 옛 친구들이 수업 중에 무엇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18반 교실에 가보기로 결심했다. 지난번에는 천둥 때문에 서둘러 나와 버렸다.

오그는 유난히 조용했다. 그가 잠을 자고 있을 수도 있어서 (나는 그것에 대해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잠겨 있지 않은 자물쇠를 조용히 열고 소리 나지 않게 탁자 다리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그리고 바닥을 가로질러 쏜살같이 달려가서 문 아래로 나와 오른쪽으로 돌았다. 20반 교실에 도착해서 왼쪽으로 돌아오니 바로 거기에 18반 교실이 있었다.

얼른 교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생소해서 그런지 배속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벽에는 멋진 장식들이 달려 있었는데 대체로 단정하고 깔끔했다. 집처럼 느껴진 것은 아니었다. 커크와 에이제이처럼 모든 친구들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면 좀 더 친숙한 느낌이 들었을 것이다.

문제는 너무나 조용했다는 것이었다. 침병거림도 없고. 콧소리도 없고. 밤에 이야기 상대도 없었다.

창가의 탁자 위에는 케이지나 어항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 같았다.

나는 문 아래로 나와 20반 교실에서 오른쪽으로 돌았다.

다른 교실들을 황급히 지나가고 있을 때, 오그와 내가 헤어지더라도 밤에 그를 만나러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에게 베키 선생님의 학급 문제에 대해 전부 이야기 해 줄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내가 26반 교실에서 일어날만한 일들을 생각해본다면 평소에 “핑” 하는 오그의 소리가 전부일 것이다.

26반 교실에 다가갔을 때 엄청난 굉음이 들려왔다.

“끼이이익, 끼이이익!” 그 소리는 오그의 알람 콜이었다. 뭔가 크게 잘못되었구나!

나는 문 아래로 들어가서 교실을 가로질러 힘껏 달려갔다!

“끼이이익, 끼이이익!”

“오그, 나 왔어! 무슨 일이야?” 나는 물었다.

오그가 갑자기 침묵했기 때문에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내가 아주 조용히 26반 교실을 나갔기 때문에,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오그는 내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영문을 몰라 걱정이 되었던 것이었다.

“미안해, 오그. 난 확인해 보고 싶어서 18반 교실에 갔었어.” 나는 설명했다.

탁자 앞에 도착해서 블라인드 줄이 늘어져 있는 것을 쳐다보았다. 탁자 위로 돌아가기 전에는 항상 긴장이 되었다. 나는 줄을 붙잡고 발이 탁자 위에 닿을 때까지 점점 더 높이 흔들고 나서 손을 놓았다. 또 다시 오그의 어항까지 미끄러졌다.

“걱정을 끼쳐서 미안해.” 그에게 말했다.

“평!” 오그는 대답했다. 지금 오그의 목소리는 훨씬 더 차분하게 들렸다.

일단 케이지로 돌아오고 나니 그렇게 슬프지 않았다. 적어도 이제는 오그와 내가 헤어지더라도 오그가 나를 보고 싶어 할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거울 뒤에서 노트를 꺼내어 마음속의 느낌을 글로 옮겼다.

가을이여, 오, 가을이여,
나날이 변화를 불러오네.
가을이여, 오, 가을이여,
나는 떠나고 싶지 않네!

~ * * * * ~

남은 주일동안은 시를 쓸 시간이 없었다. 26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쫓느라 정신없이 바빴다. 정말로, 엄청나게 많았다!

브리즈번 선생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비는 또 숙제를 잊어버렸다.

“네 가방에 들어있던 메모는 어떻게 했니?” 브리즈번 선생님이 물으셨다.

“가방 안을 들여다보는 걸 깜빡했어요.” 그 소녀는 잘못을 인정했다. 나는 그녀가 또 울음을 터트릴 거라고 생각했다.

브리즈번 선생님은 한숨을 쉬셨다. “너의 할머니께 전화를 드려야 할 것 같구나.”

그 말은 피비를 혼란에 빠뜨렸다. “오, 제발, 안돼요! 할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요. 약속할게요. 더 잘할게요!”

“그럼, 좀 더 지켜볼게.” 브리즈번 선생님은 눈감아 주었다. 하지만 아슬아슬한 상황이었다!

어느 휴식시간에 브리즈번 선생님은 로지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스스로 결정하게 두면 어떨지 헬플 홀리와 얘기를 나누셨다. 홀리는 그 말을 듣고 흔쾌히 받아들였다. 하지만 홀리는 폴링 로지의 휠체어를 밀어주려고 하거나 다른 학생들에게 비키라고 말하면서 몇 번이나 로지를 짜증나게 했다.

어느 오후에 토마스가 외투 보관실에서 달려 나와 자기 손만큼 큰 벌레가 있다고 말했을 때 브리즈번 선생님은 화가 난 듯 보였다.

“이크!” 나는 짹짹거렸다.

그러나 벌레는 결국 무해한 파리로 밝혀졌다.

그 날 방과 후에 맥 선생님이 이야기를 나누러 잠시 들렀다. 그녀에게도 문제가 많았다.

“험프리, 네가 옆에 있다면 1학년을 가르치는 것이 훨씬 쉬울 거야. 그러나 난 브리즈번 선생님께 너를 달라고 말할 수가 없구나.” 선생님은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선생님에게 항의하는 것은 공손한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 에이제이와 리치가 나와 오그 중에서 한 마리를 18반 교실로 보내 달라고 브리즈번 선생님을 설득하러 왔다.

“너도 우리가 보고 싶지, 그렇지?” 리치는 관대하게 케이지로 약간의 건포도를 밀어 넣으며 나에게 물었다.

“그래!” 나는 짹짹 대답했다.

“넌 18반 교실에서 지내는 게 더 나을 거야, 그렇지?” 에이제이가 특유의 큰 목소리로 말했다.

“글쎄.” 나는 중얼거렸다.

나는 18반 교실로 옮기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브리즈번 선생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도 알 수 없었다. 선생님은 틈만 나면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었다.

휴식시간에 선생님은 카드를 들쭉 짝을 지어 책상 위에 배열하고 중얼거리셨다.

선생님은 방과 후에 남아서 중얼거리며 카드들을 옮겨놓았다. 나는 선생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들을 수 있었다. “아마도 그것은 그녀에게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이 둘은 잘 협력할 거야” 와 같은 것들이었다.

나는 특히 교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관해서 호기심이 많은 햄스터이다. 어느 날 밤, 브리즈번 선생님이 카드들을 책상 위에 두고 나가시는 것을 보고 나는 그 카드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다. 그것들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알도가 그날 밤에 청소를 마칠 때까지 감히 케이지 밖을 나가지 못하고 있었다.

“안녕, 설치류와 개구리. 영장류가 하는 인사야!” 알도가 청소하러 들어오면서 말했다.

“영장류가 뭐야?” 나는 물었다.

알도는 천을 꺼내어 책상의 먼지를 털어냈다. “영장류는 인간들이 속하는 포유류의 집단이야. 설치류는 햄스터들이 속하는 포유류의 집단이고. 난 네가 이미 오그는 개구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 그는 설명했다. “많은 종류의 개구리들이 있어. 그들은 그들만의 전체 집단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 세상에 햄스터보다도 더 많은 개구리들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것을 상상해 보라!

알도는 선생님의 책상에서 먼지를 털기 시작했다.

“안 돼, 안 돼, 안 돼!” 나는 짹짹거렸다. 브리즈번 선생님은 그 카드들을 배열하는데 아주 공을 들이셨다.

“앗!” 알도가 말했다. “브리즈번 선생님의 책상 중앙에 뭔가 있네.”

그는 카드들을 더 자세히 보았다. “그녀는 여기에 뭔가를 계획한 것처럼 보여. 브리즈번의 벗들⁷⁹⁾!”

브리즈번의 벗들? 나는 여태껏 그것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알도는 카드를 그대로 두고 바닥을 닦았다.

그는 일을 마치고 저녁을 먹으며 우리와 얘기를 나누었다.

“마리아에게 브리즈번 선생님의 교실을 청소하게 되어 운이 좋다고 말했어.” 알도는 샌드위치롤 아삭아삭 씹으며 말했다. 마리아는 알도의 아내이면서 내 특별한 친구였다. “브리즈번 선생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 가르치는 것에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얻고 있어.” 그는 덧붙여 말했다.

알도는 나에게 작은 당근 조각을 주었고, 오그의 어항 속에 프로기 푸드 스

79) Brisbane's Buddies

틱80)을 조금 떨어뜨리고 밖으로 나갔다. 그는 사려 깊은 친구였다.

또 다시 오그와 나 둘만 남았을 때, 그 카드들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다.

“브리즈번의 벳들!” 나는 말했다. “오그, 그건 뭐라고 생각하니?”

오그는 물속에서 느긋하게 침범거렸다. 그도 분명히 모르고 있었다.

“지금부터 나 혼자서 알아낼 거야.” 나는 말했다.

나는 케이지의 문을 활짝 열고, 탁자 가장자리로 총총 달려가서 블라인드 줄을 타고, 미끄러져 내려갔다.

브리즈번 선생님의 책상에 도달하기는 쉬웠다.

하지만 브리즈번 선생님의 책상 위로 올라가기란 무척 어려웠다. 사실, 의자 다리들 사이에 작은 봉이 없었다면 아주 불가능할 수도 있었다. 나는 그것이 “발걸이”라고 불린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에게 이유는 묻지 말기를.

의자에 올라가려면 손잡이를 움켜잡고, 몸을 곧추세우고, 단계적으로 온 힘을 다해 할 수 있는 만큼 높이 도달해야 했다. (나는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힘이 강하다.)

그 다음에 나는 발걸이 위에서 균형을 잡으며 다시 몸을 곧추세우고 의자 위로 높이 올라가야 했다.

숨을 돌리기 위해 잠깐 멈추고, 한 번 더 의자 팔걸이까지 몸을 곧추세우고, 올라가서 쉬었다.

다행히, 브리즈번 선생님은 항상 의자를 책상 아래로 밀어 넣어 두셨기 때문에 의자 팔걸이에서 책상 위까지 몸을 곧추세우기는 별로 어렵지 않았다.

나는 간절히 카드를 손에 넣고 싶었지만, 움직이는 아키의 햄스터 공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자세히 살펴보았다. 아키가 움직이고 있을 때, 바로 가까이에서 그를 보았다. 지금은 아주 조용했다. 사실 아키는 햄스터와 전혀 닮지 않았다. 그의 털은 윤기가 없었고, 나처럼 황금색도 아니었고, 그의 눈은 생기가 없는 플라스틱 조각이었다. 그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카드에 신경 쓰기로 결심했다. 큰 카드 한 장에 ‘미세스 브리즈번의 벳들’

80) Froggy Food Sticks

이라고 쓰여 있었고, 나머지 카드들은 둘씩 짝을 지어 늘어져 있었다. 각각의 카드에는 학생 이름이 적혀있었다. 각각의 쌍에는 다르게 쓰인 라벨이 붙여 있었다.

“오그, 이것은 게임처럼 보여!” 내 친구에게 짹짹하며 말했다. “확인해 볼게.”

나는 여러 개의 줄로 늘어져 있는 카드 주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글자를 읽었다. 선생님의 보조들, 조장들, 숙제 거둬올 학생들.

“오그, 이걸 학급 일들이야!” 나는 말했다. “브리즈번 선생님은 모든 일에 두 명씩 짝을 지어서 함께 일하게 하시려나 봐. 좋은 생각 같지 않니?”

“평, 평!” 오그는 콧소리로 말했다.

“게시판 디자이너들 . . . 아, 이거 들어봐. 동물 조련사들” 나는 그에게 말했다.

“평, 평, 평!” 오그는 어항 안에서 크게 침뿜거리며 대답했다.

브리즈번의 벳들의 의미를 알게 된 나는 그녀가 짝을 지은 이름들을 읽기 시작했다.

“폴 지와 켈시, 토마스 와 피비, 홀리와 로지. . .” 나는 갑자기 중단했다. 브리즈번 선생님은 열심히 일을 하셨다. 하지만 나에게 몇 가지 생각이 있었다. 학급 햄스터로서 내 임무는 선생님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선생님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도움이 필요했다.

“오그, 난 아주 약간의 변화를 줄 생각이야.” 나는 친구에게 설명하면서 조심스럽게 카드들을 옮겨 놓기 시작했다.

사실 인간에게 이 카드는 작게 보이지만, 작은 햄스터들에게는 거대한 카드로 보인다. 그래서 카드들을 옮겨서 일렬로 배열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나는 이 일에 몰두하고 있어서 뒷걸음질 치다가 실수로 아키의 햄스터 공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때까지 아키에 대해 까맣게 잊고 있었다. 내가 스위치에 부딪쳤는지 불빛이 번쩍이고 공이 책상 주위를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춤추는 아키! 로큰롤 댄스!” 공은 거칠게 회전했다.

“멈춰, 아키!” 나는 짹짹거렸다. 그 순간 그는 진짜 햄스터가 아니라는 사실이 생각났다.

공은 빙글빙글 돌며 카드 위를 가로질러 가다가 속도가 느려졌다.

쿵 쿵 쿵!

낮에 친구들 앞에서 아키는 아주 신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금 아키의 햄스터 공은 자제력을 잃고 흔들거리며 굴러다니고 있었다! 공은 두 번이나 책상 가장자리 가까이에서 위험하게 돌았다. 만약 그 공이 떨어진다면, 영원히 부서져 버릴 것이고 브리즈번 선생님은 크게 화를 내실 것이다.

그 공을 멈추게 할 방법이 있어야 했다. 나는 공이 굴러갈 때 전원 단추를 볼 수 있었지만, 가까이 다가갈 때마다 공은 멀리 굴러가 버렸다.

그때 근처에 연필 몇 자루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공이 굴러가지 못하게 하려고 열린 공 양쪽으로 연필을 미끄러뜨렸다. 성공이었다! 공은 제자리에 멈춰 섰지만, 불빛은 여전히 빛났고 음악도 계속 흘러나왔다. “춤추는 아키!”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나는 커다란 버튼을 커짐에서 끄기로 전환시켜야 했다.

“오그, 걱정하지 마! 꺼볼게!” 나는 짹짹 말했다. 시끄러운 음악소리 때문에 오그가 내 말을 들을 수 없었겠지만.

어떻게 하면 공에 접근할 수 있을지 잘 몰랐다. 하지만 학교를 탐험하고 바퀴 위에서 돌고 블라인드 줄을 잡고 흔들 수 있다면, 분명히 버튼에도 닿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달려가서 버튼 위로 점프했다. 전에 텔레비전 쇼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카우보이들은 날뛰는 야생마를 타고 내동댕이쳐지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공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여전히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었다.

“야호!” 나는 텔레비전 쇼의 카우보이들처럼 소리를 질렀다.

플라스틱은 미끄러웠지만 발을 짚고 버튼 가까이 접근했다.

“올라타, 카우보이!” 나는 공이 흔들거리며 굴러갔을 때처럼 고함쳤다.

“춤추는 아키!” 음악은 흘러나왔다.

내가 힘껏 버튼을 누르자 그 버튼은 앞으로 움직였다. 음악과 불빛은 곧 멈추었다. 나는 멈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책상위로 미끄러져 떨어지고 말았다.

“아야! 괜찮아, 오그! 부러지지 않았어.” 나는 말했다. “적어도 내 생각엔 그

래.”

나는 숨을 돌리며 공 안에서 흐리멍텅한 눈으로 똑바로 앞을 응시하고 있는 작은 햄스터를 살펴보았다.

“안됐어, 친구.” 나는 말했다. “도와주려던 것뿐이야.”

~ * * * * ~

당연히 나는 아키가 어지럽힌 카드들을 정리하기 위해 좀 더 시간을 할애해야 했다.

내가 케이지 속으로 돌아왔을 때쯤 교실은 환하게 밝아 있었다. 곧 브리즈번 선생님과 낯선 학생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들은 내 흥미진진한 모험에 대해 알지 못할 것이다. 아마도 학급 햄스터가 되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이룬 일들을 그들이 모른다고 할지라도, 내 일을 훌륭하게 해냈다는 것에 스스로 만족했다!

오그도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

험프리의 교칙: 학급에서 어떤 일을 할당받았든 간에, 항상 최선을 다하라. 그 일이 너를 완전히 녹초가 되게 하더라도!

12. 똑딱 똑딱

금요일 아침에 나는 피곤함과 불안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브리즈번 선생님이 전날 밤에 내가 카드를 뒤섞어 놓은 것에 화를 내실 것 같아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해리에 대해서도 걱정이 되었다.

일주일 동안 나는 매번 종이 울릴 때마다, 허리 업 해리가 지각하지 않을까 불안해하며 숨죽이곤 했다.

해리는 약속을 잘 지켰다. 하지만 목요일에 해리는 그의 엄마가 차 열쇠를 찾을 수 없어서 지각을 했다. (열쇠는 식탁 밑에 있었다.)

나는 해리의 지각이 약속을 어긴 것에 해당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이번 주말에 누구의 집에 갈 것인지도 아직까지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브리즈번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다른 일들에 대해 까맣게 잊고 있었다. “여러분, 새로운 학급 일을 전달할게요.”

선생님은 브리즈번의 벗들과 학생들이 짝을 지어 어떻게 일하게 될 것인지를 설명하셨다. 그리고 각각의 일에 대해서도 설명하셨다. 선생님은 각자의 일을 공유하게 될 학생들의 이름을 읽기 시작하셨다.

“숙제를 거두게 될 학생들은 로지와 피비.” 브리즈번 선생님은 놀라신 것처럼 보였지만, 나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다. 전날 밤에 내가 피비의 이름을 옮겨 놓았었다.

헬플 홀리는 손을 들었다. “제가 그 일을 로지와 해야 한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아니.” 브리즈번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널 위해 다른 일이 있어, 홀리. 그냥 계속 들어보렴.”

홀리는 실망한 것처럼 보였지만 브리즈번 선생님은 계속하셨다. “동물 조련사는 조이와 켈시.”

또 한 번 브리즈번 선생님은 놀라신 것 같았다. 나는 비 케어플 켈시가 자신에게 신경 쓰기보다는 동물들을 더 잘 돌보기를 바랐다.

조이와 켈시는 모두 흥분한 것처럼 보였다.

“그건 정말 잘한 일이야.” 나는 오그에게 말했다.

“평, 평!” 그도 동의했다.

“출입문과 줄서기 감시자⁸¹⁾는 . . .” 브리즈번 선생님이 잠시 중단하셨다. 선생님은 이 명단이 자기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지만 계속해서 읽으셨다. “해리와 사이먼.”

나는 슬로우 다운 사이먼과 허리 업 해리가 짝이 된 것이야말로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다. 적어도 그러길 바랐다.

브리즈번 선생님은 계속 읽으셨다. 나는 선생님이 다음 내용은 무시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선생님은 명단을 읽으시고 정말로 만족하시는 것처럼 보였다. “게시판 디자이너는 폴 지와 폴 에프.”

두 명의 폴은 만족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행운을 빌며 내 계획이 효과를 발휘하길 바랐다.

선생님이 마지막 명단을 읽었을 때, 단 두 명만이 남아 있었다.

“이 일들은 한 사람의 몫이야.”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토마스, 너 학급 리포터가 되는 거야. 그것은 우리의 일과를 매일 학급 일지에 기록하는 일이야.” 선생님은 설명하셨다. “우리가 공부한 것, 누가 참여했는지, 심지어 온도는 몇 도인지를 과장하지 말고 쓰는 거야, 알았니?”

“좋아요!” 토마스는 선생님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말했다.

“홀리, 너 선생님을 도와줘야겠구나. 메모를 사무실로 가지고 가는 일에서 전화를 받거나 칠판을 닦는 일까지, 내가 뭔가를 해야 할 때 너에게 요청할게. 그 일을 할 수 있겠니?”

헬플 홀리는 그렇다고 했다.

그 날이 끝나갈 무렵, 브리즈번 선생님은 또 다른 발표를 했다. 드디어 허리 업 해리가 나를 주말동안 집으로 데려 가게 되었다.

“냅!” 해리는 큰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운이 좋은 날이야.”

나도 행운의 날이 되기를 기대했다.

지난밤에 카드를 바꿔놓은 일 때문에 굉장히 피곤했지만, 학급 햄스터는 가끔씩 밤낮으로 일을 해야 한다. 나는 몹시 허리 업 해리의 집에 가서 그의 가족을

81) Door and Line Monitor

만나보고 싶었다.

그러나 해리 엄마가 늦게 우리를 태우러 오셨기 때문에 잠시 동안 기다려야 했다.

그래, 또 다시 . . . 나에게 적합한 일을 찾았어.

~ * * * * ~

해리 엄마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 해리 여동생 수지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놀라지 않았다. 해리도 매우 착한 학생이었다. 하지만 해리는 자주 늦었다. 나는 그 이유를 찾고 싶었다.

나는 이토 가족의 거실 탁자 위에 자리 잡았다.

“멋진 마우스⁸²⁾” 수지가 케이지 가까이 다가와서 말했다.

“멋진 햄스터야.” 나는 정중하게 그녀의 말을 정정해주었다.

“마우스!” 그녀는 케이지 주위를 빙빙 돌면서 말을 했기 때문에 나는 약간 어지러웠다.

“그는 햄스터야.” 다행히도 해리가 그녀의 발음을 바로잡아 주었다.

수지는 다시 빙빙 돌았지만, 이번에는 “햄서터!!” 라고 발음했다.

적어도 그 발음은 “마우스” 보다 훨씬 더 비슷하게 들렸다.

주로 내가 학생의 집에 갈 때, 가족들은 나를 책상이나 탁자 위에 올려놓고 감탄하며 바라보고 함께 놀고 나서 저녁을 먹는다.

해리의 집에서든 나는 탁자에 놓인 채 감탄을 받으며 함께 놀았다. 하지만 저녁은 아직 멀었나보다.

정확히 말하면 이토 가족에게 시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었다. 벽난로 선반 위에 커다란 금시계가 놓여 있었는데, 내가 있는 탁자 바로 맞은편에 있었다. 나는 시계바늘이 6시에서 6시 반, 그리고 6시 반에서 7시로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시계는 30분이 될 때마다 아름다운 소리가 크게 울렸다. 덩 덩! 덩 덩!

“엄마, 배고파요!” 수지가 말했다 그녀는 빙빙 돌다가 멈추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82) 수지가 발음한 마우스(mouse)는 쥐(mouse)를 발음한 것인데, 험프리가 잘못 들은 것으로 드러난다.

“미안, 아가야.” 해리 엄마가 말씀하셨다. “우리 모두가 함께 식사했으면 했어. 파스타 좀 갖고 올게.”

“파서타, 파서타, 파서타” 수지는 펼쩍펼쩍 뛰었고, 또 다시 케이지 주위를 빙빙 돌면서 말했다.

해리는 아빠가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려서 먹기로 결정했다. 8시 30분이 되었다.

“미안.” 이토 씨가 해리 엄마에게 입맞춤을 하며 말씀하셨다. (그 모습은 아주 다정했다.)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 시간가는 줄을 잊었지 뭐야.” 해리 아빠가 말씀하셨다.

이토 가족은 자주 시간가는 것을 잊어버렸다. 해리엄마는 괜찮다고 말씀하셨다. 음식이 준비 되었을 때는 벌써 9시가 되어 있었다. 수지는 소파에서 잠들어 버렸지만 나머지 가족들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식사를 마치고 해리 엄마는 수지를 침대로 옮겼고, 해리와 아빠는 거실로 들어왔다.

“와우, 이렇게 늦었는지 몰랐어.” 이토 씨가 벽난로 위의 크고 빛나는 금시계를 바라보면서 말씀하셨다. “해리, 너도 잠잘 시간이야.”

“오, 아빠, 금요일 밤이에요. 조금만 더 있으면 안돼요?” 해리가 물었다.

해리 아빠는 늦게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 아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흔쾌히 허락하셨다. 그들은 함께 게임을 시작했다. 나는 햄스터 곡예로 그들을 즐겁게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나뭇가지에 올라가고 바퀴 위에서 깡충깡충 뛰면서 점점 더 빨리 돌기 시작했다.

“달려, 험프리, 달려!” 해리가 말했다. 곧 그와 아빠는 게임에 대해서 까맣게 잊고 나를 보고 있었다.

“내일 험프리를 햄스터 공에 넣어 줄 생각이예요.” 해리가 아빠에게 말했다.

해리 엄마가 내려왔을 때, 나는 모든 동작을 다시 시작했다. 전날 밤부터 피곤했지만, 햄스터의 일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이토 부인은 시계를 힐끗 보았다. “해리는 아침에 축구시합이 있어.” 해리 엄마는 하품을 하며 말씀하셨다. “잠자리 가자.”

이토 씨도 시계를 쳐다보았다. “내 시계가 조금 늦었군.” 해리 아빠는 말씀하시

며 손목시계의 시간을 맞추었다.

“저 시계가 맞는 거 확실해요?” 해리 엄마가 물어보셨다.

“그럼. 골동품일지는 몰라도 시간은 정확해.” 이토 씨가 대답했다.

이토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자기의 시계도 맞추었다.

해리와 부모님이 침대로 가고 나서 나는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어 기뻐다. 이토 가족들처럼 나도 시계를 확인했다.

11시였다.

~ * * * * ~

다음날 아침 나는 거실 탁자 위 케이지 안에서 이토 가족들이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았다. 일어나고 아침을 먹고 뉴스를 듣는 일상의 아침 소동이 일어났다.

해리는 나를 보러 거실로 왔다.

“안녕, 험프리. 폭 잤어? 우리 집 마음에 들어?” 해리가 물었다.

내가 그렇다고 말하려는데 이토 부인이 거실로 허둥대며 들어오셨다. 그녀는 정신이 없어 보였다.

“해리, 얼른 옷 입어라. 시합은 9시야!” 해리 엄마가 말씀하셨다. 시계는 15분 전 9시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토 부인은 아직도 실내복 차림이었다.

“시합은 몇 시지?” 이토 씨도 실내복을 입은 채 거실로 들어오면서 물어보셨다.

“9시예요!” 이토 부인이 계단을 향해 가며 말씀하셨다. 이토 씨는 그녀 바로 뒤에 계셨다.

해리는 5분 전 9시에 축구 유니폼을 입고 내려왔다. 나는 행운을 빌며 축구 경기장이 집에서 가깝기를 바랐다.

드디어 이토 부부도 옷을 입고 거실로 돌아오셨다.

“수지는 어디 있어?” 이토 씨가 물으셨다.

이토 부인은 계단을 도로 올라가셨다. “수지의 옷을 입히고 갈게요. 차에서 봐요!”

이토 씨는 시계를 보고 머리를 가로저었다. 1분전이었던 것이다.

“좋아.” 이토 씨가 말씀하셨다. “그렇지만 우린 늦을 거야!”

마침내 이토 가족은 9시 3분에 집을 나섰다. 그들은 당연히 늦었다. . . 여느 때처럼.

나는 그 가족이 그렇게 허둥대며 뛰어다니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녹초가 되었다. 나는 이런 상황이 이토네 가정에서 일상으로 일어나는 풍경일 거라고 생각했다. 해리가 학교에 지각하는 이유이기도 했다.

이토 부부는 성인이었고 제법 똑똑해 보였다. 그들의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작은 햄스터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는 하루 종일 케이지 안에서 간간이 낮잠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그 문제에 집중했다.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이토 가족은 시간을 잘 지키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이 시간을 알기 위해 벽난로 위의 시계를 확인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들의 습관을 바꿀 수는 없어도 그들이 완전히 신뢰하는 시계를 바꿀 수는 있을 것이다.

내가 오랫동안 시계를 뚫어지게 보고 있을 때, 머릿속에서 짧은 시가 맴돌았다.

똑딱 똑딱

쥐가 시계 위로 올라가네. . .

수지는 나를 쥐라고 불렀는데, (나는 그녀가 “입”을 발음한다고 생각했다.) 햄스터들은 쥐와 많이 닮았다. (알도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설치류이다.) 그래서 쥐가 시계 위로 올라갈 수 있다면, 나처럼 영리한 햄스터도 계획을 갖고 있기만 하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토 가족이 외출한 동안 다가올 분주한 밤을 생각하며 쉬기로 했다.

~ * * * * ~

가족들이 경기에서 돌아왔을 때, (해리의 팀이 이겼다. 앗싸!) 시간에 대해 걱정할 필요만 없다면 그들은 정말 재미있는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해리는 뒤

뜰에서 수지에게 몇 가지 축구 동작을 보여주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잠깐 동안 나가서 맛있는 음식을 한 보따리 들고 돌아왔다. 이토 부부는 음식을 푸짐하게 준비했고 해리와 수지도 거들었다. 그들은 나에게 당근을 주었다.

다 같이 저녁을 먹고 나서 그들은 지하실로 내려갔다. 해리는 나도 데리고 갔다.

나는 해리의 행동에 기분이 좋았다. 케이지 안에 앉아서 가족들이 탁구를 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탁자로 테니스를 치지 않았다. 그들은 탁구대 위에서 작고 탕탕한 공과 라켓을 사용하여 탁구를 쳤다.

수지는 너무 어려서 탁구를 치지 못했지만, 그들은 수지에게 라켓을 주고 따라 해 보라고 했다. 해리와 부모님은 탁구대 중앙에 작은 네트를 사이에 두고 공을 이리저리 주고받으며 아주 잘 쳤다. 게임은 꽤 흥미진진했지만 내 목은 움직이는 공을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느라 피곤했다.

“보세요, 험프리도 치고 싶은가 봐요.” 해리가 말했다.

나는 이토 가족이 라켓으로 나를 이리저리 칠까봐 걱정이 되어 약간 몸을 떨었다. 그러나 해리가 좋은 생각을 해냈다. 먼저, 그는 내가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담요를 탁구대 가장자리에 깔았다. 다음에 나를 햄스터 공 안에 집어넣고 탁구대 위에 올려놓았다.

“시작해, 험프리.” 그는 말했다.

이토 가족은 모두 탁구대에 기대어 내가 탁구대를 가로질러 네트를 향해 굴러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나는 꽤 빠르게 속력을 낼 수 있었다. 네트에 부딪치자마자 나는 작은 흰색 공처럼 튕겨 나왔다.

“험프리 일승!” 해리가 말했다. “험프리가 네트에서 튕겨 나올 때마다 1점을 주기로 해요.”

자랑은 아니지만 해리엄마가 피곤해서 자야겠다고 말씀하실 때쯤에 나는 10점을 획득했다.

그녀는 피곤했다. 그럼 나는? 여전히 할 일이 많았다.

거실에 혼자 남게 되고 집이 완전히 조용해졌을 때, 나는 잠겨 있지 않은 자물쇠를 열고 탁자 다리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달빛이 이중문을 통해 들어왔기 때문에, 벽난로 옆에 있는 두 개의 금속 선반이 선명히 보였다. 그 선반은 서로

가까이 놓여 있어서 그 위로 올라가야 하는 나로서는 다행이었다.

나는 시계에 대한 경험이 없었지만, 이 일이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지 확인해보고 싶었다. 그 시계는 숫자들 (빛이 나오는 숫자들이 아닌)과 바늘이 있는 구식 시계였다. 시간은 정확히 11시 25분이었다.

시계 앞에는 시간을 조절하기 위한 방법이 없어서 나는 뒤로 돌아갔다. 거기에는 손잡이가 있었는데, 내 생각에 그것은 시간을 맞추는데 사용될 것 같았다.

나는 몸을 뺀고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돌리려고 노력했다. 그것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내 계획은 실행될 것 같지 않았다! 나는 벽난로 선반으로 후퇴하고 쉬었다.

“잠깐만 기다려, 험프리.” 나는 조용히 혼자 중얼거렸다. “넌 흔들거리는 아키의 전원을 켜. 분명히 이 작은 손잡이를 돌릴 수 있어!”

온힘을 다해 손잡이 위로 뛰어 올라가서 움켜잡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나는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지만 오래 매달려 있으면, 그 무게로 손잡이를 움직일 수 있기를 기대했다.

나는 오른쪽으로 몸을 흔들면서 손잡이를 아래로 힘껏 잡아당겼다.

“으악!” 손잡이는 조금 움직였다.

딩동! Ding동! 갑자기 차임벨소리가 울렸다.

나는 벽난로 선반으로 후퇴했다.

딩동! Ding동! 벨소리가 너무 커서 내 머릿속에서 울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것은 나에게 심한 두통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여전히 나에게는 계획이 있었고, 그 어떤 것도 나를 막을 수 없었다. 벨소리는 곧 멈추었다. 다시 올라가서 필사적으로 매달렸더니 손잡이가 조금 움직였다. 나는 잡았던 것을 놓고 앞으로 달려와서 시간을 확인하고는 다시 한 번 손잡이를 움직이기 위해 뒤로 돌아갔다.

내 발은 몹시 아팠다. 다시 시계 앞으로 와서 확인해보니 시계는 5분이나 빠르게 맞춰져 있었다.

나는 시간을 너무 빠르게 맞춘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다. 이토 가족이 눈치 챌지도 몰랐다. 하지만 5분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스스로 가슴 뿌듯한 보람을 느끼며 케이지로 돌아갈 방법을 찾아보았다. 선반

아래로 내려간다는 생각만으로 속이 메스꺼웠다. 하지만 건너편에 커튼과 긴 줄이 매달려 있는 창문이 있었다. 완벽해! 나는 줄을 붙잡고 미끄러져 내려갔다.

“이크!” 이 줄이 너무 미끄러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던 것이다. 나는 26반 교실의 블라인드 줄을 타고 내려갔을 때보다도 아주 빠르게 내려갔다! 바닥으로 내려왔을 때 앞이 캄캄해서 생각보다 훨씬 심하게 바닥에 부딪쳤다.

조금 진정이 되자 시계를 올려다보았다. 그때가 11시 45분이었다. 사실은 11시 40분이라는 것을 나는 당연히 알고 있었다. 시간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알게 되어 너무 기뻐다!

커피 탁자 위로 돌아왔을 때 또 다른 행운이 있었다. 그 옆에 발판이 있어서 쉽게 탁자 위로 뛰어 올라와 케이지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그날 밤처럼 침대로 기어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행복했던 적은 없었다.

그 순간, 26반 교실에 혼자 남아 어항 속을 헤엄치고 있을 오그에 대한 생각만으로도!

~ * * * * ~

다음날 아침에 온 몸이 아팠지만, 나의 온갖 노력이 보상을 받게 될지 확인하고 싶었다. 거실을 왔다 갔다 하는 소동이 다시 일어났던 때는 훨씬 늦은 오전 9시 45분이었다.

“우린 교회에 늦을 거야!” 이토 부인이 실내복을 입고 방으로 걸어가면서 말씀하셨다.

“난 준비완료!” 해리 아빠가 말씀하셨다. 그는 그날을 위해 완벽하게 차려 입고 나타나셨다.

“애들은 준비되었는지 확인해 봐요.” 해리 엄마가 말씀하셨다. “난 옷을 입고 있어요.”

이토 씨가 올라가자 위층에서 온 가족이 허둥대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마침내 그들은 교회에 갈 복장을 하고 거실에 다시 나타났다.

“오, 안 돼. 우린 또 지각할 거야.” 이토 부인이 시계를 보며 말씀하셨다.

“겨우 5분 늦을 거야.” 해리 아빠가 말씀하셨다. “가자.”

그들이 떠났을 때, 나는 시계를 올려다보았다. 5분전 10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사실은 10분전 10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토 가족은 아마도 정각에 도착할 것이다. 간신히.

~ * * * * ~

그날 그 이후의 시간은 너무나도 조용했다. 해리가 와서 케이지를 들어 올렸을 때 나는 깜빡 졸고 있었다.

“자, 험프리.” 해리가 말했다 “넌 내 숙제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이크!” 나는 짹짹거렸다. 사실 그 일이 싫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날 밤을 해리의 방에서 보내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다. 이토 가족을 좀 더 도와주기 위한 계획을 이미 세워 둔 상태였다.

다행히도, 해리는 숙제를 끝마치자 케이지를 들고 거실로 내려와 탁자위에 도로 놓았다. 내 계획은 무사해!

시계가 11시를 알리는 벨소리가 울리고 나서 집안이 조용해졌을 때, 나는 케이지의 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나서 벽난로 선반 위로 올라갔다. 나는 공들여서 또 5분을 앞으로 옮겨 놓았다. 그것은 이토 가족에게 아침에 10분의 여유 시간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음날 아침에 해리와 나는 늦지 않을 것이다.

험프리의 교칙: 숙제는 굉장히 피곤할 수 있다. 특히 당신이 학급 애완동물이라면!

13. 브리즈번 대 베이커

굿 뉴스! 이토 가족은 내가 한 일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사실, 이토 부인은 거실의 시계가 자기의 손목시계보다 10분 빠르다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오히려 손목시계를 다시 맞추었다! 이토 씨도 똑같이 했다.

밧기 힘들겠지만, 우리는 종이 울리기 10분 전에 학교에 도착했다.

해리는 놀랐다. 그의 엄마도 놀랐고, 브리즈번 선생님도 놀랐다.

나는 놀라지 않았다.

“해리, 정각에 여기서 널 보게 되어서 정말 기쁘구나.” 브리즈번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이토 부인은 조금 당황한 것처럼 보였다.

“브리즈번 선생님, 우리는 올해 출발이 순조롭지 못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토 부인이 선생님께 말씀하셨다. “그렇지만 날마다 정각에 해리가 도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그 말은 브리즈번 선생님을 행복하게 만들었다. 나도 행복했다. 어느 누구도 시계를 다시 바꿔놓지 않기를 바란다. 나를 제외하고!

오그에게 내 모험에 대해 말하고 싶어서 휴식시간까지 기다릴 수 없었다.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학생들은 브리즈번의 벳들로서 각자의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내 계획이 효과를 발휘했으면 좋겠어.” 나는 오그에게 말했다.

롤링 로지와 포켓트플 피비는 즉시 숙제를 거두는 일을 했다. 두 소녀는 자신들의 숙제를 먼저 제출했다. 그래, 이번에는 피비가 정말로 기억했구나! 내가 바라고 있던 것처럼, 그녀는 아마도 그 일을 하는 자신이 숙제를 잊어버린다면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토마스는 학급일지를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빠짐없이 기록했다.

브리즈번 선생님은 헬플 폴리에게 계속해서 일을 시키셨다. 홀리는 출석을 확인하고 보고서를 사무실로 전달했다. 브리즈번 선생님은 홀리에게 교실 뒤에 있는 작은 도서관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식물들에게 물을 주라고도 하셨다.

홀리가 드디어 자신이 원했던 만큼 도움을 주는 일을 하게 된 것 같았다.

허리 업 해리와 슬로우 다운 사이먼은 출입문과 줄서기 감시자의 일을 훌륭하게 했다. 휴식시간이 되었을 때 사이먼은 문을 열었고, 해리는 학생들을 복도로 안내했다. (그가 줄 맨 앞에 있어서 꾸물댈 수 없었다.) 그 다음에 사이먼은 문을 닫고 줄에서 뒤편 학생이 없는지 확인했다. (그래서 그가 앞지르며 달려 나갈 방법은 없었다!)

~ * * * * ~

점심식사 후에 툴 폴과 스플 폴이 게시판에서 일하기 편한 시간이 되었다. 이들은 내가 가장 관심을 갖는 짝이기도 했다. 그들은 전에 한 번도 얘기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그들의 행동을 보기는 조금 어려웠다. 브리즈번 선생님이 케이지를 청소하는 저스트 조이의 모습을 지켜보시는 동안 나는 햄스터 공간에 있었다. 조이가 일을 하는 동안, 선생님은 오그의 어항으로 가서 비 케어플 켈시에게 오그를 어떻게 보살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다.

“오그, 켈시가 너에게 조심했으면 좋겠어!” 조이가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짹짹 말했다.

“평, 평!” 오그는 기분 좋게 콧소리로 말했다.

조이는 일을 하면서 나에게 말했다.

“난 믿을 수가 없어, 험프리. 가장 좋은 일을 내가 맡게 된 거야! 지금까지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 적이 없었어.”

나는 조이가 그렇게 행복한 모습을 전에 본 적이 없었다. 그는 나를 케이지에 넣고 나서 말했다. “그것은 마치 웃음을 되찾은 것 같아. 널 우리 집에 데려갈 때까지 기다릴 수 없을 거야.”

“나도 그래.” 나는 짹짹거리며 조이가 원반을 잡는 개를 데리고 있다는 말을 기억했다.

나는 두 명의 폴을 잘 보기 위해 케이지 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들은 게시판에 붙여있는 종기와 낡은 압정을 떼어내고 있었다. 툴 폴은 게시판 위쪽을 반면에

스물 폴은 아래쪽을 처리했다. 그들은 서로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함께 일을 하고 있었다.

하루가 끝날 무렵, 브리즈번 선생님은 홀리를 자기 책상으로 불러서 훌륭하게 일을 해내고 있다며 칭찬을 하셨다.

“홀리, 나를 보조하는 일은 시간을 많이 빼앗을 거야. 피비가 로지의 도우미가 되면 어떨까.” 선생님이 제안하셨다. “어차피, 그들은 함께 숙제를 거두는 일을 하고 있어.”

헬플 홀리는 안도하는 것 같았다.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녀는 말했다. “만약 로지가 괜찮다면.”

“내가 말할게.” 브리즈번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당연히 선생님이 로지에게 전달하셨을 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선생님이 피비에게 로지의 새로운 도우미 역할을 제안하시자 피비의 얼굴은 환하게 밝아졌다.

그렇다. 지난밤에 브리즈번의 벳 카드를 바꿔놓은 일이 분명히 성공하고 있었다. 그리고 최악의 학급이 점점 나아지고 있었다. 잠깐이지만 내 자신에게 매우 뿌듯했다.

하지만 방과 후, 나를 위협하는 일이 일어났다.

베커 선생님이 26반 교실을 방문하셨다.

~ * * * * ~

나는 베커 선생님을 실제로 본적이 없었다. 그녀는 눈이 아주 커 보이는 큰 안경을 낀 키가 작은 여성이었다. 그것은 조금 섬뜩해 보일 수도 있었겠지만 베커 선생님은 굉장히 큰 미소를 짓고 계셨다. 그 미소 때문에 나는 그녀가 마음에 들었다.

“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수.” 선생님은 교실에 들어오시며 말씀하셨다. “내 학생들은 학급 애완동물을 갖길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하지만 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브리즈번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셨다. “작년의 내 학급은 험프리와 오그를 매우

좋아했어요.”

“오, 알아요! 저도 들었어요. 이쪽은 험프리, 그리고 저쪽은 오그. 그게 우리 반 학생들이 말해준 전부예요.” 베커 선생님이 설명하셨다. “전 잘 모르겠어요. 어릴 때 애완동물을 키워본 적이 없거든요.”

“이리 와서 만나볼래요?” 브리즈번 선생님이 제안하셨다.

내 심장은 맥없이 주저앉았다. “브리즈번 선생님은 정말로 우리 중 한 마리, 또는 둘 모두를 주시려는 걸까?”

“작년에 나도 햄스터를 키울 생각은 하지도 못했어요.” 브리즈번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그것을 전부 기억하고 있었다.

“그때 맥 선생님이 내가 없는 동안 험프리를 데려왔어요.” 선생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험프리는 학급에 많은 보탬이 되었어요. 그래서 앤지 루미스 선생님이 오그를 그녀 학급에서 내보내려고 했을 때 기쁘게 오그를 받아들였어요. 가끔 나는 그들이 정말 친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정말 우습죠.”

가끔? 오그와 나는 항상 친구이다.

“그런데, 있잖아요, 애들을 만져야 하나요?” 베커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선생님의 큰 미소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럼요, 하지만 괜찮아요.” 브리즈번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베커 선생님은 케이지 가까이 몸을 숙이고 계셔서 선생님의 눈은 왕방울처럼 보였다.

“학생들이 말하길 험프리는 귀여운 행동을 많이 한다더군요.” 그녀는 목소리를 조금 떨면서 말씀하셨다.

브리즈번 선생님은 빙그레 웃으셨다.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께 보여드려, 험프리.”

나는 타고난 체력을 자랑하길 좋아한다. 내가 뛰고 돌고 구르고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고, 내가 짹, 짹, 짹! 하는 소리를 들려주는 것은 결국 인간들을 즐겁게 하는 것 같다. 하지만 베커 선생님이 나를 18반 교실로 데려가려고 할 것 같아 조금 긴장되었다. 특히 베커 선생님은 나를 만지고 싶어 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나는 항상 브리즈번 선생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온힘을 다해 바퀴 위에서 뛰면서 돌기 시작했다.

“와, 세상에!” 베커 선생님의 왕방울 눈이 더 커졌다. “험프리는 확실히 활동적이네요.”

베커 선생님은 내 행동을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되기로 결심했다. 나는 바퀴에서 점프하고 짧은 다리로 가능한 짹짹하게 나뭇가지 위를 올라갔다. 꼭대기에 도달하자 케이지 안쪽으로 뛰어내렸다.

베커 선생님은 헐떡거렸다. “험프리는 저런 행동을 어떻게 하죠?”

“험프리는 매우 영리하답니다.” 브리즈번 선생님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다. “오그도 재빠르게 움직여요.” 브리즈번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두 선생님이 오그의 어항으로 관심을 돌리시는 동안 나는 벽찬 숨을 돌릴 기회를 얻었다.

“그는 아주 잘생긴 개구리예요, 그렇지요?” 브리즈번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오그가 매우 좋은 친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잘생겼다고? 초록색 피부에, 털이 전혀 없고 커다란 입과 큰 통방울눈. . . 그것은 갑자기 베커 선생님의 눈을 연상시켜주었다.

“평!” 오그는 콧소리를 냈다. 그것은 기분 좋은 답례였지만, 베커 선생님은 어항에서 벌떡 뒤로 물러나셨다.

“방금 그건 뭐였어요?” 베커 선생님이 질문하셨다.

“그것은 오그가 내는 소리에요.” 브리즈번 선생님은 매우 인내하고 계셨다.

“또 오그는 무엇을 하죠?” 베커 선생님이 물어보셨다.

“오그는 어항 안의 마른 곳과 물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요.” 브리즈번 선생님이 설명하셨다.

오그는 듣고 있는 게 분명했다. (내가 볼 수 없는 귀로.) 갑자기 그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거칠게 침범거렸기 때문이다.

“어머나” 베커 선생님이 외쳤다. “개는 몹시 시끄럽군요, 그렇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우리는 베커 선생님에게 아주 공손히 대했지만, 그녀는 확실히 우리에게 예의가 없었다.

“당신만큼 시끄럽지는 않아!” 나는 짹짹하며 말했다.

베커 선생님은 오그와 나 사이를 이리저리 쳐다보셨다.

“선생님은 이 모든 일을 어떻게 다 하세요?” 베커 선생님이 질문하셨다.

“오, 아이들이 대부분의 일을 하고 있어요.” 브리즈번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가능할 때는 그들을 집으로 데려가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죠. 요점은 맥 선생님이 26반 교실로 험프리를 데려왔을 때 나에게 했던 말이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다른 동물을 돌보면서 자신에 대해 많이 알게 될 거예요. 그건 정말 사실로 증명되었어요.”

베커 선생님은 오그와 나를 잠시 쳐다보다가 말씀하셨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학생들은 그들을 아주 많이 좋아해요.”

바로 그때, 맥 선생님이 오셨다. “내가 방해했나요?”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아니! 선생님처럼 얘기하기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브리즈번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브리즈번 선생님의 말씀은 옳았다. 맥 선생님은 완벽한 사람이었다. . . 적어도 나에게.

“작년의 내 학생들 몇 명이 학급 애완동물을 원하고 있어서 베커 선생님이 고민스러운가 봐요.” 브리즈번 선생님이 설명하셨다. “그래서 선생님은 험프리와 오그를 보러 오신 거예요.”

맥 선생님은 매력적인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다. “어떤 학급도 그 둘과 함께라면 더 잘할 거예요.”

이번만은 맥 선생님의 방문이 서운했다. 그녀가 베커 선생님에게 나를 데려가라고 설득하는 것이 싫었다.

“시간 내줘서 고마워요, 수.” 베커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아직도 생각할 게 많아요.”

베커 선생님이 나가신 후 맥 선생님은 브리즈번 선생님과 말하고 싶어 하셨다.

“우리 반 학생들이 읽는 법을 배우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멋진 일인 것 같아요.” 맥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하지만 몇 명은 힘들어 해요. 그래서 난 그 학생들에게 책이 얼마나 재미있는지를 알게 해주고 싶어요.”

브리즈번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우리가 함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맥 선생님은 시계를 힐끗 보셨다. “지금 가봐야 해요. 오늘밤에 전화할게요. 그때 우리 좀 더 얘기해요.”

맥 선생님은 나가기 전에 케이지와 어항의 눈높이가 되도록 몸을 숙이고 말씀 하셨습니다.

“아마 내 학생들도 학급 애완동물이 필요할 지 몰라.”

갑자기 나는 오그와 내가 26반 교실을 떠나게 될 것 같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다.

~ * * * * ~

그날 밤 교실 청소를 하러 온 알도는 아직도 화가 안 풀린 것 같았다.

“리치가 그러는데 너희들 중 한 마리를 베키 선생님의 교실로 데려갈 생각을 하고 있대.” 알도가 말했다. “난 그게 좋은 생각 같지 않아!”

“나도!” 나는 크게 짹짹 말했다.

“핑, 핑, 핑!” 오그도 동의했다.

“물론, 그 아이들은 너를 사랑해.” 알도는 바닥을 쓸고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말했다. “하지만 새로운 아이들도 너를 필요로 해.”

그것은 사실이였다. 거의 모든 아이들이 도움이 되는 햄스터를 필요로 하는 것 같았다.

~ * * * * ~

밤이 깊어졌을 때 알도는 교실을 나갔다. 오그는 조용했다. 나는 케이지 안의 은신처에서 작은 노트를 꺼내어 몇 가지 목록을 적기 시작했다.

26반 교실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들

- 브리즈번 선생님이 나에게 기대고 있다.
- 새로운 학생들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고, 도움이 필요하다.
- 오그와 지내기 위해 (내가 바란다.)

내가 18반 교실로 옮겨야 하는 이유들

- 옛 친구들과 지내기 위해 (리치, 하이다, 게일, 커크, 타비사, 에이제이)
- 베커 선생님에게 애완동물에 대해 가르쳐주기 위해

오그가 18반 교실로 옮겨야 하는 이유들

- 옛 친구들과 지내기 위해 (리치, 하이다, 게일, 커크, 타비사, 에이제이)
- 베커 선생님에게 애완동물에 대해 가르쳐주기 위해

나는 몇 시간동안 그 목록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어느 것이 현명한 선택인지 결정할 수 없었다.

결국, 나는 결정을 하지 않았다. 노트를 숨기기 전에 시를 쓰기로 했다.

가을이여, 오, 가을이여,
 황금빛 나뭇잎이 바람에 흩날리네.
 가을이여, 오, 가을이여,
 어디로 가야 할지 나도 모르겠네!

험프리의 교칙: 교실을 더 나은 장소로 만들기 위해 충분히 여러분의 역할에 충실하라.

14. 협력하기

다음날, 나는 피비가 숙제를 또 기억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기뻐다! 그녀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카드를 바꾼 것은 확실히 잘한 일이었다.

홀리는 하루 종일 선생님을 돕는 일에 기뻐하는 것 같았다. 특히 브리즈번 선생님이 홀리를 계속해서 바쁘게 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슬로우 다운 사이먼은 상당히 느려졌다. 출입문과 줄서기를 감시하면서 그는 줄을 서는 학생들을 기다려야 했기 때문이었다. 허리 업 해리는 휴식시간이나 점심시간이 지나서 다른 학생들이 줄 서 있을 때 나가야 했기 때문에 절대 늦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아침에도 절대 지각 하지 않았다. 이토 가족이 아직도 거실의 시계가 빠르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

비 케어플 켈시는 오그를 어항에서 꺼낼 때 조심히 다루었다.

“오그, 두려워하지 마.” 켈시가 말했다. “너 같은 특별한 개구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조심할게.”

저스트 조이는 또 케이지를 깔끔하게 정리했다. 사실 그럴 필요는 없었지만. 브리즈번 선생님이 확인하러 오셔서 조이에게 아주 잘했다고 칭찬을 하셨다. 선생님은 조이에게 앞으로 모든 동물 조련사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

조이는 뿔 듯이 기뻐했다. “너도 들었니, 험프리?” 조이는 나중에 나에게 물었다. “나는 이제 트레이너야, 단지 조련사가 아니야. 브리즈번 선생님은 정말로 나를 믿고 계셔.”

그 일은 조이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사실, 브리즈번의 벳들은 모두가 자신의 일에 즐거워하는 것 같았다. . . 두 명만 제외하고.

툄 풀과 스몰 풀은 함께 협력하여 게시판을 깨끗이 치웠지만, 아직까지 그 자리에 아무것도 채워 넣지 않았다. 브리즈번 선생님이 미술용품, 종이, 지도, 포스터가 가득 들어있는 상자를 꺼내주셨지만,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서로 합의하지 못한 듯 보였다. 스몰 풀은 가을에 관한 주제를 원했지만, 툄 풀은 동물에 관한 주제를 택했다. 그리고 스몰 풀은 게시판에 비행기에 관한 것들로 장식하고 싶어 했지만, 툄 풀은 자동차에 관한 것을 원했다.

“비행기와 자동차는 어때? 둘 다 교통수단이잖아.” 브리즈번 선생님이 제안하셨다.

두 폴은 그것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두 폴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분명히 내가 그들을 짝으로 결정했을 때 대단히 큰 실수를 했던 것이다.

“브리즈번 선생님, 폴 지와 내가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요.” 화요일 점심시간이 지났을 때 스몰 폴이 브리즈번 선생님에게 말했다. “다른 학생과 바꿔주시면 좋겠어요.”

“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해.” 선생님이 설명하셨다. “네가 살아가는 동안 그것을 수차례 배우게 될 거야.”

스몰 폴은 우울해 보였다. “폴 지는 노력도 하지 않아요.”

“그럼 넌 어때? 너는 노력하고 있니?” 브리즈번 선생님이 질문하셨다.

스몰 폴은 대답하지 않았다.

“넌 할 수 있어, 폴!” 나는 케이지 안에서 짹짹 말했다.

오그도 폴을 격려해 주었다. “평, 평!”

브리즈번 선생님은 우리를 바라보셨다. “저 둘을 봐. 오그와 험프리처럼 닮지 않은 한 쌍의 동물을 떠올릴 수 있겠니?”

“맞아! 오그는 양서류이고 난 포유류야!” 선생님의 말씀에 동의했다.

“그렇지만 그들은 탁자를 공유하며 서로 함께 있는 것을 정말 즐기는 것처럼 보여.” 브리즈번 선생님은 계속 말씀하셨다.

“오그는 냉혈동물이고 난 온혈동물이야!” 나도 거들었다.

“그래서 내 생각에 같은 나이에다 같은 반이면서 둘 다 비행기와 자동차와 같은 것을 좋아하는 두 소년이라면 서로 협력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래?” 브리즈번 선생님이 하신 말씀은 분명히 설득력이 있었다.

“내 생각에.” 폴은 말했다. 그는 납득하지 못했다.

“그럼 다른 시도를 해봐.” 브리즈번 선생님은 폴에게 말씀하셨다. “험프리와 오그를 위해, 알겠니?”

나는 행운을 빌며 그들이 한 번 더 시도해 보길 바랐다.

그들은 그 날 늦게 함께 일을 할 기회를 가졌지만, 서로 말을 하지 않았다. 그

들은 그냥 미술용품 상자를 바라보기만 했다.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일이 다음에 일어나고 말았다. 브리즈번 선생님은 홀리에게 운동 장비를 라이트 선생님께 돌려주라고 하셨다. 그것은 방망이 몇 개와 공 한 상자였다.

헬플 홀리는 한 번에 들고 가는 것이 조금 버거웠다. 방망이들이 바닥에 쿵하고 떨어졌고 상자는 옆길러져서 공들이 바닥으로 튕겨 나왔다. 홀리는 그것들을 줍다가 도움을 받기로 했다.

“도움을 요청하고 싶니?” 브리즈번 선생님이 물어보셨다.

홀리가 교실을 둘러보고 롤링 로지를 선택했을 때, 나는 나뭇가지에서 떨어질 뻔했다. 로지는 조금 놀라면서도 얼굴 가득 미소를 지었다.

“내 무릎 위에 상자를 놓으면 돼.” 로지는 제안했다. “넌 방망이를 들고 가면 될 거야.”

“좋은 생각이야.” 홀리가 말했다.

그들이 나가자 브리즈번 선생님은 나머지 학생들에게 말했다. “저 모습이 내가 우리 학급에서 보고 싶은 거예요. 함께 협력하기. 내가 브리즈번의 벳들을 고안해냈던 이유이기도 해요.”

스몰 폴은 협력이라는 단어를 듣고 톨 폴을 힐끗 쳐다보았다.

나에게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는 톨 폴에게 뭔가 말을 했고 톨 폴은 고개를 끄덕였다. 곧, 그들은 상자에서 물건들을 꺼내며 서로 말하고 있었다.

잠시 후, 스몰 폴이 물었다. “브리즈번 선생님, 학급 아이들의 사진을 빌려서 도서관에 가져가도 될까요? 저희는 그 사진들을 컴퓨터로 스캔하려고 해요.”

선생님은 놀라셨지만 당연히 허락하셨고 도서관 사서, 미스터 피치⁸³⁾에게 메모도 적어 주셨다.

두 폴은 돌아오면서 함께 웃고 있었다.

방과 후에 브리즈번 선생님은 스스로 매우 만족한 것처럼 보였다. 선생님이 나가시기 전에 인사하러 우리 탁자로 오셨다.

“브리즈번의 벳들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아.”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그 카드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직도 모르겠지만 말이야. 알도가 했나?” 선생님은

83) Mr. Fitch

웃었다. “그가 했더라도 내가 일러바칠 리는 없겠지.”

그건 사실이었다.

~ * * * * ~

다음날 아침, 스몰 폴과 톨 폴은 (함께) 휴식시간에 게시판에서 일을 해도 되는지 브리즈번 선생님의 허락을 구했다.

“그래.” 선생님은 말씀하셨다. “라이트 선생님이 몰랐으면 좋겠구나. 그녀는 모든 학생들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길 원하시니까.”

톨 폴은 웃으며 창가로 달려가서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자, 신선한 공기를 마셨어요.”

스몰 폴도 달려가서 똑같이 했다. “저도요.” 그는 말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게시판으로 돌아갔다.

“내가 계획을 세웠어.” 스몰 폴이 톨 폴에게 종이 한 장을 보여주면서 말했다. 나는 26반 교실에서 나 외에 다른 누군가가 계획을 세웠다는 말을 들으니 무척이나 기뻐했다.

톨 폴은 신중하게 그것을 검토했다. “이거 괜찮은데,” 그는 말했다. “내가 위쪽을 맡을게.”

“알았어.” 스몰 폴이 대답했다. “난 아래쪽을 맡을게.”

나는 게시판이 감쪽같이 되살아나는 것을 보기 위해 케이지 꼭대기로 올라갔다.

톨 폴은 “브리즈번의 벗들—우리는 협력한다.” 라고 쓴 글자를 게시판 맨 위에 달았다.

그동안, 스몰 폴은 게시판 아래쪽에 브리즈번 선생님이 수업 첫날에 찍은 학생들 사진을 붙였다. 두 소년은 컴퓨터로 그 사진들을 확대시켜서 출력했던 것이다. 스몰 폴은 학생들 임무에 맞춰 짝을 지어 사진들을 붙였다.

다음은 톨 폴이 게시판 위쪽에 사진들을 붙였다.

그들이 게시판 중앙에 이르렀을 때는 서로가 함께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조금도 개의치 않는 것 같았다.

그들은 휴식시간이 끝나기 전에 일을 끝마치기 위해 빨리 서둘렀다.

“이제 우리가 어젯밤에 그린 그림을 붙이자.” 톨 폴이 말했다.

곧 일의 명칭은 두 소년이 각각의 일을 묘사하여 그린 그림들과 함께 붙여졌다. 동물 조련사를 위해 오그와 내 모습이 멋지게 그려져 있었다.

갑자기 슬픈 생각이 들었다. “만약에 선생님이 우리들 중 한 마리를 18반 교실로 보내신다면, 동물 조련사는 두 명이나 필요하지 않을 거야.” 나는 오그에게 말했다.

오그는 어항 안에서 시끄럽게 침병거렸다.

다른 학생들이 교실로 돌아올 때쯤 게시판은 완성되어 있어서 굉장히 근사해 보였다.

모든 아이들은 게시판 위에 자기 사진이 있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 같았다. 나도 내 사진이 있어서 즐거웠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즐거웠던 것은 내 계획이 결국 좋은 성과를 가져왔고 그것을 지켜볼 수 있었던 것이었다.

스몰 폴과 톨 폴은 수업이 끝난 후, 함께 교실 밖으로 걸어가면서 비행기와 자동차를 결합시킬 계획을 이야기했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키에 대해 의식하는 것 같지 않았다.

~ * * * * ~

“후유!” 또 다시 오그와 나만 남게 되었을 때 말했다. “우리는 해냈어, 그렇지만 엄청 힘들었어.”

“평, 평, 평!” 오그도 동의했다.

그때 알도가 교실을 청소하러 왔다. “너희들 둘이 아직도 함께 있는 것을 보니 기뻐.” 알도가 말했다. “리치가 나에게 말했는데, 베커 선생님은 학급 애완동물을 무엇으로 할지 결정되면 알려주겠다고 하셨대.”

내 배가 뒤틀렸다. “우리 중 누굴까?” 나는 짹짹거렸다.

“아마도 깜짝 놀랄 거라고 말씀하셨대.” 알도가 우리의 탁자 밑을 닦으면서 덧 붙여 말했다. “선생님은 내일 그들에게 발표하실 거야. 맞아, 그리고 선생님이 결심할 수 있게 맥 선생님이 도와주셨다고 말했어.”

나는 안절부절못했다. 맥 선생님은 나를 많이 사랑해 주신다. 그래서 당연히 선생님은 베키 선생님에게 나를 선택하라고 조언하셨을 것이다. 나는 아직도 옛 친구들이 그리웠다. 그럼, 왜 26반 교실을 떠나는 것이 슬픈 걸까?

그날 밤, 알도는 우리 교실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 그는 여분의 의자들을 가져와서 구석에 쌓아 두었기 때문이었다.

“브리즈번 선생님이 내일 이 의자들이 필요할 거라고 하셨어.” 그는 설명했다.

왜 브리즈번 선생님은 더 많은 의자들이 필요하신 걸까? 학생들이 더 들어올 건가? 그렇다면, 도움이 되는 학급 애완동물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 * * * * ~

나중에, 나는 노트에 몇 가지 더 적었다.

26반 교실을 떠나는 것에 대해 내가 슬픈 이유들:

- 브리즈번 선생님을 떠나는 것
- 오그를 떠나는 것
- 이제 막 좋아지기 시작하는 새로운 친구들을 떠나는 것

나는 잠겨 있지 않은 자물쇠를 열고 오그의 어항으로 갔다.

“오그, 오랜 친구, 난 26반 교실을 떠나게 될 거야.” 나는 말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없지만 말이야.”

오그는 너무 열심히 펄쩍펄쩍 뛰어서 뚜껑이 튕겨나갈 것만 같았다. “평, 평, 평!”

“분명히 넌 학생들에게 개네들의 문제를 도울 수 있을 거야.” 나는 말했다. “매일 밤마다 널 보러 올게.”

그러자 오그는 조금 진정되었다.

“아마도 브리즈번 선생님은 너와 함께 지내게 될 다른 애완동물을 데려 오실지도 몰라. 냉혈동물로, 너처럼.” 나는 그 말이 오그의 기분을 나아지게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것 같지 않았다.

그는 어항의 물속으로 뛰어 들어갔다. 미친 듯이 침범거리면서.
나는 이해했다.
나는 케이지로 돌아와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26반 교실에서 지내는 마지막 밤.

험프리의 교칙: 부디 협력해라!

15.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학급

나는 아침 내내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현재 교실 안의 모든 일들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갑자기 26반의 새로운 학생들이 낯설게 보이지 않았다. 애석하게도 그렇게 빨리 떠나게 되다니!

모든 걱정들을 날려버리려고 노력했지만 이번에는 잘 되지 않았다.

나는 나쁜 소식을 듣게 될 것을 예상하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점심시간이 지날 때까지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때 베커 선생님이 리치와 게일을 데리고 오셨다. 그들은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데려가게 되어서 기뻐했던 것이었다.

“브리즈번 선생님, 작년에 선생님의 학생들이 좋은 소식을 나누고 싶대요. 잠깐 시간 있어요?” 베커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브리즈번 선생님은 놀라는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그럼요, 우리 반 학생들과 좋은 소식을 나눠도 되네요.”

베커 선생님은 웃으며 말씀하셨다. “물론, 괜찮아요. 작년에 이 학급의 학생들은 학급 애완동물을 갖고 싶어 했어요. 물론, 그들은 험프리와 오그를 원했어요. 그래서 전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리치와 게일, 너희들이 말할래?”

“허미트.” 리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오면서 말했다.

그것은 전혀 내 이름처럼 들리지 않았다.

“크랩.” 게일이 킁킁 웃으며 말했다.

그것도 오그의 이름과는 다르게 들렸다.

“뭐라고 했니?” 브리즈번 선생님은 깜짝 놀란 것처럼 보였다.

“우리는 아주 다른 것으로 결정했어요. 소라게 여섯 마리예요.” 베커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맥 선생님이 그걸 제안해 주셨어요.”

“멋져요!” 브리즈번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어떻게 그것을 선택했어요?”

“우린 오그만큼 대단한 개구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리치가 말했다.

“험프리만큼 완벽한 햄스터도요.” 게일이 덧붙여 말했다.

나는 그 말이 사실인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기분은 좋았다.

“그리고,” 베커 선생님이 덧붙여 말씀하셨다. “소라게는 아주 조용해요. 하지만 그들이 무리지어 산다면 더 나아질 거예요.”

“우리가 험프리와 오그와 즐겁게 지내는 것처럼 선생님도 소라게와 잘 지내길 바랄게요.” 브리즈번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아마도 곧 소라게를 보러 방문하게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날이 끝날 무렵, 브리즈번 선생님은 교실을 나가시다가 말씀하셨다. “알고 있니, 너희 둘을 대신하려면 소라게 여섯 마리가 필요했던 거야.”

그 말을 듣고 나는 떨 듯이 기뻐다.

~ * * * * ~

“후유! 정말 아슬아슬했어, 오그.” 다시 우리만 남게 되었을 때, 이웃에게 말했다.

나는 26반 교실에 남게 되어서 정말 기뻐다. 결국, 누군가는 켈시가 사고를 당하지 않게 잘 지켜봐야 했다. 내가 없으면 조이는 킁킁 하는 웃음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다. 해리의 가족은 언제든 시간을 뒤로 늦출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피비가 건망증이 심한 이유를 찾고 싶었다. 그리고 토마스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니면 과장된 이야기인지 아직까지도 확실히 알 수 없었다.

~ * * * * ~

나는 오후가 지나서 맥 선생님이 문에 나타났을 때 두 번째로 깜짝 놀랐다.

“준비 되었어요?” 맥 선생님이 물어 보셨다.

“들어와요.” 브리즈번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브리즈번 선생님이 앞으로 진행될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을 때, 나는 깜빡 졸고 있었다. 갑자기 학급 학생들이 구석에 쌓여있는 예비 의자들을 배열하며 자신의 의자 옆에 놓았다. 그 다음에 맥 선생님과 1학년 학생들이 교실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맥 선생님은 1학년 학생들에게 상급생들 옆에 앉으라고 하셨다.

“브리즈번의 리딩 벤틀84)의 목적은 상급생들과 하급생들이 좋아하는 책을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브리즈번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말씀하셨다. “질문 있어요?”

윳니 두 개가 빠진 작은 소년이 손을 들었다. “저건 뭐예요?” 그는 오그와 내가 사용하는 탁자를 가리키며 물었다.

“어, 그건 우리의 햄스터 험프리와 개구리 오그란다.” 브리즈번 선생님이 설명을 하셨다.

“안녕, 안녕, 안녕!” 내가 짹짹 인사를 하자 그들 대부분이 킬킬 웃었다.

“아마도 언젠가 너희들은 이 학급에 오게 될 거예요. 그 때 그들은 너희들의 학급 애완동물이 될 거예요.” 브리즈번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그 말은 1학년 학생들을 만족시켰던 것 같았다. 나도 만족스러웠다.

나를 훨씬 더 만족시켰던 것은 우리 학급 학생들이 참을성 있게 자기들 책을 1학년생들과 공유하고 그 애들에게 읽기를 도와주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이었다.

도대체 난 어떻게 26반이 세상에서 가장 최악의 학급이라고 생각했을까?

~ * * * * ~

그 날 세 번째로 놀라운 일은 수업이 끝나기 직전에 일어났다. 모랄레스 교장 선생님이 방문차 잠깐 들리셨던 것이다. 교장 선생님은 다채로운 색의 가을 나뭇잎 무늬가 있는 넥타이를 매고 계셨다.

“여러분, 브리즈번 선생님께서로부터 지난 몇 주 동안 여러분 학급이 선생님이 가르치셨던 어느 학급보다도 눈부시게 향상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브리즈번 선생님은 오랫동안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그건 굉장한 칭찬이에요.” 교장 선생님은 잠시 멈추고 학생들에게 미소를 지었다.

“브리즈번 선생님은 여러분이 특별히 협력하는 학습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하시더군요.” 교장 선생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자랑스럽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26반 교실의 모든 학생들의 얼굴에 미소가 퍼졌다. 내 얼굴에도.

방과 후에 브리즈번 선생님은 혼자 흥얼거리면서 서류들과 지갑을 챙기셨다.

84) Brisbane's Reading Buddies

“친구들, 아주 멋진 한 주였어, 그렇지? 내가 아직도 가르치고 있다는 것에 정말 감사함을 느꼈단다.”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그 말을 듣게 되어 정말 기분이 좋았다. 브리즈번 선생님이 학교일을 그만두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영원히!

“이번 주말에 너를 집에 데리고 갈 학생을 결정해야겠구나, 험프리”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아마도 놀라게 될 거야.”

나는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몇 주 전에는 낯설게 보였던 26반의 새로운 학생들 모두가 지금은 친구처럼 느껴졌다.

그것은 정말 멋진 기분이었다.

~ * * * * ~

그날 밤에 알도가 교실에 와서 말했던 첫 마디는 “허미트 크랩!” 이었다.

알도는 신나게 웃어서 콧수염이 흔들거렸다. “난 베커 선생님이 소라게를 선택하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 그들은 갑각류야, 알지?”

“아니, 난 몰랐어.” 나는 알도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들이 갑각류건, 영장류건, 양서류건 상관없어. 그들은 학급 애완동물이야. 장담하건데, 그들은 훌륭히 해낼 거야.”

~ * * * * ~

그날 밤 알도의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간 후에 나는 당연히 18반 교실에 가고 싶은 유혹을 거부할 수 없었다.

나는 베커 선생님의 교실 문 아래로 미끄러지듯 들어가서 조금 긴장했다. 소라게가 조지만큼 불친절하면 어찌지?

창가 옆 탁자를 보았다. 거기에는 폴더들만 쌓여 있었다. 다른 벽에서 섬뜩한 빛이 내 관심을 사로잡았다. 그 곳 탁자 위에 꼬마전구가 달린 커다란 수족관이 있었다.

나는 가까이 다가가서 아주 이상해 보이는 소라게를 올려다보았다. 그들은 나

와 같은 황금색도 아니었고 털도 없었다. 그리고 오그와 같은 초록색도 아니었고 통방울눈도 없었다. 그들은 핑크색이고 반짝거렸으며 내가 접촉하고 싶지 않은 집게발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솔직히 그들은 재미있었다.

“롱펠로우 스쿨에 온 것을 환영해.” 나는 말했다. 아마도 그들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난 너희들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학급에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

그들은 계속 꿈틀꿈틀 움직였다.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리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또 다른 학급에 있어.”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나도 외면했다. 하지만 나는 교실을 나가기 전에 돌아섰다.

“그건 그렇고,” 나는 찌찌하며 말했다. “내 이름은 험프리, 26반 교실에 있는 햄스터야.”

완전히 확신한 것은 아니지만, 나는 소라게들 가운데 한 마리가 나에게 손을 흔들었다고 생각한다. 나도 손을 흔들며 답례했다.

~ * * * * ~

교실로 돌아온 나는 오그에게 소라게들에 대해 말해 주었다.

“그들이 모두 갑각류라는 것은 멋지다고 생각해.” 나는 그에게 말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난 이웃으로는 양서류가 더 좋은 것 같아.”

“평, 평, 평!” 오그는 말했다. 마치 설치류와 함께 탁자를 공유해서 자기도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작은 노트를 꺼내 달빛을 받으며 시를 마무리 지었다.

가을이여, 오, 가을이여,
그대는 내 가련한 머리를 빙빙 돌게 하네.
하지만 지금 나는 행복 하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에!

험프리의 교칙: 여러분의 학급을 사랑하라.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V. 참고 문헌

1. 번역 원문

Birney, Betty G.(2011), *School Days according to Humphrey*. New York: Puffin Books.

2. 국문 문헌

김효중(1998), 「번역학」, 서울: 민음사.

박영순(2016), 「통번역학 이론과 실제」, 경기, 파주: 백산출판사.

이은숙(2011), 「번역의 기술」, 서울: 도서출판 동인.

진실로·곽은주 공저(2013), 「번역수업 101」, 서울: 한국문화사.

3. 번역 문헌

곽은주 외 역(2005), 「말 바꾸기: 번역학 입문」, 모나 베이커 저, 서울: 한국문화사.

이덕호 역(1999), 「문체론」, B. 조빈스키 저, 경기: 한신문화사.

임우영 외 역(2011), 「번역이론 입문-번역학 꿰뚫기」, 라데군디스 슈톨체 저,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김지원 · 이근희 공저(2004), 「번역학: 이론과 실제」, 수잔 바스넷 저, 경기: 한신문화사.

3. 국외 문헌

Baker, Mona(1992), *In Other Words*, London & New York: Routledge.

Chomsky, N.(1957), *Syntactic Structures*, The Hague& Paris: Mouton.

Culler, J.(1976), *Saussure*, Glasgow: Fontana/ Collins.

Nida, E. A.and Taber, C.R.(2003),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Leiden & Boston : Brill Academic Pub.

Palmer, F. R.(1981), *Semantics*,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